

2017년 여름 한국사전학회 제31차 전국 학술대회

한	글	과	사	전
---	---	---	---	---

일시: 2017년 8월 25일(금) 09:30~18:00

장소: 연세대학교 위당관 6층 문과대학 100주년 기념홀

주최: 국립한글박물관, 한국사전학회

후원: (주)네이버

2017 여름 한국사전학회 제31차 전국 학술대회

한글과사전

일시: 2017년 8월 25일(금) 09:30~18:00

장소: 연세대학교 위당관 6층 문과대학 100주년 기념홀

시간	발표 내용	발표자 / 토론자	사회자
9:30-9:50	등록		
9:50-10:20	개회식		강현화 (연세대)
	개회사: 박만규 (한국사전학회 회장, 아주대) 환영사: 김철민 (국립한글박물관 관장)		
주제 발표 1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와 사전 - 한글로 된 사전의 편찬 배경			
10:20-11:10	개화기의 이중 언어 사전	발표: 이은령 (부산대) 토론: 이지영 (서강대)	박동호 (경희대)
11:10-12:00	강점기의 사전: 일본어 사전과의 교섭	발표: 송영빈 (이화여대) 토론: 안예리 (한국학중앙연구원)	
12:00-13:30	점심 식사		
주제 발표 2부 사전의 사회문화적 기능 - 사전과 언어 정책			
13:30-14:20	우리말 사전과 언어민족주의	발표: 최경봉 (원광대) 토론: 조남호 (명지대)	박진호 (서울대)
14:20-15:10	사전의 사회적 기능	발표: 한용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토론: 조태린 (연세대)	
15:10-15:30	휴식		
주제 발표 3부 사전의 현재와 미래 - 사전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			
15:30-16:20	말뭉치 언어학과 사전 편찬	발표: 남기심·김한샘 (연세대) 토론: 도원영 (고려대)	이상신 (아주대)
16:20-17:10	지식 포털과 온라인 사전	발표: 장경식 (브리태니커) 토론: 이기황 (다음소프트)	
17:10-17:40	종합 토론: 한국어사전의 역사와 전망 (발표자, 토론자 모두)		박만규 (아주대)
17:40-17:50	연구 윤리 교육		김한샘 (연세대)
17:50-18:00	폐회식		
	폐회사: 박만규 (한국사전학회 회장, 아주대)		배공주 (아주대)

주최: 국립한글박물관, 한국사전학회

후원: (주)네이버

2017년 국립한글박물관·한국사전학회 공동 주최

〈한글과 사전〉 학술대회 개회사

항상 학회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학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학회 창립 15주년을 맞아 한국어사전 편찬의 역사를 회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어사전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국립한글박물관과 공동으로 제 31차 한국사전학회 전국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과 함께 이 큰 기쁨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사전이란 흔히 모르는 낱말의 의미를 찾고자 할 때 사용하는 교육적 목적의 텍스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교과서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언어는 결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훔볼트(Humboldt)와 바이스게르버(Weisgerber)가 ‘중간세계’라고 칭하고 하이데거(Heidegger)가 ‘존재의 집’이라고까지 규정할 정도로 우리의 정신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은 우리 언어에 속한 모든 낱말들을 함께 수록한 공간이며, 각 낱말의 기술에 어쩔 수 없이 녹아 있는 문화의 궤적도 함께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문화 선진국이라면 모두 자신들의 사전 편찬에 큰 힘을 기울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어 사전의 시대를 연 개화기부터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일제 강점기의 사전을 거쳐 교육의 중심으로서 기능했던 70-80년대의 사전, 그리고 코퍼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90년대의 사전, 그리고 2000년 이후의 온라인 사전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주요 사전의 편찬에 대해 편찬 주체와 시대정신에 초점을 두어 재조명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한글의 뛰어난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한글박물관과 공동개최로 이루어지는 행사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립한글박물관의 김철민 관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되고 제시되는 다양한 사전 관련 자료들은 내년에 국립한글박물관이 개최할 전시 행사인 ‘한글과 사전’에도 연계될 예정이므로, 본 학술대회는 이론적인 관점뿐 아니라 자료 발굴 및 정비라는 실천적 측면을 아우르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모든 회원 선생님들께서는 이 같은 뜻깊은 행사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토론에 임해 주셔서 본 학술대회가 학회의 발전, 나아가 우리나라의 사전과 사전학의 발전에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8월 25일

한국사전학회 회장 박 만 규

2017년 국립한글박물관·한국사전학회 공동 주최

〈한글과 사전〉 학술대회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국립한글박물관장 김철민입니다.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이 때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한글을 사전과 함께 주제로 다루며 한국사전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글과 사전〉이라는 주제는 국립한글박물관의 2018년 특별 기획 전시 주제이기도 한데 이러한 점에서 오늘 학술대회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사전은 그 분야 지식을 집대성해 놓은 매체여서 국어사전은 우리말 지식을 집대성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서양 사람들, 특히 선교사들이 제일 처음 느끼게 된 것도 우리나라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사전의 필요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과 광범위한 의사소통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배우기가 쉽고 확장성이 풍부한 한글을 활용하여 사전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외국어도 발음에 따라 자유롭게 적을 수 있었던 한글은 한자에 비해 당시 선교사들에게 많은 매력을 가진 문자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과 사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한글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글로 만들어진 사전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한글문화사적 관점에서 가늠할 수 있는 성과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글의 문자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2014년 10월 9일 한글날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 목적에도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는 1880년에 만들어진 《한불사전》과 1890년에 만들어진 《한영사전》 등 초기 선교사들이 이중언어로 만들었던 사전뿐만 아니라 1911년 주시경 선생님과 그의 제자들이 애국계몽의 수단으로 만들기 시작한 《말모이》 원고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말모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국어사전으로 당시의 고유어, 외래어, 전문용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에 한글로 만들어진 이러한 사전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오늘날 온라인 지식 사전이 등장하기까지의 변천 과정을 두루 살펴볼 것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한글로 된 사전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돌아오는 한글날 개관 3주년을 맞는 국립한글박물관에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사전학회 박만규 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한글로 된 사전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발전 가능성을 두루 조망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국립한글박물관장 김 철 민

한글과 사전

목 차

contents

주제 발표 1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와 사전 - 한글로 된 사전의 편찬 배경

- 1. 개화기의 이중어사전 발표자: 이은령 / 토론자: 이지영 013
- 2. 강점기의 사전: 일본어 사전과의 교섭 발표자: 송영빈 / 토론자: 안예리 035

주제 발표 2부> 사전의 사회문화적 기능 - 사전과 언어 정책

- 3. 우리말 사전과 언어민족주의 발표자: 최경봉 / 토론자: 조남호 047
- 4. 사전의 사회적 기능 발표자: 한용운 / 토론자: 조태린 067

주제 발표 3부> 사전의 현재와 미래 - 사전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

- 5. 말뭉치 언어학과 사전 편찬 발표자: 남기심·김한샘 / 토론자: 도원영 089
- 6. 지식 포털과 온라인 사전 발표자: 장경식 / 토론자: 이기황 107

2017 여름 한국사전학회 제31차 전국 학술대회

한글과 사전

주제 발표 1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와 사전
- 한글로 된 사전의 편찬 배경

2017 여름 한국사전학회 제31차 전국 학술대회

한글과사전

개화기의 이중 언어 사전

발표자: 이 은 령 (부산대)

토론자: 이 지 영 (서강대)

개화기의 이중어사전

-『불한사전』과 한불자전에 나타난 화용정보와 언어사용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이은령

1. 개화기의 이중어사전 개괄

조선 사회에서 ‘개화’(開化)라는 용어는 1905년부터 본격화된 애국계몽 운동기에 특히 ‘자강’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으나, 일반적으로 ‘개화’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의 서구적 근대화를 말하는 것이다.¹⁾ 이 글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사전은 일반적 의미의 ‘개화기’ 이중어사전이다. 여기에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약 40여 년에 걸쳐 집필된 사전으로서 육필본과 인쇄본으로 존재하는 사전이되 외국어-한국어, 그리고 한국어와 외국어의 이중어사전이 포함된다.

비교적 짧은 기간이지만 이 시기의 사전은 시기별 특징으로 인해 다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1870년대의 어휘를 수집하여 조선의 본격적 근대화와 근대문명의 어휘가 수입되기 이전과 갑오경장 이후 근대문물과 번역어의 유입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던 시기로 나눌 수 있겠다. 따라서 19세기 중반부터 어휘를 수집하거나 반영할 수 있었던 초기의 몇몇 이중어사전들([표 1]의 (1)~(6))은 20세기부터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 번역, 수입된 어휘나 서구적 근대화를 통한 새로운 어휘 유입과 기존 어휘의 변화를 보여주기보다는 근대 이전 한국어의 모습과 더 닮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화기’에 출현했으나 서구적 근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벗어나 있으면서도 당시 조선 사회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명과 사회에서 온 이들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이중어사전들은 한국어 사전편찬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상을 가진 것임이 틀림없다.

[표 1] 개화기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이중어사전

사전명		저자	연도	표제어 수	출발어-목표어
(1)	불한사전 Dictionnaire Français-Coréen	S. Féron	1869	10,328 (10,343*)	프랑스어→한국어
(2)	노한사전 ОПѣтъ Русско-корейскаго Словаря 더선척이	M. Poutzillo	1874	3,369 ²⁾	한국어→프랑스어
(3)	한불조던 韓佛字典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F.-C. Ridet	1880	약 27,000 (27,194*)	한국어→프랑스어
(4)	한영조던 韓英字典 A Concise-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in two parts Korean-English & English-Korean	H.G. Underwood	1890	한영 4,839	한국어↔영어
				영한 6,712	

1) 『역사용어사전』,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2015. p.45.

(5)	영한사전 English-Corean dictionary: being a vocabulary of K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	J. Scott	1891	-	영어→한국어
(6)	나한소사전 Parvum Vocabularium Latino Coreanum	M.N.A. Daveluy	1891	-	라틴어→한국어
(7)	국한회어 國韓會語	이준영, 정현, 이기영, 이명선, 강진희	1895	건 - 곤 17,760	한국어→한자
(8)	한영조언 韓英字典 A Korean-English Dictionary	J.S. Gale	1897	33,482*	한국어→영어
(9)	Corean words and phrase : A handbook and pocket dictionary for visitors to Corea and new arrivals in the country	J.W. Hodges	1897	-	영어→한국어
(10)	법한조언 Petit Dictionnaire Français- Coréen	C. Alévêque	1901	6,400 (6,323*)	프랑스어→한국어
(11)	일선회화사전 日鮮會話辭典	日語雜誌社編輯	1906	-	
(12)	일한한일언어집 日韓韓日言語集	趙義淵 井田勤衛	1910	-	일어↔한국어
(13)	한영조언 韓英字典 A Korean-English Dictionary	J.S. Gale	1911	약 50,000 (48,623*)	한국어→영어

(* 부산대학교 인문정보학센터 지능형 개화기 한국어사전 데이터베이스)

[표1]은 1869년에 완성되었다고 알려진³⁾ 미간행 『불한사전』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 즈음까지 국내외에서 출판된 한국어의 이중어사전이다. 매드허스트(Medhurst)의 『朝鮮偉國字彙』("Translation of a comparative vocabulary of the Chinese,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1835)와 지볼트의 어휘집과 같은 19세기 전반의 유해류 기반 어휘집을 포함하거나 시기를 확대한다면 더 많은 자료가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겠지만, 개화기라는 문화사적 시대 구분을 따르되 비교적 사전적 체계가 갖추어진 것이라는 기준에 따른 이중어사전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언어별로 보자면 우선 영어와 한국어 간의 이중어사전 5책, 프랑스어-한국어 3책, 러시아어-한국어 1책, 라틴어-한국어 사전 1책이 있으며 한자 우리말 사전 1책과 일본어와 한국어의 이중어사전이 2책이다. 한자를 제외하고 약 40여 년 사이에 총 5개어와 한국어 간의 이중어사전 13책이 편찬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인쇄된 사전만으로 한정하여 보자면 『노한사전』(2)이 최초의 이중어사전이다. 러시아어 표제어에 대해 한국어 대역어를 제시한 최초의 『노한사전』은 1874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출판된 최초의 서양어-한국어 이중어사전이다. 『노한사전』은 체계적인 사전이라기보다는 어휘집의 형태지만⁴⁾ 19세기 동북방언을 수록하였고,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만 이 시기의 표기형태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언어학 사료다.

다음으로 프랑스어-한국어 사전이 3책으로 1869년(필사본 완료)부터 1901년까지 이어졌다.

2) 홍기순, 어건주(2012:15)를 따르면, 노한사전의 러시아어 표제어수는 3,369개이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대역어는 약 7,300개다.

3) 강이연(2004) 참조

4) 어휘집의 형태 19세기 말까지도 계속 출판되었다. 스콧의 영한조언도 어휘집 형태이다.

『불한사전』(1)과 『한불즈뎐』(3)은 파리외방전교회의 페롱과 리델, 그리고 『법한즈뎐』(10)은 1897년부터 법어학교 교사로도 활동했던 알레베크가 쓴 것이다. 19세기 말엽의 영한/한영사전의 모델이 되었던 파리외방전교회의 이중어사전 편찬은 주지하다시피 선교를 바탕으로 한 성경 및 교리서 번역과 프랑스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것이었다. 반면 인쇄 출판된 최초의 불한사전인 『법한즈뎐』은 비록 수록된 표제어는 6천4백 개이지만⁵⁾ 간략하면서도 프랑수와 한국인 모두를 위한 이중어사전을 표방했다.

개항과 더불어 입국이 비교적 쉬워진 시기부터 개신교 선교사들이 영-한/한영사전을 집필하고 출판하기 시작했다. 1890년에 출판된 언더우드의 『한영즈뎐』(4)을 시작으로 1891년 스코트의 『영한사전』(5), 1897년 호지의 포켓판 사전(9)이 출판되었다. 이 시기에 편찬된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어사전 편찬에는 게일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는 언더우드의 사전(4)의 한영부분의 집필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한영사전(8)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1897년(표제어 33,482*), 1911년(48,623*), 1931년(87,562*)판까지 한국어 표제어를 확장, 수록하였기에 근대 한국어의 어휘 변천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상어로서의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사전이다.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의 이중어사전에서는 1906년 일본잡지사편집의 『일선회화사전』(11)이 최초의 일한 이중어사전으로 알려져 있고, 1910년에 출판된 조의연과 이시다(井田勤衛)의 『일한일언어집』(12), 그리고 [표1]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조선총독부의 『朝鮮語辭典』(1920)외 다수의 일한/한일 이중어사전이 뒤를 이어 출간되었다.

마지막으로 라틴어와 한국어의 이중어사전(6)은 1891년 홍콩에서 출판되었다. 이 사전은 19세기 중반 조선에 파견되었던 파리외방전교회의 다블뤼 주교의 편찬으로 이미 1866년에 육필본이 완성되었다고 전해지지만⁶⁾ 출판은 홍콩에서 뒤늦게 이루어졌다. 학습용 단어장의 형태를 띄고 있어서 한국어에 대한 의미기술이 빈약하다.

개략적으로 살펴본 개화기의 이중어사전은 이미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20세기 초 국어학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한국어 연구와 문법의 체계화에서 선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김민수(1955, 1980), 이승녕(1965), 고영근(1976, 1983, 2010), 송민(1976, 1987), 이응호(1975, 1983), 이병근(1986, 1992) 등의 국어학자들이 선교사의 한국어 연구와 한국어 사전이라는 틀에서 다루었다.⁷⁾ 이들 이중어사전은 현재까지도 19세기와 20세기 초 밀어닥친 서구 문명의 영향 아래에 들어선 한국어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어휘자료로서 소환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 이중어사전에 대한 연구가 완결된 것은 아니다. 『한불』에 국한하여 언급했지만 채완(2015:8)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간의 이중어사전 연구에는 사전을 직접 다룬 연구가 양적으로 많지 않고, 서지나 사전학적 연구, 표기 방법, 시대적 배경 혹은 편찬자 중심의 외적인 연구에만 집중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시대적 한계, 편찬자들의 역량의 한계가 빚어낸 사전의 불완전성과 더불어, 외국어로 된 뜻풀이가 갖는 이중어사전의 태생적 한계를 모두 갖고 있음에도 상이의 이중어사전들에 담긴 한국어 어휘지식은 여전히, 또한 본격적으로 한국어 연구를 위해 발굴되고 참조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개화기 이중어사전이 현재의 필요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로 거듭날 수 있다면 이 시기의 한국어 연구를 더욱 심화할 수 있는 유

5) 표제어 수는 채완(2012) 참조.

6) 인재원, 김현권 (20 :14)

7) 『한불즈뎐』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에 대해서 즐고(2016a) 참조

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서양인의 이중어사전이라는 틀에 머물러 자료를 개괄하기보다는 『불한사전』(1)(이후 『불한』) 과 『한불조언』(3)(이후 『한불』)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어지지 면모를 발굴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일상어로서의 한국어의 언어사용역의 분류와 규범화의 문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프랑스어-한국어 이중어사전의 편찬 배경과 사전의 특징

19세기 조선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의 한국어 번역과 대면소통을 포함한 종교 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인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었다. “우리 민족어 연구의 실질적 개척자는 프랑스 선교사들”(고영근, 2010:374)이라는 선언처럼, 이들의 사전 편찬과 문법서 저술은 그야말로 미지의 언어를 개척하는 일련의 작업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유럽의 동양학자들이 클라프로트와 지볼트, 그리고 메드허스트의 어휘집을 바탕으로 한국어를 소개하며 적잖은 오류를 범하고 있을 때, 1874년 천주교회사 서문에서 달레가 한국어에 대한 비교적 소개할 수 있었던 것도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이라는 언어현장에서 한국어라는 언어를 배워 언어장벽을 극복하면서 수집한 한국어 자료와 연구 덕분이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온 선교사들이 한국어로 소통하는 데에는 프랑스인 선교사들이 편찬한 『한불』과 GC의 도움이 컸고, 『한불』은 특히 영한사전과 한영사전을 펴냈던 언더우드와 계일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장에서는 개화기의 한국어 이중어사전 중에서 선구적인 한국어 연구와 어휘 집성을 이루어낸 『한불』과 『불한』을 중심으로 편집 과정과 사전적 특징을 소개하기로 한다.

2.1 선교사 서한으로 본 사전의 집필 과정과 한국어에 대한 인식

성경 및 교리서 번역과 성직자와 신자 양성을 위한 한국인과의 대면 소통에 한국어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앙트완느 다블뤼를 이어 리델과 페롱의 주도 아래 집필되기 시작했고 병인박해(1866, 고종 3년) 이후 본격적인 편찬이 이루어졌다. 우선, 『불한』은 머리말과 서론이 없어서 집필목적이나 활용했던 자료 등과 같은 편찬 배경을 알기 어렵다. 머리말이 실려 있기는 하나, 『한불』 또한 선교사의 한국어 학습을 보조한다는 것 외의 집필 배경이나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언급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전 집필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선교사들의 개인적인 서한이나 *Grammaire Coréenne* (이후, GC)를 통해 편찬과정과 활용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페롱의 서신에서 다블뤼와 푸르티에 그리고 프티니콜라와 같은 신부들이 수집한 한국어 어휘자료인 ‘韓-中-羅’ 사전과 ‘漢-韓-佛’ 사전이 『불한』과 『한불』의 기반 자료로 활용되었다는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1866년과 1869년 8월, 각각 파리신학교와 홍콩의 동료에게 페롱이 보낸 편지에서 당시 아시아에 파견된 프랑스 신부들이 쓰던 ‘중국어 사전’을 페롱이 유용하게 썼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국에서 출판된 성경 및 교리서 한문본과 라틴어 문법서, 그리고 서양 고전 문법서를 비롯한 다양한 서적을 활용한 것이 선교사들의 서신에 기록되어 있다.⁸⁾

리델은 1860년에 조선에 입국하여 남종삼(南鍾三)에게서 한자와 한국어를 배웠다고 언급하

8) GC의 서론에 언급된 『동의보감』, 『동몽선습』, 『소학언해』 및 운서 등이 있다.

고 있다. 그가 한자를 학습한 정확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조선으로의 파견은 매우 급작스럽게 결정된 것이기에 본국에서 한자를 배웠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리델이 GC의 서론(III)에서 한자 학습서로 제시했던 『千字經』 또한 그가 한자 학습서로 직접 사용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千字經』의 프랑스어 최초 번역본은⁹⁾ 리델이 조선에 입국한 지 4년 후에 출판된 것이기 때문이다.

『불한』과 『한불』은 모두 저자들이 조선에 체류했을 때에 어휘 수집을 하고 편찬이 시작되었으나 사전 집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병인박해(1866) 이후 그들이 머물렀던 상해와 차쿠 등지에서였다. 1867년 1월, 리델은 상해에 머물면서 가족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국어 문법을 정리하기 시작하여 거의 완성을 보았으며, 『한불』의 편찬을 위하여 많은 자료를 모았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1867년 3월에는 ‘한국어 문법책을 완성했고, 『한불』에는 7천여 단어를 수록’했다고 언급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페롱의 『불한』 작업이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언급도 있다.¹⁰⁾ 『불한』과 GC의 육필본은 병인박해 이후 1~2년 사이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페롱과 리델의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이들이 모두 사전의 출판에 관하여 샤를르 달레의 의견을 구하거나 그와 인쇄 출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의논했다는 것이다. 달레는 해제가 포함된 『산스크리트어 사전(1853)』과 『타밀어 문법서』(연도 미상)를 썼고 다양한 동양의 문자 연구를 해왔기에, 그 어떤 동양학자들에 뒤지지 않는 언어학적 식견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페롱과 리델이 사전과 문법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난제에 대해 상의를 할 수 있었던 교회 내 전문가였던 셈이다.¹¹⁾

1870년, 페롱은 달레에게 리델의 문법서에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점과 한국어에서는 문어체와 구어체가 매우 달라 이 점을 사전과 문법서에서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구어에 대해서 상세한 기술을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¹²⁾ 또한, 『한불』이 이후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읽힐 것이 분명한데도 아무렇게나 주워들은 욕설이나 속된 표현들까지도 사전에 실어 놓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리델이 당시 『한불』에 수록할 일상적인 구어를 수집하면서 어법상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음을 드러낸다. 구어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방언을 구분하고자 했던 이러한 사전 설계는 개화기의 그 어떤 이중어사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 문제는 3장에서 다시 살피기로 한다.

1874년에 차쿠에서 리델이 달레에 보낸 서한에는 표제어의 구성에 관련된 논의가 나타난다. 우선, 리델이 한국어 표제어의 로마자 전사를 두고 달레와 이견을 보였다는 점이다. 리델은 음운법칙이 적용된 발음전사에 반대를 표명한다. 추측건대 발음기호로서 로마자 전사를 표제어로 제안했었던 달레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한불』의 “한불사전 사용법”(Notes explicatives pour l'Emploi du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에 드러난다. 예컨대 (한글을 표제어로 쓰지 않고) 로마자 전사를 한국어 어휘의 발음전사로 사용하면

9) 『千字經』으로 언급된 이 책은 『千字文』으로서 콜레주드 프랑스 중국학 교수였던 스타니슬라스 줄리앙이 1864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판한 것을 말한다: Stanislas Julien, 1864, *Thsien-Tseu-Wen 千字文 Le Livre des Mille Mots*, Benjamin Duprat, Paris.

10) 『리델문서I』. 1867년 3월 8일 상해에서 형 루이에게 보내는 리델의 서신(문서번호 20); 1877년 10월 19일 상해에서 형 루이에게 보내는 리델의 서신(문서번호 21).

11) 윤애선(2014)는 GC의 서론부분에 기록된 한국어의 계통에 관련된 글이 달레의 저작이며, 집필 과정에 달레의 기여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12) f 1722. 1970년 1월 28일 파리에서 페롱이 달레에게 보낸 편지.

서 이를 표제어로 쓰게 되면 동음이의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심요’와 ‘시묘’가 그러한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다. ‘심요’는 ‘SIM-YO’로 표시해야 하고, ‘시묘’는 ‘SI-MYO’로 전사하여 음절의 구분을 표시해야 한국어 어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발음기호로 표시하면 두 어휘 모두 [simyo]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한불』에는 프랑스인 선교사들이 발음 규칙을 터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간주된 리델의 전사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당시 사전 집필자로서의 리델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애초에 이 두 인물 간에 표제어 표기방식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당시 혼란스러웠던 한글 표기법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동일한 어휘가 『불한』과 『한불』에서 다르게 표기되는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글 표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연중이 쓸 수 있는 적당한 지침도 없으며 한국인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철자 표기 방법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고한다.

1874년의 리델이 달레게 보낸 편지에는 상해에서 견본으로 인쇄한 『한불』의 몇 쪽이 동봉되었다. 이 편지에 따르면 1873년에 완성된 『한불』의 초고에는 약 2만2천 개 정도의 표제어가 기술된 상황이었는 데, 여러 측면에서 1880년의 인쇄본과 다른 점이 관찰된다. 육필 최종 원고라고 알려진 1873년의 육필본 원고는 표제어가 완전히 확정된 원고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874년의 인쇄 견본에는 나타나지만 1880년의 인쇄본에는 삭제되어 나타나지 않는 어휘도 있고 한자와 뜻풀이의 수정도 다수 나타난다. 동사의 경우 1880년에는 로마자로 전사된 형태로만 나타나는 활용형도 1874년 인쇄 견본에는 한글로 적혀 있다. 따라서 1873년 육필본 이후에도 표제어 추가와 다의어 구분, 어휘 형태의 수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리델이 조선 재입국을 위해 차쿠를 떠난 1876년 4월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코스트에 의한 수정 작업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불』(1873년 초고 완성)의 출판이 늦어지게 된 것은 다양한 외부적인 영향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전의 표제어를 지속해서 추가했던 과정이 있었으며 여기에 인쇄의 기술적 한계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한글 활자의 제작과 식자 및 조판에 상당한 시간(일주일에 16쪽 정도)이 필요했고 인쇄본으로 출판에 필요한 부차적인 작업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활자 주조작업이나 활자판 제작 등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장동하(2006:170)에 따르면, 『한불』의 인쇄를 맡았던 코스트는 동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본인들이 프랑스어 모형(母型) 조각을 매우 난감해했기에 한글 주형과 활자 주조는 도쿄에서, 프랑스어 활자판과 지도 인쇄는 프랑스에 주문할 것임을 밝혔고,¹³⁾ 이러한 서신을 통해 『한불』의 인쇄에만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걸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한불주년』의 특징

『한불』은 한국어 어휘를 표제어로 두고 프랑스어로 이를 풀이하거나 대역어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 이중어사전이다. 표제어는 총 27,194개로 ‘문법부’ 및 ‘지리부’의 표제어까지 포함하면 총 29,026개에 이른다. 표제어는 표제어를 로마자로 전사한 형태를 기준으로 알파벳순으로 배열되었는데, 첫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표제어를 우선으로 하고 자음과 모음이 결합한 순서를 따랐다.

『한불』은 무엇보다 프랑스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사전의 기능을 우선으로 삼고, 완벽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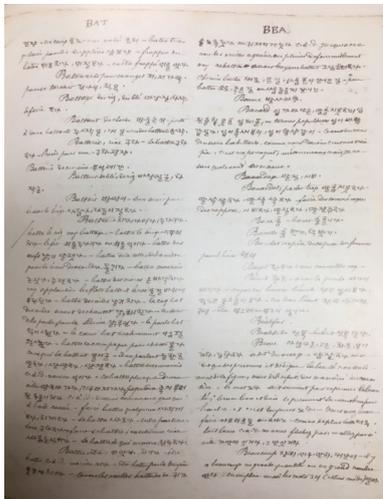
13) 1878년 4월 암뷔스터에게 보내는 코스트의 서신 참조

준은 아니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다양한 언어학적 정보를 제공한 사전으로서 한국어 사전이 없었던 시기에 한국어에 대한 안내서의 역할 또한 감당했던 사전이다. 또한, 『한불』에는 한자만 알아도 한국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제어에 대한 한자 원어 정보나 한자 등가어를 제시하였고, 프랑스어로 한자 뜻풀이도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복잡한 용어의 활용형과 격조사에 대한 정보 등 하나의 어휘에 대해 필요한 종합적 정보를 수록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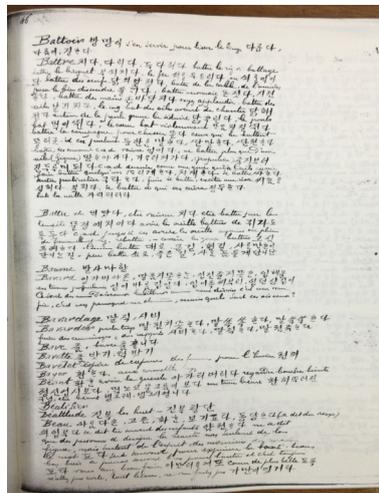
표제어의 의미를 풀이하는 의미정보구역은 대역어의 어휘와 대역표현뿐만 아니라 정의문을 통해 실질적인 어휘의미를 기술했다. 그래서 『한불』은 일찍부터 한국어 사전의 편찬 모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일관성 있는 다의어 구분과 한국어 용례정보는 당시의 한국어 어휘를 학습하고 문장을 생성하고자 하는 학습자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의미정보구역 내에는 문법정보, 파생어, 그리고 언어사용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분야정보도 함께 등재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어휘사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2.3 『불한사전』의 특징

인쇄 출판되지 못했던 폐룡의 『불한』은 육필본이 전해지지 않고 필사본만 존재한다. 강이연(2004:191)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리샤르의 필사본(절두산성지 소장)과 드브레의 필사본(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두 필사본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리샤르의 필사본(그림 1)을 『불한』 1차 DB로 구축한 자료를 활용하며, 필요에 따라 현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드브레의 필사본(그림 2) 또한 참고하기로 한다.¹⁴⁾



[그림 1] 리샤르 필사본



[그림 2] 드브레 필사본

리샤르 필사본의 『불한』은 총 325쪽으로 어휘부만 존재한다. 머리말과 일러두기가 없으므로 사전의 편찬 목적이나 표제어의 구성, 그리고 약어에 대한 안내도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에

14) 리샤르 필사본의 『불한』을 기반으로 한 1차 DB의 표제어는 총 10,343개이다. 뜻풀이나 대역어 없이 프랑스어 표제어만 제시된 경우가 155건이다.

서 리샤르 필사본의 『불한』을 기반으로 입력하여 구축한 1차 DB의 표제어는 총 10,343개다. 이 중에서 뜻풀이나 대역어 없이 표제어만 제시된 경우가 155건이다. 여기서, 졸고(2016b)를 바탕으로 『불한』의 특징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1) 표제어 배열

① 표제어는 원칙적으로 프랑스어이며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지만, 알파벳 순의 배열에 종종 오류가 나타난다.

② 표제어는 일반적으로 단어를 단위로 한다. 그러나 드물게 연어나 속어가 아닌 동사구가 표제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frémir horrible’(악착훈, 흥흥, 증그러운)와 같이 동사와 형용사가 결합한 형태가 표제어로 올라 있다.

(2) 부표제어 : 『불한』은 부표제어를 쓰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bruit(소리)’와 ‘numéral(수 의 존명사)’과 같은 표제어 아래에는 부표제어가 제시되어 있다. 『불한』에 제시된 순서는 ‘아-어-오-우-으-ㅎ’의 모음을 우선으로 하고, 그 후 ‘ㄱ-ㅋ-ㆁ-ㄴ-ㄷ-ㅍ-ㅌ-ㅊ-ㅅ-ㅆ-ㅈ-ㅊ-ㅊ-ㅊ’이다. 이것은 한국어 어휘를 프랑스어 알파벳으로서의 전사했을 때의 형태를 기준으로 모음을 먼저 배열하고 자음을 뒤에 배열한 것과 같다.

(3) 한국어 표기: 원칙적으로 합용병서이다. 띄어쓰기가 일정하지 않다. 『한불』과 다른 표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4) 품사, 통사 및 화용 정보 제시. 파생관계가 표시.

(5) 의미정보 : 한국어 대역어 제시, 프랑스어로 뜻풀이와 사용 맥락 기술, 관계어로 뜻풀이 대체. 어휘의미관계 사용(동의어, 참조어, 반의어).

(6) 용례 기반 다의어 구분

(7) 다양한 언어사용역 구분

3. 화용정보와 언어사용역

개항기의 이중어사전들은 ‘한국의 구어(일상회화)를 문자적으로 확정[畫面化]하는 단계’(황호덕 외, 2011)로 그 의미가 평가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이중어사전 편찬자가 시대의 언어 사용법을 문자로 기록하고 인쇄 매체를 통해 찍어냄으로써 이를 마치 확고부동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약속 행위로 간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대면 소통과 성경 번역에 필요한 언어적 준거가 필요했을 터이지만, 그것이 조선의 한국어 사용자를 위해서도 확고부동한 어휘지식이 될 것이라는 인식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기록되는 순간 한국어는 타 언어 속에서,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 분류되고 해석되는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학적 분석과 분류는 편찬자의 언어 인식에 기반한 것이되, 사용자의 용법을 참조하는 것이다. 『한불』과 『불한』에 기록된 화용정보의 하나인 언어사용역 또한 한국어 어휘와 구문에 대한 준거로서의 지식이 되며 한국어의 질서를 구축한 과를 낳았다.

3.1 구어와 문어의 구분

『불한』과 『한불』에서는 한국어 구어의 체계를 정립하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고찰하기 이전에 리델이 GC의 서문에 쓴 한국어와 한글의 일반 원칙을 확인하여 이들의 언어학적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리델은 문어(langue écrite)와 구어

(langue parlée)를 구분하고 나아가 문어에서 나타나는 장르의 분류로서 서책체(style des livres)와 서간체(style épistolaire)를 제시했다(GC, IV-IX). 한국어의 문어는 다시, 한자와 한글이라는 두 종류의 쓰기 체계로 구분하면서 문자로서의 한자와 한글을 각각 다른 사회적 역할을 하는 쓰기 언어(écriture)로서 인식한다.

“적어도 쓰기에 있어서만은 한자가 학문적 언어이자, 공식어이다. 왕과 왕국의 연보, 모든 국정 활동과 중국과의 외교 문서, 포고령, 칙령, 판결문, 서적, 비문이 바로 이 언어를 통해 기록된다.”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포고령에는 한자와 한국어(langue coréenne), 두 언어를 사용한다. 공직자를 뽑는 모든 시험은 중국문학과 한자 및 한서에 대한 것으로 치러진다. 나라에서 세운 8개의 전문 학교에서는 중국의 문학과 학문만을 공부하며, 국어(langue nationale)는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그러나 한글이 여자들의 전용물이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식자층이나 평민 계급들도 여자들처럼 모두 이 나라의 통속적인 글자인 한글로 글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여자들이 한글만을 쓰는 것과는 달리 글공부를 한 남자들은 특히 한자를 쓰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더 존중할만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위의 언급은 모두 GC의 서론에 제시되었는데, 여기서 리델은 한국어에 문자로서 한자와 한글이 쓰인다는 것을 넘어서 한자와 한글이 담당하는 기능이 분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공식어와 지배의 언어로서의 한자(眞書)와 일반 백성들의 언어, 즉 일상어로서의 한글(諺文)이 조선 사회에서 각각 다른 존재 양상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상어로서의 한글은 사회의 가장 하층 계급에 속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한자를 쓰는 식자층과 평민 계급에서도 통속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리델은 모든 계층이 알고 쓸 수 있는 글, 즉 언문이 바로 국민의 언어, 즉 국어임을 언급한다. 그럼에도 그는 필요에 따라 중국어를 구사해야 하는 역관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어로 말하기 때문에 구어로서의 한국어를 아는 것과 동시에 읽고 쓰기 위한 한자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¹⁵⁾ 한자 어휘뿐만 아니라 고유어 또한 그 의미를 한자어로 새겨 대역 한자를 함께 제시하거나, 속담이나 격언, 상용어구 또한 한자 대역어로 옮긴 표제어도 실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¹⁶⁾

3.2 언어사용역

리델은 문어에서 일종의 디글로시아 현상을 인식하는 한편, 한국어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 사회적 코드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자신들의 언어규범의 기준에 맞춰 분류를 시도했다. 이러한 분류는 GC에서보다는 『불한』과 『한불』에서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프랑스어 속에서, 그리고 프랑스어를 통해 한국어의 어휘지식이 문자화되고 분류된 것은 『불한』과 『한불』 속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는데, 특히 언어에서 반영되는 사회적 현상과 규범이 대면 소통과 성경 번역에 반드시 적용될 필요가 있기에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 『불한』과 『한불』에 나타나는 언어사용역의 분류와 정보는 개항기 타

15) 따라서 새로 부임하는 프랑스인 선교사들이 전교 활동을 시작함과 더불어 한자와 한국어를 익히는 것이 첫 임무이고 또한 조선인 신자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한자와 한글을 가르치는 일련의 교육활동을 펼쳤다.

16) 구어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속담이나 격언, 그리고 상용구를 대역 한자어로 바꾸어 표제어로 등재한 경우가 많다. 하강진(2016)참조.

이중어사전에서는 간과되었던 부분이다. 특히 1897년에서 1927년까지 표제어를 확장했던 계열의 『한영조년』에서도 존대법만 세 종류(경칭, 존대법, 하대)로 나누고 부분적으로 다루었을 뿐이다.

이는 해당 언어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어휘나 어구의 화용 맥락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제대로 쓸 수 있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고 어휘와 어법을 통해 화자들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언어학적이자 동시에 초 언어학적 문제인 언어사용역을 사전에서 다루기는 쉽지 않다.¹⁷⁾ 또한, 구어에 대한 언어문화적 규범이 명문화된 예가 없었고,¹⁸⁾ 화용정보를 메타언어로 정의하고 분류한 예도 없었기에 『불한』과 『한불』은 문어 및 구어의 다양한 언어사용역을 기술하는 데에 필요한 형식적 용어를 자신들의 언어에서 가져와 최대한 활용하되, 의미의 차이를 기술하기 위해 위계적으로 사용하였다. 다음의 [표 2]는 『불한』과 『한불』에서 약어와 뜻풀이를 통해 규정한 언어사용역을 구별하는 데 쓰인 다양한 용어이다.

[표 2] 언어사용역 기술에 쓰인 용어와 표현

	약어	의미기술에서 쓰인 표현
『불한』	존대	거친 용어, 부당한 용어, 천박한 말, 불량스러운 말, 비천한 말. 지역 방언, 어법에 벗어난 말.
	비속어 통속어	
『한불』	존대 경칭, 정중한 말, 모범적인 말	속되게 하는 표현, 저속한, 거친 표현, 모욕적인 말, 저급하게 조롱하는 말.
	지역어	
	일상어, 비속어, 통속어,	
	욕설, 거친말,	

위의 분류 중, 두 사전에서 많이 기술된 항목이 사회적 방언으로서 언어사용역이다. 사회적 방언은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화용적 지식 화자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두 사전에서는 지역 방언보다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부분인 것 같다. 또한, 언어사용역이 문어와 구어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불한』과 『한불』에서는 주로 구어에서 쓰이는 어휘를 대상으로 언어사용역을 기술하였다는 점은 이들이 분명 일상어 중심의 어휘사전을 설계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한불』에서는 사전의 머리말에 약어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언어사용역에 대한 정보도 약어로 미리 정의하여 활용했다. 이와는 달리 『불한』은 인쇄가 되지 못했던 한계 때문인지, 약어로 미리 정의하기 보다는 사전 전체에 다양한 표현들이 산재한 채 남아 있다. 다음에서는 두 사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사용역을 중심으로 두 사전이 한국어 언어사용역을 어떻게 분류했으며, 이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존대법

『불한』과 『한불』에서는 존대법으로 분류된 어휘들은 경어, 경칭, 존대법 등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쓰였고 두 사전에서 언어사용역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존대법에 관련된 어휘와 어

17) 현대의 사전편찬학에서도 이러한 언어사용역에 대한 기술은 차별적인 타이포그래피를 쓰거나 형식적으로 구분하기 마련이다.(Svensén, 2009:203)

18) 예컨대 척독(尺牘)류와 같이 특정 장르의 글쓰기에 관련된 지침서는 존재했다.

구들이다. GC(99)에서 제시하는 존대법을 살펴보면 상대 높임과 압존법을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을 만큼 존대법은 한국어에서 중요한 언어사회적 코드로 인식하고 있는데 ‘예절 규칙 때문에 문법 규칙이 심하게 까다롭게 되었다’고 고백할 정도이다.

우선 『불한』에서는 존대법 내에서 화법(style)과 용어(terme), 그리고 어휘의 변화 형태(forme)라는 용어를 써서 존대법 내에서 각각 다른 언어학적 단위를 설명하고자 했으나 대부분 이 세 부류가 중복되어 사용되었다. 아래의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불한』에서는 존대법에 쓰이는 어휘(명사, 동사 및 접미사, 조사)를 제시하고 존대법의 형태에 대해서는 동사의 선어말어미 변화형을 보여주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화법 내에서 존대의 정도를 세 등급(매우 존대, 존대, 존대하지 않음)으로 나누었다.

[표 3] 『불한』에서 존대법 구분과 표현의 예

1차 구분	2차 구분	예
화법 style	매우 존대	함즈가무어시오닛가, 핁즈ㅎ다
	존대	진지, 잡습다, 잡삽다,
	존대하지 않음	셔방
어휘	존칭	계시다, 계서기, 계슴이, 아니계시다, 쾌차ㅎ다, 덕접ㅎ다, 령접ㅎ다, 잡습다, 자시다, 핁즈ㅎ다, 전청ㅎ다, 전구ㅎ다
		즈당, 즈친, 함, 함즈, 말습, 누님, 락시, 소스, 락, 님, 괴셔, 계식시기, 계심이,
형태	존대	ㅎ시기오, ㅎ시오, ㅎ습시오, ㅎ오, ㅎ시게오

『한불』에서는 존대법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표 4] 『한불』에서 존대법 구분과 표현의 예

	리델의 분류	예
문법형태소	어간 어미	시
	종결 어미	시다, ㅎ옵다
	명사 곡용(*의존명사)	씨 (*성과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명사에 붙는 경칭 명사곡용으로 봄)
	존칭형 명사곡용(*조사)	쎄셔,
	수사(*수의존명사)	분
정도에 따라	극 존칭	마누라
	약 존칭	걸객, 규양, 규슈, 도령, 이녀(너),
	존칭 (일반 높임말 포함)	감세, 감환, 근력, 기테, 로병환, 말습, 산소, 상스, 상덕, 엄부, 원님, 장님, 존장, 통덕낭, 현합(덕이 높은 아내), 헤가(당신), 헤서, 환차, 골으샤티(골으타의 존칭), 즈네, 즈당, 즈데, 즈친, 완장,
	존칭 아님	맛년, 맛놈,
	예의에 어긋남	손 (*녀석의 의미로)
동사존대법		강림ㅎ시다, 개견ㅎ다, 계시다, 굿기다, 괴침ㅎ다, 잡습시다, 조안ㅎ다, 도으시드, 뵈옵다, 안줍다, 상달하다, 줌으시다, 취침ㅎ다

호칭 존대		명렬부인, 대감, 대사, 당신, 령감, 로형, 석스, 손조, 슈지, 탐전, 테후, 덕상, 덕, 싱원,
서간체		가친, 귀중, 윤옥, 여불비복유(餘不備伏惟) ¹⁹⁾

『불한』과 『한불』의 존대법 분류가 완전한 분류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불』에서는 문법 형태소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과 존대의 정도에 따른 분류가 더 세분되었고, 직함을 따로 분류했던 점이 『불한』보다는 다분히 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두 사전 모두 존대의 정도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는데 『불한』은 매우 존대와 존대로 분류했으며 『한불』은 극존칭, 약 존칭, 존칭으로 분류하였다.

[2] 일상어의 속어 : 통속어, 비속어

『한불』과 『불한』은 구어에서 쓰이는 통속어와 비속어로 구분하고 있다. 두 사전이 속어에 대한 개념화가 동일하지는 않는데, 흥미로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표 5] 『불한』과 『한불』의 통속어, 비속어 분류

분류		『불한』	『한불』
통속어 vulgaire	어휘	색다귀, 숫시악시, 개밥브락이, 벌거숭이, 턱거리벗, 턱거리혼인, 콩팥	갈품, 달너, 반절, 마, 서울, 언문, 언히, 쥐종나무, 히브라기, 잣나무, 빙어, 쫄독이, 쫄쫄질하다,
	구문	다리노하청하다 폐충입하다 마음을 쭈러지게알다	다른 이의 머리에서 이를 찾다 (취모먹즈)
비속어 populaire	어휘	욕심구력이, 흘의즈식, 바삭이, 텃석부리, 절독다리, 독다리, 목두기, 밧구녕, 영불바진병, 빅딕이, 쫄형이, 중대거리, 외딕, 외눈통이, 일목장군 보롬보기, 곡닥이다, 쏘닥이다, 복다	달각발이, 대가리, 대강이, 대구리, 령감, 모가지, 못드락이, 바삭이, 불춘이, 속알이, 작달이, 절쫄발이, 종산이, 통어리, 덕거리, 쫄당이, 쫄눈이, 쫄통이, 잣바지다, 출출하다,
	구문	빅성을짜다 입이촉새부리 고칭구력이되다 죽지부러진 두룸이되다 거염 벌네노릇하다,	-

『불한』에서 통속적인(vulgaire) 것에 대한 뜻을 살펴보면 ‘심상헌’, 또는 ‘여사로’라는 의미로 쓰이고 ‘통속적으로(vulgairement)’는 ‘평상시에 여사로 쓰는 말’, 즉 ‘일상적으로 쓰는 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실제로 『한불』과 『불한』에서 ‘통속어’ 혹은 ‘통속적인 표현으로’로 규정된 어휘나 표현법은 모두 일상어에 속한 것들이다. 예컨대, 한자어구 “취모먹즈”의 대중적 풀이로 쓰인 ‘다른이의 머리에서 이를 찾다’와 같은 표현이 통속어에 분류된다. 다만 몇몇 어휘들은 일상어보다는 ‘낮추어 부르는 말’에 해당할 수 있는데, ‘빙어’(백어), ‘쫄독이’와 같은 어휘는 저속하거나 천하게 부르는 말은 아니지만 조소적 비아냥이 섞인 어투라고 할 수 있겠다.

19) 엇드려 바라옵건데 비록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삼가 예장을 드리오니 살펴 주시기바랍니다.

두 사전에서 비속어(populaire)로 분류된 대부분의 명사 어휘는 구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놀림조의 어휘, 사람 혹은 행위, 또는 질병 이름을 낮잡아 천하게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놀림조의 어휘라고 할지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상대방을 심하게 모욕할 의도로 조롱하는 어휘는 비속어로 분류되었다. 특히 『불한』에서 비속어로 분류된 것은 『한불』에서 비속어로 분류된 어휘들보다 모욕과 조롱의 의미가 더 강한 것들로 보인다. 또한, 『불한』에서는 어휘단위가 아닌 구 단위나 문장 단위의 표현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건이나 현상을 희화화 하거나 비판하는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불한』의 ‘거엄 벌네노릇하다’(‘애벌레가 벌레처럼 굴다’의 의미)와 ‘빅성을짜다’와 같은 표현이 그러하다.

[3] 욕설, 모욕

구어에서 표현법이나 어휘로는 가장 저속한 언어로 분류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욕설과 모욕적 언사다. 『불한』과 『한불』은 모두 이러한 어휘와 표현을 다음과 같이 표제어, 혹은 참조어로 실었다.

[표 6] 『불한』과 『한불』의 욕설 분류

	『불한』	『한불』
저속한 어휘(표현) bas, grossier	부림, 주둥이, 잣바지다	년, 놈, 뒤여지다, 씨억
욕설	모가지, 몹쓸것, 식골독이, 석(injurieux), 계집 ^오 희, 어린년, 계집 ^오 희, 눈 엇뜨기(던디보기), 다리고온 ^오 죽식 (더 음바직 ^오 죽식), 흑부리, 환양의 ^오 죽식, 중대가리, 괴슈, 어지자기, ... 잣바져있다, 괴심 ^오 하다	가락잡이, 가직이, 간물, 구불직이, 귀물의것, 년, 놈, 늙다리, 더년(彼女), 더놈, 도삽스럽다, 셔악, 이년, 이놈, 잡것, 추람, 턴주악, 환양년(歡兩女), ... 괴심 ^오 하다, 녹 ^오 하다,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는 비속어의 분류와 중복되기도 하고 ‘속된 조롱의 표현’이나 ‘경멸의 표현’과도 겹친다. 이러한 어휘는 뜻풀이에 화용정보를 동반하기도 한다. 예컨대, 『불한』의 ‘계집^오희’는 ‘어린 여자아이들 외에 쓰였을 때는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며, ‘괴심^오하다’는 ‘매우 모욕적인 표현이며 본인의 자식이나 노비들에게만 쓸 수 있다’는 풀이가 제시되었다. 욕설과 모욕적 언사는 모두 저속한 표현에 속하는 것이며 그 사용역이 겹쳐서 정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언어사용역에 분류된 어휘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호칭의 대체이거나, 지시어에 속하는 저속한 어휘, 혹은 대부분 신체의 일부분을 낮잡아 표현하거나 천하게 여기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어휘들이다. 따라서 자의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위의 [표 5]와 [표 6]에서처럼 『불한』에서는 욕설로 분류된 ‘모가지’가 『한불』에서는 비속어에 속하고 『불한』에서 저속한 표현으로 보는 ‘잣바지다’는 『한불』에서 비속어로 분류되었다.

『한불』과 『불한』에서 나타나는 언어사용역에 대한 기술에는 이 두 사전이 단순히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대응 어휘만을 나열하는 대역어휘집이나 성격번역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어휘와 구문을 대상으로 분석적인 접근이 있었으며, 신어와 번역어의 등재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일상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의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한 또 다른 의미의 근대적 기획이 있

었다. 또한, 두 사전에서 제시하는 화용정보는 언어사용역의 분류와 기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어휘가 쓰이는 초 언어적 맥락을 지적하고 그 가치를 발화한 것으로서 동시대의 타 이중어사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다.

5. 결론

동아시아에서 근대 언어는 리디아 류(2004)의 지적처럼 대량의 이질적 언어들의 간언어적인 현상이 있었다. 이중어사전으로부터 시작한 언어 간 번역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이다. 개항기의 조선에서 편찬, 출판된 이중어사전들은 언어 간 교섭 과정을 증언하는 시대적 산물이다. 구두점과 표기법이 정립되지 않았던 당시의 한국어를 한자를 통해 배우면서 사전과 문법서를 만들고, 그와 동시에 번역이라는 언어 간 소통을 이루어냈다. 이 과정에서 특히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이중어사전인 『불한』과 『한불』은 한국어 연구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지점을 형성한다. 그것은 이들 저자가 단순히 두 언어 간에 대응되는 어휘를 목록화 하고 학습하는 1차적인 학습단계를 넘어서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말의 쓰임에 필요한 규범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사전에서 그러한 규범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구성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언어사용역을 한국어 구어에 적용하여 분류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취를 살펴보았다.

모든 어휘에 일관적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었으나, 『불한』과 『한불』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존대법이었다. 대면소통뿐만 아니라 종교서 번역에 필요한 존대법과 경칭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한불』에서는 문법형태소에 따른 분류와 존대의 정도에 따른 분류, 그리고 특별한 높임 어휘를 따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페롱이 달레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상의 어휘와 표현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에서 비속어와 욕설까지 사전에 기록해두면서 이를 분류하고 어법을 상세하게 기술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한글로 쓸 수 있는 언어, 즉 일상어로서의 구어가 바로 국어라고 주장했던 리델이 일상어 중심의 사전을 설계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새로운 문물의 어휘를 담지 않았지만, 한글로 쓴 한국어를 표제어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근대적인 한국어 사전의 출발점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르 장드르, 2016(1912), 『법한조년』 *Essai de Vocabulaire Français-Coréen* 영인본 내포교회사연구소 자료집 III, 역락.

이은령 외, 2008, 『웹으로 보는 한불조년1880 version 1.0』(부산대 인문학연구소).

-----, 2008, 『웹으로 보는 한영조년 1911 v.1.0』(부산대 인문학연구소).

-----, 2009, 『웹으로 보는 한불조년1880 version 2.0』(부산대 인문학연구소).

-----, <불한사전 1차 DB> (2015, 미공개)

한국교회사연구소, 파리외방전교회 A-MEP, vol.579(A), Corée 1797-1874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다블뤼(A. Daveluy, 安敦伊) 문서 (II)』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1869). *Dictionnaire Français-Coréen* 영인본(페롱 저, 리샤르 필

사).

- Les Missionnaires de Coré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Etrangères de Paris, 1880.
『한불즈던』(韓佛字典,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L. Lévy et S. Salabelle,
Yokohama.
Les Missionnaires de Coré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Etrangères de Paris, 1881,
Grammaire Coréenne, C. Lévy, Yokohama.

<2차 자료>

- 강이연, 2004, 「19세기 후반 조선에 파견된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불한사전」, 『교회사 연구』22, 173~211.
고영근, 1976a, 「서양인의 한국어 연구」
1976b, 「19세기 중엽의 불란서 선교사들의 한국어 연구에 대하여」.
김민수, 2003(1980, 1964), 『국어학사』, 일조각,
고영근, 2010, 『민족어학의 건설과 발전』, 제이앤씨.
류, 리디아, 2016(2004, 차근태 역), 『충돌하는 제국』, 글항아리.
박형익, 2016, 「『법한즈던』(르 장드르, 1912) 해제」, 『법한즈던』 *Essai de Vocabulaire Français-Coréen* 영인본 내포교회사연구소 자료집 III, 역락.
안재원, 김현권, 2005, 「『Parvum Vocabularium Latino-Coreanum(羅鮮小字典)』과 『羅韓辭典』의 학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한국사전학』7, 7-33.
윤애선, 2014, 「파리 외방전교회의 19세기 한국어 문법 문헌 간 영향 관계 분석-
Grammaire coréenne(인쇄본), *Grammaire coréenne*(육필본),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의 비교」, 『교회사연구』45, 199-253.
_____, 2016, 「근대 동아시아 어휘사전의 탄생과 『한불자전』」, 2016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3-99.
이은령, 2016a, 「한불자전과 한국어문학」, 『반교어문연구』 42, 197-229.
2016b, 「파리외방전교회의 『한불자전』(1880)과 불한사전(1869)의 비교 연구- 19세기 한국어 연구와 번역용례 말뭉치 구축을 위한 기반」, 『코기토』 80, 67-106.
이은령 외, 2013, 『한불자전 연구』, 소명출판사.
이은령 외, 2014,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자전』, 소명출판사.
이준환, 2017, 「개항기에 편찬된 이중어 사전 속의 한자음 실태」, 『국어사연구』 24, 139-181.
장동하, 2006, 「개항기 조선교구 인쇄소 연구」, 『카톨릭 신학과 사상』 57, 152-185.
조지윤, 2009, 존대법 번역과 성경 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25, 127-148.
채 완, 2012, 「최초로 출간된 불한사전『법한즈던』연구」, 『어문논집』51, 91-118.
_____, 2015, 「『한불자전』뜻풀이로 본 19세기 국어의 어휘」 『어문연구』43(2), 7-33.
하강진, 2016, 「표제어 대역 한자어의 탄생과 『한불자전』의 가치」, 『코기토』 80, 107-143.
흥기순·어건주(편), 2012, 『노한사전』, 이회.
황호덕·이상현, 2013, 『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 외국인들의사전 편찬 사업으로 본 한국어의 근대 1』 (연구편), 박문사.

- Chabanol, E., 2006, 『Souvenir de Séoul 서울의 추억』, Ecole française d'Extrê

me-Orient 프랑스 국립 극동연구원, Musée de la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박물관.
Paris-Seoul.

Dallet, C., 1874,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 précédée d'une introduction sur l'histoire, les institutions, la langue, les moeurs et coutumes coréennes*, tome I.

小倉進平, 1964(1920), 『朝鮮語学史』, 刀江書院, 東京.

Svensén, B. 2009, *A Handbook of Lexic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개화기의 이중어사전 -『불한사전』과 『한불자전』에 나타난 화용정보와 언어사용역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지영(서강대)

이은령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그간 프랑스어-한국어 사전에 대한 학계의 연구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연구가 잘 녹아 있는 발표이자 앞으로 이들 사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세밀한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성이 앞으로 이 시기의 사전 연구, 더 나아가서는 다른 시기의 사전학 연구에까지 시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의 발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바라는 점 혹은 궁금한 점을 여쭙는 것으로서 토론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선생님의 발표 내용은 『불한사전』과 『한불자전』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 사전의 언어학적 가치가 제대로 조망되기 위한 전제들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1>에 정리되어 있는 “개항기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이중어사전”의 목록을 보면, 『국한회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해류 기반 어휘집”을 제외하고 “개화기라는 문화사적 시대 구분을 따르되 비교적 사전 체계가 갖추어진 것”(2-3쪽)이라는 기준에 의해 선별된 목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한회어』가 이러한 기준에 정확히 부합되는 것인가 하는 점은 좀 더 고려해야 할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셨듯이 『국한회어』에는 한자 대역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역어유해』류의 중국어 기반 대역어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국한회어』의 한자는 중국어가 아닌 (한국식 혹은 한국어에서 쓰이는) “한자(어)”라고 볼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비교적 사전체계가 갖추어진”이라는 기준을 소위 사전의 구조적 측면이라고 이해한다면 『국한회어』는 표제항의 배열이라는 측면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면이 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¹⁾

2. 언어사용역에 따라 『불한사전』과 『한불자전』의 특징을 비교해 주셨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생님께서 번역하여 제시해 주신 부분을 사전의 의미 기술에 제시된 대로 프랑스어를 함께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독자의 혼란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표4>에서 “정도에 따라”, “극존칭, 약존칭, 존칭(일반 높임말 포함), 존칭 아님, 예의에 어긋남”으로 분류를 해 주셨는데, 몇 예를 사전에서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²⁾

- ① 극존칭: 마누라 Titre honorifique des vieilles dames. Vieille dame. (On appelle ainsi quelquefois les vieilles femmes) [늙은 부인들의 **경칭** | 늙은 부인 | (때때로 늙은 여인들을 그렇게 부른다.)]

1) <표1>에서 『노한사전』의 출발어-목표어 부분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2) 예문에 제시된 한국어 번역은 『현대 한국어로 보는 한불자전』(이은령 외, 2014, 소명출판)에서 인용하였습니다.

- ② 약존칭: **결핵** Mediant (un peu honorif.). || Parasite. [거지(약간 경칭). | 식객.]
 규슈 Fille nubile, fille qui a atteint l'âge de se marier. Jeune fille, demoiselle. (Honorif.). [결혼 적령기의 처녀, 결혼할 나이에 이른 처녀 | 젊은 처녀, 규수 | (경칭)]
- ③ 존칭: **현합** Epouse vertueuse (Titre honorif.) [덕이 높은 아내(경칭)]

이를 보면 honorifique가 극존칭, 약존칭, 존칭으로 분류되었던 단어의 의미 기술에 모두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슈'는 혹 '규슈'와 유사한 뜻이면서 "un peu honorif."라는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 '규양'의 잘못인지요.

또한 "정도에 따라"와 그외의 기준을 분리하여 보여 주셨는데, 여기에서 존칭과 호칭 존대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혹 이 기준이 titre와 terme를 구분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다음의 예들은 어떻게 다루어진 것인지요.

- ④ **칭원** Titre honorifique [경칭]
 서방님 plus honorif. que 서방. Titre honorifique [서방보다 더 경칭]
 석스 Titre honorifique un peu plus élevé que 서방, et moins que 칭원 [서방보다 조금 더 높고 칭원보다는 낮은 경칭]
 서방 Terme un peu honorif. [약경칭어]
- ⑤ **테후** Santé. (Honorif.). [건강 | (경칭)]

3. <표5>에서는 일상어의 속어로 통속어(vulgaire)와 비속어(populaire)를 구분하여 비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표5>에 제시된 예 중 '히브라기'는 표제항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도 '축규화'의 의미 기술에서 속어로 제시된 어휘이므로 통속어로 분류될 수 있겠으나, 다음의 예는 좀 더 고려가 필요한 듯합니다.

- ① **달니** (vulg. 달늪). Esp. d'ail, petit écholote sauvage. [(속칭으로 달늪) 마늘 종류, 작은 야생 염교.]
 달늪 esp. d'ail. V.Syn. 달니. [마늘의 종류 | 동의어 달니]
- ② **쥐똥나무** Arbre de crottes de rat. ... Troène, vulg. duret. [쥐똥의 나무 ... 쥐똥나무, 속칭으로 단풍나무.]³⁾
 쥐모먹주 Litt.: souffler sur le poil pour voir s'il u a une cicatrice, c.a.d. chercher à reprendre dans la conduite d'un autre, vulg.: chercher des poux sur la tête d'un autre. Taquin, scrutateur de la conduite des autres, qui remarque les petetis défauts des autres. [글자대로: 흥터가 있는지 보기 위해 털을 불다, 즉 타인의 행실에서 비난할 것을 찾다, 속되게: 다른 사람의 머리에 있는 이를 찾으려 애쓰다 | 놀리기 좋아하다, 다른 사람들의 행실을 자세히 조사하다,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결점을 지적하다]
- ③ **령감** Monsieur, seigneur. (Honorif.). Titre honotifique qu'on donne aux vieillards et aux dignitaires; dans le langage popul., il s'emploie souvent

3) 원문에는 'Troène'로 되어 있으며, 'duret'의 번역어인 '단풍나무'는 이은령 외(2014) 인용하였습니다.

sans raison. [나으리, 주인님 | (경칭) | 노인들과 고관들에게 주어지는 경칭 | 속어
에서, 종종 이유 없이 사용된다]

①의 ‘달니’는 통속어(vulg.)로 분류해 주셨지만, ‘달니’의 사전 기술을 보면 ‘달뇌’를 통속어로 파악해야 할 듯합니다. ②에서 ‘쥐똥나무’는 쥐똥나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흔히들(“통속어로”) 단풍나무를 가리킬 때도 쓴다는 의미로, ‘취모떡조’는 축자적 의미 외에 흔히들 “다른 이의 머리에서 이를 찾다”(13쪽)의 의미로도 쓰인다 정도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어휘 자체가 어떤 것에 대한 통속어인 경우와 하나의 어휘 안에 다의적 의미로서 통속어적(?) 의미도 가진 경우를 구분할 필요는 없을지요. ③의 ‘령감’은 경칭을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령감’을 쓴다 정도로 이해되므로 ②의 경우와는 또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빙어, 솔독이’에 대해서 “저속하거나 천하게 부르는 말은 아니지만 조소적 비아냥이 섞인 어투”(13쪽)라고 하셨는데, 이들의 사전 기술을 보면 이들을 통속어(vulg.) 혹은 통속적 의미로도 쓰인다고 본 것은 맞지만 조소적이고 비아냥이 섞였다는 의미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지요.

④ **빙어** Éspeces de petit poisson, l'éperlan(?). Syn. **빅어** [작은 물고기의 종류, 바다빙어의 일종(?). 동의어 빅어.]

빅어 Éspeces de petit poisson de mer transparent, l'éperlan; on l'appelle **vulg. 빙어.** [투명한 작은 바닷물고기의 종류, 바다빙어의 일종 | 속칭으로 빙어라 부른다.]

⑤ **솔독이** Nom d'un poisson de mer dans le genre de la sèche. Clamar commun (**vulg. cornet, encornet**). [갑오징어 종류에 속하는 바닷물고기의 이름 | 일반 오징어의 일종(속칭으로는 작은 나팔, 왜오징어.)]

4. 결론에서 “이들 저자가 단순히 두 언어 간에 대응되는 어휘를 목록화 하고 학습하는 1차적인 학습단계를 넘어서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말의 쓰임에 필요한 규범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발표에서는 “언어사용역을 한국어 구어에 적용하여 분류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취를 살펴보았”다고 하셨습니다(14쪽). 이와 관련하여 『불한사전』과 『한불자전』의 사전 기술을 “규범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까지로 해석하는 것은 약간은 지나친 것은 아닐지요. 또한 발표에서 “일상어”와 “구어”라는 용어가 함께 쓰이고 있는데, 제시해 주신 몇몇 예들(예를 들면, 취모떡조, 여불비복유 등) 중에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2017 여름 한국사전학회 제31차 전국 학술대회

한글과 사전

강점기의 사전: 일본어 사전과의 교섭

발표자: 송 영 빈 (이화여대)

토론자: 안 예 라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점기의 사전 : 일본어 사전과의 교섭

송영빈(이화여자대학교)

1. 조선통독부편 『조선어사전』의 여러 판본

1920년 『조선어사전』(이하 ‘사전’으로 부른다)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간행되었다. 우에다 코지(植田晁次:2013)의 조사에 의하면 ‘사전’은 1920년의 기증본과 판매본, 1928년의 축쇄본, 1953년의 축쇄본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편찬 경위에 대한 기술이 발견되는 것은 이들 네 가지 본 중에 판매본이 유일하다고 한다. 이 사전은 인쇄 부수가 적어서 지금은 오키나와, 대만의 대북대학교, 오사카대학교 등에서나 볼 수 있는 희귀본이라고 한다.

이 사전의 편찬 경위에 대해서는 편찬에 직접 참여한 오다 칸지로(小田幹治郎)가 1920년에 쓴 「朝鮮語辭典の發行に就いて(조선어사전 발행에 대해)」라는 글이 있다. 이밖에 편찬 경위에 대해서는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1940,1964)가 있다. 오구라는 이 사전 편찬에 직접 관여했으며 야노, 야스다 도시로(安田敏郎:1999)의 지적대로 오구라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 이 사전은 조선인의 것이라고 분류할 정도로 언어 연구자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전은 아니었지만 편찬에 관여한 당사자의 기록으로는 의미가 있다.

‘사전’편찬 경위에 대한 한국인의 기술로는 1975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한 조선어사전에서 이승령 교수가 쓴 해제가 있다. 이 ‘사전’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한번은 겪게 되는 것이지만 발표자 또한 이 영인본에서 오다의 편찬 경위가 없음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 이런 점은 일본에서 1974년 영인본이 발간될 때 오구라의 제자였던 고노로쿠로(河野六郎:1974,1980)가 쓴 해제에서도 편찬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기술했다고 한다(우에다). 이런 의미에서 안병희(1985)와 야노(1986)의 오다의 편찬 경위 및 규장각 소장 등에 소장되어 있는 편찬 관련 문서를 참고한 연구는 이 사전을 연구하는 데 획기적인 기초를 마련한 연구이다. 이 두 연구에 의해 편찬 경위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으며 이후 황호덕(2010), 안예리(2016)에 의해 보다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어휘적 측면에서의 연구로는 이은령(2010)의 연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발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사전’에 대한 어휘적인 접근법을 통해 ‘사전’편찬 과정의 실체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기초 자료는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HK 연구교수로 재직중인 윤영민 교수가 가공하여 발표자에게 제공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다. 분석 대상으로는 조선어사전과 게일(1897) ‘한영사전’수록 한자어를 비교하기로 한다.

2. 흥미로운 사실

2-1. 어종

일본인에 의한 첫 근대적 사전의 출발은 1889-1891년에 간행된 ‘言海(이하 이 사전을 ‘언해’라 부르기로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공감한다. ‘언해’가 당시 일본어 사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 주목할 것은 ‘언해’의 출간에 의해 일본인의 사전 편찬이 활성화 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일본의 사전 편찬은 문명국을 향한 열정에서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일본어의 근대화라는 목적 하에 한자어, 고유어에 대한 사전편찬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며 당시 일본어 연구자와 한자와 로마자, 새로운 문자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국어 국자 논쟁’이란 담론 속에서 다양한 사전이 편찬되었다는 점이다.

‘언해’에 대한 당시 비판 중 주목할 점은 ‘언해’가 당시 서양문물을 들여오며 새로 만들어진 신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언해’에는 고유어가 표제어로 비중 있게 등장하고 있다.

표1 어종별 사전 표제어의 양상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이두	합계
‘언해’ (1891)	21,817 (55.8%)	13,546 (34.7%)	551 (1.4%)	3,189 (8.1%)		39,103 (100.0%)
조선어사전 (1920)	17,178 (29.29%)	40,734 (69.47%)	-	-	727 (1.24%)	53,639 (100.00%)
한영사전 (1897)	11,372 (34.68%)	21,417 (65.32%)	-	-	-	32,789 (100.00%)

표1을 통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언해’와는 달리 한영사전, 조선어사전의 한자어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전’의 범례와 편찬과 관련된 문서, 그 이후 이루어진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사전’이 당시 조선어를 수록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는 점, 나아가 표제어 선정을 위한 자료가 문어 자료를 근거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당시 조선어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이라는 점, 나아가 당시 문어 자료의 대부분이 한문이었다는 점에서 한자어 비중이 높았던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야노(1986)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2-2. 표제어 선정 과정

어휘 수집은 야노(1986)에 의하면 1911년 4월부터 1912년 3월까지였다고 한다. 이때 수집된 것이 총 137,000어로 한자 16,000자, 한자어 96,000어, 고유어 20,000어였다고 한다. 이를 4명의 위원이 수행했다고 하니 1명이 1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 약 94개의 한자와 단어를 모은 것이 된다. 당시 서양인의 사전 5종류를 참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야노는 결과적으로 1920년 사전 발행에서는 한자는 모두 사라지고 고유어는 거의 남게 되지만 한자어는 약 반 이상이 삭제되게 된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인 편찬 과정에서의 표제어와 뜻풀이 과정에 대한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안예리(2016)의 연구가 있다.

2-3. 교열

야노(1986)의 기술에 의하면 1915년 오구라는 당시 모든 원고에 대한 교열이라는 역할이 주어졌다. 교열 내용은 전문용어에 대한 것으로 총 11,000 단어였다. 1년 근무일을 300일로 했을 때 하루 365개 단어를 보아야 했다고 한다. 이 역시 앞서 본 표제어 선정만큼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야노의 기술에 의하면 1916년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친 전문용어는 4,602개였다고 한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사전'의 전문용어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이 부분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당시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어'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을 담고 있는 히다 요시후미(飛田良文:1986:『明治ことば辞典』, 표제어(1,341어))를 기준으로 '한영사전', '조선어사전', '우리말큰사전'의 표제어를 비교한 윤강구(1999)의 연구가 있다).

2-4 출판비

야노(1986)에 의하면 당시 총독부에 1917년 5월 23일에 원고 완성을 예상하고 인쇄 경비의 시산이 이루어져서 2,000권의 출간을 예상하고 예산을 요구했으나 결국 반으로 삭감되어 8,000엔이 되었다고 한다. 1920년 1,000권을 발행하고, 항간의 요구에 응하려고 보급본을 발행했는데 정가가 10엔, 배송비가 50전이었다고 한다. 당시의 물가를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일본은행 발표 2005년의 기업물가지수가 665.0이며 1931년이 0.748이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환산하자면 1931년 당시 1엔은 2005년 현재 889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 된다. 시기의 차이가 다소 있지만 최소한 1920년 당시의 10엔이라는 사전의 가격은 적어도 현재 한국에서는 8만원 정도가 된다. 1000부를 찍으면 8,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게 된다. 당시 조선총독부 '사전'편찬에 들어간 비용이 1911년 편찬 착수부터 1920년 사전 발행까지 정확히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발행 비용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큰 예산이었을 것이다. 오다(1920)년의 기술에서도 보듯 보급판 발행에 대해 실비로 인쇄소에 부탁을 한 점으로 보아 발행 비용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사전 편찬 모든 과정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밝히는 것은 조선어사전의 성격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전은 지금도 자금과 깊이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조선어사전의 한자 표제어

조선어사전은 앞서 본 대로 한자어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계일의 한영사전과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이번 발표에 앞서 대략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계일의 한영사전 수록 한자어 21,417개 중 최대 13,954개가 조선어사전에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은 65.15%였다. 최대라고 한 것은 조선어사전의 경우는 고유어는 한글로, 한자어에 대해서는 한자 표기를 하고 있어 어종 구별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계일의 한영사전의 경우 '失敗'에 대해 '실패', '실패하다'를 모두 표제어로 삼고 있어 이러한 것이 일치도 조사에서는 일치하는 것으로 모두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失'의 경우에도 계일 한영사전에는 '실', '일타', '일허버리다'에 모두 '失'이 나오는 반면 조선어사전에서는 '失(실)'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 전에 확인을 거쳐 정확한 수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4. 잠정 결론

사전은 그 시대의 반영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전은 자본과 학문적 축적, 나아가 사전편찬자의 사명감까지도 개입되는 결과물이다. 기존 연구에서 조선어사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발표에서는 조선어사전 연구에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발표를 하게 되었다. 또한 주어진 주제인 ‘일본어 사전과의 교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발표를 준비하며 주제 자체가 성립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만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다. 다만 조선어사전의 결과물인 ‘사전’자체와 편찬 경위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발표자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과거 종이 시대의 사전 편찬 연구에서 필요한 관점은 ‘참조’의 ‘참조’라는 틀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별 사전의 비교 연구를 통한 것도 필요하며 당시 사전 들과의 종합적인 비교 검토를 통해 사전의 정확한 성격이 밝혀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어휘를 전공하는 발표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어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될 때 이 분야의 연구도 진전될 것으로 생각한다. 어종은 가장 명확한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이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안예리(2016) 「『朝鮮辭書原稿』를 통해 본 『朝鮮語辭典(1920)』의 성격 변화」『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pp.9-21.
- 尹岡丘(1999)「日本からの漢語導入-『明治のことは辞典』における漢語見出し語の韓国語への導入を中心に-」『日語教育』十六輯、韓国日本語教育学会,pp.301-329.
- 이은령(2010)「19세기 이중어 사전『한불자전(1880)』과 『한영자전(1911)』비교 연구」『한국프랑스학논집』27,pp.63-88.
- 李秉根(1985)「朝鮮總督府編『朝鮮語辭典』의 編纂 目的과 그 經緯」『震檀學報』59,pp.135-154.
- _____ (2000) 『한국어사전의 역사와 방향』태학사
- 황호덕(2010) 「번역가의 원손, 이중어사전의 동국가적 생산과 유통」『상허학보』28,pp.93-145.
- 植田晃次(2013)「朝鮮總督府『朝鮮語辭典』の書誌学的研究」『大阪大学言語文化学』22,pp.95-104.
- 小田幹治郎(1920)「朝鮮語辭典の發行に就いて」『小田幹治郎遺稿』(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pp.112-121.
- _____ (1920)「朝鮮語辭典の編纂」『小田幹治郎遺稿』(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pp.122-126.
- 朝鮮總督府中樞院(1938)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

ン),p.21-33.

林大 他(1982)『図説日本語』角川書店

飛田良文(1986)『明治ことば辞典』東京堂出版

安田敏郎(1999)『言語構築-小倉進平と植民地朝鮮』三元社,p.230-242.

矢野謙一(1986)『朝鮮総督府編『朝鮮語辞典』編纂の経緯』『韓』104号,pp.184-222.

‘언해’는 참고문헌에서 밝히고 있는 『図説日本語』(60쪽), ‘사전’은 오다(1920:127쪽), ‘한영사전’에 대해서는황호덕(2010:128쪽)을 참고로 했다.

일본은행 전전기준 국내기업물가지수(http://www.boj.or.jp/statistics/pi/cgpi_2005/index.htm/)참조

“강점기의 사전: 일본어 사전과의 교섭”에 대한 토론문

안예리(한국학중앙연구원)

서론에 기술된 것처럼 이 연구는 어휘적인 접근법을 통해 『조선어사전』의 편찬 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밝히고자 한 연구로, 『조선어사전』의 어종별 표제어를 최초의 일본어 사전 『언해』 그리고 계일의 『한영사전』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어사전』은 『언해』보다 한자어의 비중이 약 2배 높았다는 점, 그리고 『한영사전』 수록 한자어의 65%가량이 『조선어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었다는 점 등이 밝혀졌습니다. ‘잠정 결론’의 내용을 참고할 때 향후의 연구는 어종 분석을 중심으로 기존 발행 사전들과의 참조 관계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표문의 내용에 대해 여쭙고 싶은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일본어 사전과의 교섭 문제

‘잠정 결론’ 부분을 보면, 당초 주어진 주제는 ‘일본어 사전과의 교섭’이었지만, 주제 자체가 성립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일본어 사전보다는 『한영사전』 등 당대의 이중어 사전과의 참조 관계가 『조선어사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본론(표 1)에서는 일본어 사전인 『언해』와 『조선어사전』의 어종을 비교하셨는데, 혹시 『조선어사전』의 편찬에 『언해』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신 것이지요?

『조선어사전』은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옛 관습이나 제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획된 것이므로 일본어 사전의 표제어나 뜻풀이 내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표제어 배열 방식이나 미시정보의 제시 방식, 뜻풀이 형식 등은 일본 사전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최경봉(2017:14)¹⁾에서는 1915년에 기획되어 1919년에 출판된 일조사전 『선역국어대사전』이 『조선어사전』의 편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두 사전의 체제 및 규모가 유사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두 한자를 공유하는 한자어를 함께 묶어 배열하는 방식은 『조선어사전』의 두드러진 특징인데, 최경봉(2017)에 따르면 일본의 『선역국어대사전』의 역시 표제어 배열 방식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할 때, 일본어 사전과의 교섭 문제는 사전의 거시구조 및 미시구조와 관련된 형식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 계일의 『한영사전』이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조선어사전』 관련 서류철의 공문서 중 ‘조선어사전 편찬 사무 종료 보고’ 문서를 보면 어사 수집에 이용된 68종 자료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드는 의문점은 어사 수집에 활용된 여러 자료 중 유독 『한영사전』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입니다. 68종 자료는 대부분 고문헌이지만 그 중에는 『한영사전』, 『한불사전』, 『한어통』과 같은 당대의 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어사전』의 표제어 선정에

1) 최경봉(2017),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의 편찬 맥락에 대한 사전학적 고찰”, 『국어학』 81.

미친 『한영자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68종의 자료 중 근대 자료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선 연구들에서 밝힌 대로 『조선어사전』에 수록된 어휘는 당시 널리 쓰이던 말이 아니라 과거의 조선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럼에도 『한영자전』, 『한불자전』 같은 당대의 사전을 어사 수집의 참고 자료로 활용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조선어사전』의 표제어 선정 과정에 당대의 이중어사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조선어사전』의 편찬 목적 및 경위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표제어 목록뿐 아니라 뜻풀이에 대한 전면적 비교 작업도 필요할 것입니다.

3. 한자어 표제어의 일치도

『한영자전』 수록 한자어 21,417개 중 65%가 넘는 13,954개가 『조선어사전』에 출현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표제어 목록은 발표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한영자전』의 한자어 표제어 중 『조선어사전』에 반영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혹시 어떤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두 사전 간 한자어 표제어의 일치도가 단순히 표제어의 형태적 일치 여부만으로 논의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근대적 개념을 나타내는 한자어들 중에는 완전히 새롭게 조어된 것도 있지만 한문 전적에서 널리 쓰이던 2자어가 새로운 개념으로 변모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형태만으로는 그것이 전통적 의미인지 근대적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조선어사전』은 근대적 신어를 대부분 신지 않고 있는데, 간혹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뜻을 근대적 의미가 아닌 전통적 의미로 풀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 표제어의 어형이 일치하더라도 『한영자전』에서는 당대에 널리 쓰이던 근대적 의미로, 『조선어사전』에서는 조선의 한문 전적에 나타난 전통적 의미로 풀이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듯합니다.

한 예로, ‘文明’이라는 표제어가 『조선어사전』에서는 ‘光彩おりて分明なること(開明)(광채를 내려 분명해지는 것)’이라고 풀이되어 ‘civilization/civilized’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 반면, 『한영자전』에서는 ‘문명(文明)하다’가 ‘To be clear. To be law-abiding; to be well governed’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civil’은 로마의 시민법(ius civile)을 근원으로 한 근대 시민법을 의미하므로 ‘civilization/civilized’는 법에 의한 질서가 있어 잘 다스려지는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영자전』의 ‘문명’에 대한 두 번째 뜻풀이 ‘To be law-abiding; to be well governed’는 이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한영자전』과 『조선어사전』이 ‘文明’을 풀이하는 관점은 매우 달랐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단지 표제어 어형이 일치한다고 해서 참조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두 사전에 모두 수록된 한자어들에 대한 뜻풀이 비교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017 여름 한국사전학회 제31차 전국 학술대회

한글과 사전

주제 발표 2부

사전의 사회문화적 기능
- 사전과 언어 정책

2017 여름 한국사전학회 제31차 전국 학술대회

한글과 사전

우리말 사전과 언어민족주의

발표자: 최 경 봉 (원광대)

토론자: 조 남 호 (명지대)

국어사전과 어문민족주의

최경봉(원광대학교 국문과)

1. 머리말

국어사전 편찬은 근대 개혁이 시작되면서부터 제기되었던 시대적 요구였고, 근대 개혁기에 이루어진 국어 정립 활동은 실질적으로 국어사전의 편찬을 목표로 전개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국어사전의 필요성, 편찬 목적, 위상, 성격 등을 규정하는 논리는 국어 정립 활동의 기본 이념이었던 어문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글에서는 국어사전 편찬의 논리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국어사전 편찬의 논리가 실제 국어사전의 체제와 내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는 결국 근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국어사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는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두 가지 사항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 국어사전의 편찬과 관련한 담론을 분석하며 사전 편찬에 대한 어문민족주의적 문제의식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사전 편찬에 대한 어문민족주의적 문제의식과 관련지어 근대 초기부터 해방 이후 국어재건기까지 편찬된 국어사전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주요 분석 대상은 근대 초기의 문제의식이 응축된 『말모이』와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편찬된 『큰 사전』(1957)¹⁾이다. 본고의 논의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근대 초기 국어사전 편찬 담론을 분석하며 국어사전 편찬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심화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조선어사전 편찬의 논리를 살펴보면, 조선어사전 편찬이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리고 당시 조선어 문화의 발전을 위한 실천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4장에서는 해방 이후 국어 재건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이 국어사전의 체제와 내용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큰 사전』(1957) 이전과 이후의 국어사전 편찬 논리를 비교하면서 국어사전의 위상과 성격이 변화하는 맥락을 알아볼 것이다.

2. 어문민족주의와 근대 초기 국어사전 편찬 담론

어문민족주의는 근대 민족국가 형성기에 이루어진 국어 정립 활동의 기본 이념이었다. 당시 어문민족주의자들에게 국가의 성립과 발전, 국민의 교육과 통합이라는 과제는 모두 국어와 국문의 정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²⁾ 1907년 지석영이 설립을 주도한 ‘국문연구회’의 설립 취지서에는 당시 어문민족주의자들의 상황 인식이 잘 나타난다.

(1) 국문연구회 설립취지서 일부

1) 『큰 사전』의 경우 그 출판이 1957년에 완결되는 만큼, 일제강점기에 기술된 원고본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2) 중화문명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게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국어의 정립은 곧 우리말과 한글의 규범화를 뜻했다. 우리말과 한글을 민족적 단일체 환기하는 상징으로 인식하면서 규범화 압력은 더 커졌다.

國語가 無准하고 國文이 無法하니 雖欲使吾人으로 入於文明之域이나 其可得乎아 有自國之字典 辭典 然後에야 可以教國民이오 國民을 以自國文字로 教導之 然後에야 可望其自國精神을 注于其腦也라[국어가 기준이 없고 국문이 법이 없으니, 우리 사람들이 문명의 영역에 들어가고자 하나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자국의 사전과 사전이 있는 후에야 국민을 교육할 수 있고, 국민을 자국 문자로 가르쳐 인도한 후에야 ,그 자국 정신을 그 뇌에 주입하는 것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인용한 국문연구회 설립취지서의 핵심을 재정리하면 ‘규범화된 우리말과 우리글로 국민을 교육하여 국민정신을 심어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국민교육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강조한 것이 ‘자국의 사전과 사전’이라는 것이다. 이를 보면 국문연구회 설립자들이 국어규범화의 종착점과 국민교육의 출발점을 국어사전의 편찬으로 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1907년 학부에 설치된 ‘국문연구소’에 그대로 이어진다.

(2) 국문연구소 연구위원들의 문제의식

ㄱ. 이능화의 연구보고서: 文學社會가 漢文만 崇拜하고 諺文은 賤卑하야 字典 文典 等 一定 規則이 無함이 原因이 되야 今日에 國文이 雜亂 無章한 境域에 墜陷하야 今此 聚訟을 致함 이라[문학 사회가 한문만 숭배하고 언문은 천하게 여겨, 사전과 문전 등 일정한 규칙이 없음이 원인이 되어, 금일에 국문의 난잡함이 끝이 없는 지경에 떨어지게 되어, 이에 서로가 옳고 그름을 따져 결말이 나지 않음에 이르게 되었다.]

ㄴ. 주시경의 연구보고서: 今日로 言하면 아직 國語의 字典도 無하고 文典도 無하며 官民間에 國文을 行用함도 府府不同하고 人人相異하여 準的되는 바가 無하며[금일로 말하면 아직 국어의 사전도 없고 문전도 없으며 관민사이에 국문을 쓰는 것도 각각 같지 않고 사람마다 서로 달라 법도 되는 바가 없으며]

그런데 사전 편찬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제기된 것으로 일찍이 『독립신문』의 ‘국문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국문연구회와 국문연구소를 통해 숙성된 문제의식은 국어사전의 용도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전 편찬의 기준과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원론적이거나 사전편찬의 기준과 방법론이 언급된 것은 국문연구소의 행보를 비판한 신문의 논설에서 찾을 수 있다.

(3) 국문 연구에 대한 관견(管見), 『대한매일신보』, 1908.3.1. 국한문의 현대어 역

근래 듣기로 학부에서 국문연구소를 설치하고 국문을 연구한다고 하니 어떤 특이한 사상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거니와 나의 우둔한 생각으로는 그 연원과 내역을 연구하는 데 세월만 허비하는 것이 필요치 아니하니, 다만 그 풍속의 언어와 그 시대의 말소리를 널리 수집해 온전한 경성(서울)의 토속어로 명사와 동사와 형용사 등 부류를 구별하여 국어 사전 일부를 편성하여 전국 인민으로 하여금 통일된 국어와 국문을 쓰게 하되, 그 문자의 고저(高低)와 청탁(淸濁)은 앞서 강정(講定)한 사람이 이미 있으니 취하여 쓸 것이오, 새롭게 괴벽한 설을 만들어내어 사람의 이목만 현란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노라.

위 논설은 문자의 문제와 언어의 문제를 구분한 상태에서, 밑줄 친 부분을 통해 근대 국어사전의

체제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통일된 언어생활을 위한 기준으로 ‘온전한 서울말’을 제시한 것을 통해 국어사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문론’의 차원을 뛰어넘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초기 사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주목할 점은 ‘규범사전’의 편찬을 목표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3)의 밑줄 친 부분에는 “풍속의 언어와 그 시대의 말소리를 널리 수집”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지만, 이는 규범어인 서울말을 온전하게 제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런 점을 보면 당시 국어사전을 편찬해야 한다는 요구는 국어정립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것임이 분명하다. 즉 언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전이나 우리말 지식을 총제적으로 보여주는 사전보다는 통일된 어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이후 사전 편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통해 초기 국어사전의 성격이 규정되었다.

3. 일제강점기 조선어사전 편찬의 논리

3.1.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조선어사전

한일병합으로 국어 정립을 위한 국어정책이 좌절되고 국어 정립 논리는 민족어 수호 논리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민족어 수호를 위한 실천 방안의 핵심은 ‘조선어의 규범화’였다는 점에서 국어 정립의 실천 방안과 다르지 않았다. 조선어의 규범화를 목표로 함으로써 일제강점기 민족어운동 진영은 식민지 언어정책에 대항하는 논리를 구축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언어정책은 ‘국어 상용화 정책’과 ‘조선어관리정책’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어운동 진영의 활동은 조선총독부의 국어 상용화 정책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조선어관리정책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어 운동 진영은 조선어관리정책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어 상용화 정책으로 인한 조선어의 위기에 대응하는 전술을 택한 것이다. 따라서 민족어 운동 진영의 활동은 총독부의 조선어관리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선어 정책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로 모아졌다.

조선어관리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³⁾과 『조선어사전』(1920)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조선어학회는 조선총독부가 음소주의 철자법을 채택한 것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형태주의 철자법을 주장했으며, 『조선어사전』(1920)이 표준 사전으로서의 권위를 지니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하여 사전 편찬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철자법의 개정이 궁극적으로 사전의 편찬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조선어관리정책에 대한 대응의 핵심 활동은 조선어사전을 편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정책에 대한 민족어 운동 진영의 대응은 조선어사전의 편찬으로 시작되었다. 한일병합 직후 민족계몽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선광문회에서는 1911년 주시경의 주도로 조선어사전인 『말모이』를 편찬했다. 이때 주목할 점은 말모이의 편찬 시기가 『조선어사전』(1920)의 편찬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편찬 시기를 볼 때 『말모이』 편찬은 조선총독부의 조선어관리정책에 대한 민족어 운동 진영의 첫 번째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말모이』 편찬의 취지는 김두봉이 지은 『조선말본』(1916) 뒷면에 실린 신문관(조선광문회가 운영하던 출판사)의 조선어사전 광고를

3) 최경봉(2016: 163)에서는 전면적인 언문철자법이 아니라 그 적용 범위를 ‘보통학교용 조선어 교과서’로 제한한 것은 1912년의 조치가 임시적인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고, 조선총독부의 조선어 규범화 사업이 이처럼 임시적 조치로 점철되면서 끊임없이 철자법 논쟁만을 불러일으켰음을 지적하였다.

통해 짐작할 수 있다.

(4) 朝鮮時語五萬의 標準을 定하고 意義를 譯한 것이니 朝鮮 有語 以後에 初有한 大著라 우리의 精神의 血液이 從此로 一段의 生機를 加得할지니라[조선의 지금 말 5만의 표준을 정하고 의미를 설명한 것이니 조선이 말을 가진 이후에 처음 있는 대저라. 우리의 정신적 혈액이 이로 부터 일단의 생기를 얻을지니라.]

그러나 광고의 표현대로 “우리의 정신적 혈액”⁴⁾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전』은 결국 출판되지 못했다. 남아 있는 원고의 분량도 많지 않은데다가 사전 편찬 취지 등을 담은 기록이 없어 『말모이』의 편찬에 참여한 이들의 생각을 충분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말모이』 편찬사업을 주도했던 김두봉의 다음 언급을 통해 조선어관리정책에 대한 대응의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5) 『갑더조선말본』(1922)의 붙임 ‘표준말’의 일부

우리는 아직 말모이(사전)도 하나 되지 못하(한불사전이나 한영사전이나 조선어사전 따위는 표준 잡을 만한 말모이로 볼 수 없음)여 표준말 한 마디도 잡히지 못한 이때에 어느 곳에서 채찍 맞고 뛰는 셈으로 서양말을 한문으로 옮겨 온 그것을 생판 서투르게 우리사람에게는 냄새도 맞지 않게 그대로 음만 따서 표준말을 정하는 것이야 어찌될 일리오. (밑줄은 필자의 것. 현대어로 고쳐씀.)

위의 밑줄 친 말을 통해 김두봉은 『조선어사전』(1920)이 『한불사전』이나 『한영사전』과 같은 대역사전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표준어 문제를 제기한다. 『조선어사전』(1920)을 비롯한 대역사전이 표준사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의 결성 취지문에도 그대로 반복된다.

(6) 조선어사전편찬회 결성 취지문 (현대어역, 밑줄은 필자).

서기 1890년에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씨의 손으로 일본 횡빈에서 출판된 『한영사전』이 그 둘이요, 1897년에 영국인 선교사 게일 씨의 손으로 역시 횡빈에서 출판된 『한영사전』이 그 셋이다. 그리고 또 1920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일본어로 대역한 『조선어사전』이 출판되었다. 위에서 말한 사전들은 모두 외인이 조선어를 학습하기 위하여서 편성된 사전이요, 조선인이 조선어를 학습하기 위하여서 편찬한 사전이 아닐뿐더러, 언어와 문자에는 아무 합리적 통일이 서지 못한 사전들이다.

(5)와 (6)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밑줄 친 부분을 고리로 하여 조선총독부의 조선어관리정책을 비판한 점이다. 비판의 핵심은 대역사전으로 출판된 『조선어사전』(1920)이 조선인의 조선어 학습을 위한 사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표제어의 선정과 표기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편찬된 사전이라는 것이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어관리정책을 수행할 의지와 철학이 없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면

4) 우리말을 정신적 혈액으로 비유한 것은 일본의 언어학자 우에다 카즈토시(上田万年, 1867-1937)가 일본어를 ‘일본 국민의 정신적 혈액’으로 비유한 것과 같은데, 이는 우리말 연구와 더불어 표출된 어문민족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제국주의적 국어 논리를 식민지 민족어의 의미를 밝히는 데 활용한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바로 이런 점으로부터 당시 어문운동의 이상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서, 조선인 스스로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하게 된 이유와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조선총독부가 조선어의 규범화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은 데 따른 문제가 『조선어사전』(1920)을 통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데, 사전 편찬의 차원에서 두드러진 문제는 『조선어사전』(1920)이 표준어의 제시 방안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어사전』(1920)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형 동의어 및 속어, 약어, 방언 등을 표제어로 수록하고 이중 하나의 대표어에서 뜻풀이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7) 『조선어사전』(1920)에서의 동의어 수록 양상

ㄱ. 잣치다(대표어): 잣기다. 잣찌리다. 잣기다. 잣기다. 잣찌리다. 잣치다. 잣기다. 잣기다. 잣찌리다. 잣기다. 잣기다. 잣찌리다. 잣치다. 잣기다.

ㄴ. 숙은거리다(대표어): 숙덕거리다. 쑥덕거리다. 숙덕대다. 쑥덕대다. 숙덜거리다. 쑥덜거리다. 숙덜대다. 쑥덜대다. 숙설거리다. 쑥설거리다. 숙설대다. 쑥설대다. 쑥은거리다. 숙은대다. 쑥은대다.

ㄷ. 날마다(대표어): 日日, 連日, 日復日, 每日, 逐日, 課日, 式日, 나날이

여기에서 대표어와 이형 동의어의 관계는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방식은 표준어를 제시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다양한 이형어를 수록한 『조선어사전』(1920)의 표제어 선정 방침은 규범사전을 지향했던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 방향과는 달랐다. 최경봉(2017L)에서는 위의 예를 들면서 이러한 표제어 선정 방침은 조선어를 이해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이중어사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당시 조선인에게는 절박했던 것은 조선어의 규범화였음을 강조한 바 있다.

『조선어사전』(1920)에 대응하여 편찬된 『말모이』에서는 규범사전을 편찬하려는 목표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말모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준어 인식은 현재의 표준어 규범에 비해 불명료하지만, ‘알기’(일러두기에 해당)에 “뜻 같은 말의 몸이 여럿이 될 때에는 그 소리대로 딴 자리를 두되 그 가운데 가장 흔히 쓰이고 소리 좋은 말 밑에 풀이를 적음”이라 하여 여러 이형어 중 표준적인 단어의 선정 원칙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소리 좋은 말”은 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인데, 이는 “동의어는 가장 보통의 어사(語辭)에 해설을 한다”는 『조선어사전』(1920)의 기술 원칙과 차이는 나는 부분이다. 『말모이』 편찬자들이 표준화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실제 사전 기술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로 나타난다.

(8) 『말모이』와 『조선어사전』(원고본)의 비교⁵⁾

현대어	『말모이』	『조선어사전』(원고본)
가늘다	가늘 (옛)㉠가름한 것의 몸피가 작음. ㉡일이 작음. ㉢사람의 것이 작음.	가늘다(가늘어/가는) 『活』 ‘가느다’와 同
		가느다(가느러/가는) 『活』 纖細한 稱.
가야금	가야금(伽倻琴) (제) 「가야고」에 보임.	伽倻琴(가야금) 『名』 樂器의 一種 (伽倻國 嘉賓王이....).

5) 이에 대한 비교와 평가는 최경봉(2014)와 최경봉(2016: 179-180)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조선어사전』의 뜻풀이는 원고본의 조선어 뜻풀이를 제시하였다.

	가야고 (제) 가야나라 가실(嘉實) 임금 만들은 고이름이니...	
개미	개미 (제) 땅 속이나 썩은 나무 속 에 집짓고 모아 살는 버레니 ...	개미 『名』 ‘가야미’의 略稱.
	가얌이 (제) 「개미」에 보임.	가야미 『名』 膜翅類에 屬한 昆 蟲이니 ...

『말모이』에서는 표제어에서 제외된 ‘가느다’가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에는 대표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며, 『말모이』에서 표준형으로 보는 ‘가야고’는 『조선어사전』의 표제어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말모이』에서 ‘개미’를 표준형으로 보는 반면 대신 『조선어사전』에서는 ‘가야미’를 대표 표제어로 수록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표준에 대한 두 사전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두봉이 『조선어사전』을 표준으로 삼을 만한 사전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사실 또한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말모이』의 편찬자였던 김두봉은 자신의 저서 『조선말본』(1916)의 ‘알기’ 부분을 통해 표준어의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이는 “가장 흔히 쓰이고 소리 좋은 말”에서 “소리 좋은 말”을 “바른 본”으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었다.⁶⁾

이처럼 민족어 운동 진영의 활동은 어문규범의 확립과 규범사전의 편찬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집중되었다. 민족어 운동 진영이 조선어사전편찬회의 결성을 통해 조선총독부의 조선어관리정책에 적극 대응했던 것은 규범화에 소극적이었던 조선어관리정책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글마춤법통일안』(1933)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은 조선어사전 편찬 과정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은 조선어사전편찬회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운동이 아닌 정책을 지향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조선어 규범화의 필요성은 어문민족주의에 기반한 조선어사전 편찬 논리의 핵심이었는데, 이는 곧 (1)에서 제시한 바 있는 국어사전 편찬 논리, 즉 “자국의 자전과 사전이 있는 후에야 국민을 교육할 수 있고, 국민을 자국 문자로 가르쳐 인도한 후에야 그 자국 정신을 그 뇌에 주입하는 것을 바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논리를 환기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조선어관리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진행된 조선어사전 편찬이 불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

3.2. 조선 민족의 갱생을 위한 도구로서의 조선어사전

조선총독부의 조선어관리정책에 대응하여 조선어사전의 편찬을 시도하는 것은 조선어 관리의 주체가 민족어 운동 진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표한 것이다. 조선인이 주체로서 조선어관리정책에 개입한다는 것은 조선의 자치화와 조선어의 공용어화를 함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민족어 운동 진영이 국어상용화정책으로 인한 조선어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조선어사전의 편찬 논리를 통해 당시 민족어 운동 진영의 인식 태도를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6) - 이 글은 이제에 두로 쓰이는 조선말 가운데에 그 바른 본을 말한 것이니라.
- 이 글은 서울말을 마루로 잡았노라. 그러나 이 도본에 맞지 아니한 것은 좃지 아니하였노니 이를터면 [더우니]를 아니 좃고 [덥으니]를 좃은 따위니라.

민족어 운동 진영의 조선어사전 편찬 논리는 서구에 비해 한참 뒤쳐진 조선어의 규범화 상황에 대한 반성과 부끄러움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이는 당시 사전 편찬이 이러한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행동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어편찬회 결성 취지문은 당시 민족어 운동 진영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9) 조선어사전편찬회 결성 취지문 (현대어역, 밑줄은 필자).

금일 언어를 소유하고 문화를 소유한 민족으로서, 사전을 가지지 않은 민족이 없다. 그러나, 우리 조선민족은 언어를 소유하고 또 문자를 소유하면서도 금일까지 아직 사전 한 권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언어는 극단으로 문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요, 또 조선민족의 문화적 생애는 금일과 같은 황폐를 이루게 된 것이다.

조선의 언어는 상술한 것처럼 어음·어법의 각 방면으로 표준이 없고 통일이 없으므로 하여, 동일한 사람으로도 조석(朝夕)이 상이하고 동일한 사실로도 경향(京鄕)이 불일(不一)할 뿐 아니라, 또는 어의(語義)의 미상(未詳)한 바가 있어도 이를 질정(叱正)할 만한 준거가 없기 때문에, 의사와 감정은 원만히 소통되고 충분히 이해될 길이 바이다. 이로 말미암아 문화의 향상과 보급은 막대한 손실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사전 한 권 가지지 못한”과 “조선민족의 문화적 생애는 금일과 같은 황폐를 이루게 된 것”은 인과의 관계를 이룬다. 이는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자부심을 극대화하는 담론(7)과 대비되어 사전 편찬의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10) 『조선어사전』(1938)의 ‘지은이 말씀’

우리는 수 많은 말이 있습니다. 배우기와 쓰기 쉽고 아름다운 글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말을 하는데 앞잡이가 되고 글을 닦는데 가장 요긴한 곳집이 되는 사전(辭典)이 하나도 없습니다.(외국 사람들이 조선말을 배우려고 만든 몇가지 대역체(對譯體)로 된것은 있지만은).

반만년의 역사가 있고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로서 이 얼마나 섭섭한 일이며 또 중외(中外)에 대하여 이보다 더 큰 부끄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과연 한 사람의 부끄러움이 아니요 참으로 우리 겨레의 치욕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사전의 부재에 대한 부끄러움은 곧 조선 문화의 낙후성에 대한 근대 지식인들의 부끄러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은 서구 문화에 대한 열등감이기도 했지만 찬란했던 문화를 이어가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죄의식이기도 했다. 이러한 의식은 근대 초 국문론에서 비롯한 것이란 점에서, (10)에 나타난 문세영의 생각은 당시 민족어 운동 진영과 사전편찬에 참여한 지식인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해방 이후 편찬한 『큰 사전』의 머리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1) 『큰 사전』(1947)의 머리말

7)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자부심은 ‘한글’에 의미를 부여하고, ‘한자’를 한글문화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보는 태도로 나타났다. 특히 정밀한 음소문자로 동아시아 어떤 문자보다 서구의 보편적 문자 체계에 부합했던 한글의 존재는 유길준과 주시경 등 초기 국어학자들이 우월적인 국어 의식을 지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정승철(2009), 안예리(2015), 최경봉(2017)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조선 말은 조선 사람에게 너무 가깝고 너무 친한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조선 사람에게서 가장 멀어지고 설어지게 되었다. 우리들이 항상 힘써서 배우고 닦고 한 것은 다만 남의 말, 남의 글이요, 제 말과 제 글은 아주 무시하고 천대해 왔다. 날마다 뒤적거리는 것은 다만 한문의 사전과 운서뿐이요, 제 나라 말의 사전은 아예 필요조차 느끼지 아니하였다. (중략) 제 말의 사전을 가지지 못한 것은 문화 민족의 커다란 수치일 뿐 아니라, 민족 자체의 문화 향상을 꾀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아, 이 수치를 씻고자, 우리 문화 향상의 밑천을 장만하고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조선 말 사전의 편찬 사업을 처음으로 계획한 것은 융희4(서기 1910)년부터의 일이었으니....

이상 (9-11)에 걸쳐 인용한 내용을 통해 당시 민족어 운동 진영의 인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는 “주체 의식이 없이 한자문화권에 매몰되어 있던 조선민족은 사전이 없는 수치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전을 갖지 못한 것은 조선 문화가 낙후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어사전의 부재로 조선 문화가 침체된다는 논리는 곧 사전이 편찬됨으로써 조선 민족이 갱생할 길이 열린다는 논리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12) 『큰 사전』(1947)의 머리말

금일 세계적으로 낙오된 조선 민족의 갱생할 첩로는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급무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문화를 축성하는 방편으로는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를 실현할 최선의 방책은 사전을 편성함에 있는 것이다.

조선 문화가 낙후된 원인과 조선 민족이 갱생할 길을 모두 사전에서 찾는 태도로부터 당시 어문민족주의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사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대한제국 시절과 다를 바 없지만, (1)에서처럼 국민교육과 국민정신을 강조하던 어문민족주의는 (9-11)처럼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강조하는 어문민족주의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통해 조선 민족이 갱생할 길을 모색하는 한 어문민족주의는 식민지 현실 내에서 자치권을 얻는 형태의 소극적 민족운동과 쉽게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국어상용화정책이 폭력적으로 전개되면서, 조선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위한 사전 편찬 활동은 민족어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저항성을 떨 수밖에 없었다.

4. 해방 이후의 국어사전 편찬 논리

4.1. 국어 재건 활동으로서 국어사전 편찬

최경봉(2017ㄱ)에서는 해방 후의 국어 의식이 근대 초 국어정립기의 국어 의식을 계승하되, 국어의 재건을 위한 교육과 정책이 추진되던 현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어의 개념, 위상, 조건, 범위 등에 대한 의식이 새롭게 형성되거나 구체화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 바 있다.

해방 후 국어의 재건을 위한 교육과 정책의 핵심은 ‘언어정화’와 ‘한자폐지’로 압축된다. 이때 ‘언어정화’는 일제 잔재의 청산을 통해 독립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한자폐지’는 민주공화국의 소통체계⁸⁾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두 주제와 관련한 논쟁

8) 한자폐지의 찬성론자들은 대중적 소통의 확대를 강조했고, 한자폐지 반대론자들은 정확한 소통을 강

은 어문민족주의의 자장(磁場)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근대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어문민족주의의 논리를 공유하면서, 이 논리를 근거로 언어정화와 한자폐지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 전개된 것이다.⁹⁾ 국어 재건 정책에서 나타나는 어문민족주의적 관점은『우리말로로찾기』(1948)의 머리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13) 『우리말로로찾기』의 머리말

우리가 일본 말을 쓰는 것은, 구미 여러 나라가 끄릭 말이나 라틴 말을 쓰는 것과는, 그 경위와 정신이, 아주 다른 것이다. 구미 여러 나라는 자기가 옛적 문화를 이어받(繼承)고, 늘이기(發展) 위하여, 자기네 말에 없는 것을, 옛 말에서 끌어 쓰고, 이를 삭히어, 자기네 말에 보탠 것이니, 이는 자주적 발전이어나와, 우리는 왜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의 말과 문화가 말살을 당하여, 악착한 동화 정책 밑에서, 우리 어미말을 버려 가면서, 일본 말을 국어로 쓰게, 강제 당한 것이니, 이는 패한 자의, 굴복적 퇴보이었던 것이다. 이 어찌 같이 말할 것이랴. (중략) 우리 말 가운데, 한 마디라도, 일어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곧 일본 정신이 우리에게 한 점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략) 남에게, 강제로 받은, 종살이의 남은 자취를, 깨끗이 닦아, 씻어 버리고 내 것을 찾으며, 내 것을 내세워, 내 것으로 살아야 한다. 여기에, 비로소 자유가 있고, 독립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찾아 놓은 우리말을 곧 쓰자. 그리함으로, 우리의 튼튼한 국민 정신을, 살려 내자.

언어정화와 한자폐지 정책이 조선어학회의 핵심 인물이자 당시 학무국 편수국장이던 최현배의 주도로 추진되었음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논리는 『큰 사전』의 편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정화’와 ‘한자폐지’ 정책이 『큰 사전』의 수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국어재건 정책의 성격과 실질적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어정화’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우리말로로찾기』 책자의 발간이다. 『우리말로로찾기』 책자의 정화 대상 어휘가 『큰 사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해방 이전에 완성된 『큰 사전』의 원고에 수록된 일본어 기원 외래어가 해방 이후 『큰 사전』의 수정 과정에서 어떻게 취사선택되었는지 등을 검토해 보면 당시 국어 교육과 정책에서 『큰 사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원고본에서 수록하였던 일본어 기원 외래어가 해방 후 출판된 『큰 사전』에서 제외된 예이다.

(14) ㄱ. 가기도메[カキトメ](名) 서류(書留)

ㄴ. 가다가끼[カタガキ=肩書] (名) 직함, 지위

ㄷ. 가다와꾸[カタワク](名)[土] 비진 콩쿠리트를 부어 구조물(構造物)을 굳히는데 필요한
가구조 물(假構造物)의 총칭(總稱)

조했다고 볼 수 있다.

9) 한 예로 한자 폐지를 반대하는 주장을 담은 조윤제(1947)에서는 국어와 교육의 관계를 논하면서 “국어는 곧 우리의 생명”, “국어는 곧 민족의 형성력” 등을 강조하였고, 일본어 잔재의 청산을 국어교육의 당면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조윤제는 “국어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명제를 일본어 잔재를 청산해야 하는 근거로 삼지만, 이를 한자 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로도 삼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최경봉(2017)을 참조할 수 있다.

위의 예를 보면 (13)의 “우리말 가운데, 한 마디라도, 일어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곧 일본 정신이 우리에게 한 점 남아 있다”는 인식이 『큰 사전』의 수정 원칙을 세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큰 사전』에는 원고본의 일본어 기원 외래어가 표제어로 남아 있기도 하고 새로운 외래어가 추가되기도 했다. 아래에서 밑줄 친 예는 『큰 사전』에 비표준어로 표시된 표제어다.

- (15) ㄱ. 가다방[←일 카타バン=堅麪包] 10)
- ㄴ. 가다꾸리[←일 카タクリュ=片栗米粉](이)=얼레짓가루
- ㄷ. 가다로꾸[←佛 Catalogue](名)=카탈록
- 가다로꾸 (이)=카탈로그(Catalogue)

위의 예를 보면 『큰 사전』은 일본어 기원 외래어라 하더라도 널리 쓰이는 것은 수록한다는 원칙 하에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ㄱ)은 널리 쓰이면서 표준형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간쓰메(=통조림)’나 ‘다꾸앙(=단무지)’ 등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 (15ㄴ)은 원고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큰 사전』에 비표준어로 새로 추가되었다. (15ㄷ)은 서구 외래어에 대한 일본식 발음을 반영한 표제어인데, 이는 원고본의 것을 수용하되 비표준어 표시를 추가했다.

(15)의 예를 보면 해방 이후 『큰 사전』의 수정 원칙이 (13)의 인식을 토대로 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15)의 예는 『큰 사전』 편찬자들이 최대한 객관적인 기술 태도를 유지하려 했음을 말해 준다. 즉 (14)와 같이 우리말에 정착되지 않은 일본어 외래어와 (15)와 같이 우리말에 정착되어 널리 쓰이는 일본어 외래어를 구분하여 등재 여부를 결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어 기원 외래어의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일본식 한자어의 정확 요구로 이어진다. “한자어를 씌어도 참다운 한어식의 한자어가 아니요 왜식의 한자어를 써서 그 말의 가진 바 뜻이 한자의 본 뜻과는 아주 달라진 것이 많다”는 조선어학회 이사장 장지영의 지적¹¹⁾은 한자어 자체보다는 일본식 한자어의 청산에 초점을 둔 당시 언어정화 운동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 실제 『우리말도로찾기』에서 일본식 한자어로 지정된 어휘들 중 상당수는 『큰 사전』의 표제어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당시 실생활에서 널리 쓰였고 현재까지 생존하는 일본식 한자어들도 『큰 사전』에서 제외된 것을 볼 수 있다.

- (16) ㄱ. 불경기(不景氣)
- ㄴ. 입장(立場)
- ㄷ. 가쇄(假刷)

위의 예들은 『큰 사전』 이후 출판된 국어사전에 등재된 것들이라는 점에서 『큰 사전』이 일본식 한자어의 등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도로찾기』에서 일본식 한자어로 지정하고 부가 설명까지 붙여 정확할 어휘로 특별히 강조한 것이 『큰 사전』에 등재되기도 했다.

(17) 『우리말도로찾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확 대상 한자어

- ㄱ. 曖昧 모호(-하다) (폴이) 曖昧: 우리말 [애매]와, 뜻이 다르다. 애매는 모호하다는 말이요, 우리말 [애매]는, 죄가 없다는 말이 되므로, 이 말을, 우리말의 [애매]로, 번역해서는 아니 된다.

10)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가다빵 (←[일본어]kata[堅]-)”으로 등재되어 있다.

11) 장지영, 나랏 말을 깨끗이 하자, 『한글』98, 1946.

ㄴ. 遠足 먼거님, 소풍 (풀이) 먼거님. 소풍: 遠足은 일어식의 한자어이니, 쓰지 못 할 것이다. 소풍은, 예부터 정신과 몸을 쉬기 위하여, 밖에 나가서 거니는 것을 이름이니, 쓰는 것이 좋을 것이요, 이보다도, 우리말 “거님”은 거닐다는 뜻의 이름씨로서, “산보”와 같은 말이니, 좀 멀리 거닐게 되는 걸음을 [먼거님]이라고 하면, 맞을 것이다. 전부터 遠行을 우리말로 [먼걸음]이라고 하였음에 비추어 보아도, 마땅하다고 생각 된다.

ㄷ. 磚子 똥판지, 막이 (풀이) 똥판지, 막이: 磚子是 사기나 나무로 만든 電氣 絶緣體이니, 이를 “막이”라고 하면 좋을 것이요, 또 한 편에서는 그것을 “똥판지”라고도 말한다.

(16)과 (17)을 보면 『큰 사전』이 일차적으로 어휘의 쓰임 양상을 기준으로 표제어 선정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일본식 한자어 여부는 이차적인 고려 사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처리 원칙은 (14)와 (15)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특히 (17)처럼 중점적인 정확 대상 어휘를 표준어로 등재한 것을 보면 일본식 한자어의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자체 기준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본식 한자어 정확과 관련한 인식을 통해 당시 언어정화를 추진했던 주체들의 서구어에 대한 인식 태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서구어에서 기원한 외래어를 언어정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¹²⁾ 외래어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주장의 대부분은 일본어를 섞어 쓰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제기된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말로찾기』의 정확 방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³⁾

(18) 언어정화 방침

1. 우리말이 있는데, 일본 말을 쓰는 것은, 일본 말을 버리고, 우리말을 쓴다.
2. 우리말이 없고, 일본 말을 쓰는 것은, 우리 옛말에서라도 찾아 보아, 비슷한 것이 있으면 이를 끌어 닦아, 그 뜻을 새로 작성하고, 쓰기로 한다.
3. 옛 말도 찾아 낼 수 없는 말이, 일어로 씌어 온 것은, 다른 말에서, 비롯한 것을 얻어 가지고 새말을 만들어, 그 뜻을 작성하고, 쓰기로 한다.
4. 한자로 된 말을 쓰는 경우에도, 일어식 한자어를 버리고, 우리가 전부터 써 오던 식의, 한 자어를 쓰기로 한다.

언어정화의 네 가지 방침 중 세 번째 방침은 일본식 한자어를 대체할 어휘에 다른 나라 말을 포함시키고 있다. 언어정화 정책에 임하는 이들의 이러한 인식 태도는 『큰 사전』 편찬자들이 영어 기원 외래어를 선정하고 기술하는 태도와 더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 ㄱ. 그랜드스탠드(grand-stand), 보이(boy), 오버슈스(over-shoes), 위클리(weekly), 트롤리(trolley), 캐비지(cabbage), 캐빈(cabin), 캐치(catch), 컬(curl). 트레이드(trade), 파티(party), 페어리(fairy), 페이퍼(paper)

ㄴ. 브라보(Bravo), 브러쉬(Brush), 뷰로(Bureau), 뷰(View)

12) 이와 관련한 국어의식의 특성에 대해서는 최경봉(2017ㄱ)에서 상세하게 논한 바 있는데, 이 중 ‘일본 말을 지껄이는 학생과 영어를 지껄이는 학생’에 대한 감정의 차이를 언급한 고정욱의 글은 영어 기원의 외래어와 일본어 기원의 외래어를 대하는 당대의 국어 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3) 최경봉(2017ㄱ)에서는 1945년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한글』에 수록된 글 중 서구 외래어 문제를 다룬 글은 없다는 것을 들어 외래어에 대한 당시의 인식 태도를 설명하면서, 외래어에 대한 문제의식이 서양말에서 기원한 외래어로 확대되어 국어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부터로 보고 있다.

ㄷ. 페이퍼(英 Paper) [이] ①=사포(砂布) ②=종이

(19ㄱ)은 『큰 사전』에 외래어로서 등재된 것 중 일부이며, (19ㄴ)은 원고본에서 채택되었지만 출판본에서는 제외된 외래어 중 일부이다. (19ㄱ,ㄴ)과 같은 영어 단어가 외래어로 등재된 것을 보면 당시 사전편찬자들이 외래적 언어 요소를 특별히 ‘외래어’와 ‘외국어’로 이분하여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¹⁴⁾ 이는 (19ㄷ)처럼 영어 기원 외래어를 영어의 용법을 그대로 수용해 풀이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큰 사전』의 출판 이전부터 서구 외래어의 수용을 민족어의 정체성 유지와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태도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8)의 밑줄 친 세 번째 방침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국어 교육과 정책 분야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한자폐지 문제는 사전의 기술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사전에서 전문어가 아닌 일상어를 뜻풀이하는 데에도 한자를 병기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큰 사전』에서의 뜻풀이 사례

멀다1 [어. ㄹ뻬] 공간적(空間的)으로나 시간적(時間的)으로나 친분 관계(親分關係)로나 사이가 떨어져 있다.

위의 뜻풀이에서는 일반적인 한자어에도 한자를 병기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당시 사전편찬자들은 한자를 병기해야만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어학회가 한자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생각하면 이러한 방침은 의외로 느껴질 수 있다. 이처럼 한자를 병기하는 뜻풀이 방식은 『큰 사전』(1957)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현재까지 국어사전에서는 특별한 한자어가 아닌 이상 한자 병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한자와 한글 표기의 대립 양상은 문법 용어의 선택 문제에서 드러났다.

(21) 원고본의 문법 용어와 『큰 사전』(1957)의 문법 용어(약호) 비교

원고본	출판본	원고본	출판본
名	이	指	잡
代	대	冠	언
數	셈	副	엇
形	어	感	느
自	제	語幹	줄
他	남	ㄴ變	ㄴ뻬

원고본에서는 한자어 문법용어의 약호를 한자로 직접 표기하여 제시하였지만, 출판본에서는 이를 고유어 문법용어로 바꾸고 한글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큰 사전』 출판 시 문법 용어를 한자어에서 고유어로 전환한 것을 고유어 중심의 사전을 편찬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큰 사전』에서 고유어 문법 용어를 채택한 것은 문법관의 문제에서 비롯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희승이 편찬한 『국어대사전』(1961)의 머리말에서 상당한 분량을 문법 용어의 문제에 할애하고 있는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희승은 조선어사전편찬회의 결성부터 사전 편찬 전 과정에 걸쳐 주

14) 외래어와 외국어를 개념적으로 구분한 연구는 김민수(1957)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의 외래어 수용과 이에 대한 연구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남호(2014)를 참조할 수 있다.

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22) 이희승 『국어대사전』(1961) 머리말

사전 편찬에 선행하는 문제는, 문법 체계와 용어의 채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편저자가 다년 연구, 검토한 나머지, ①가장 과학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체계 (출저 『새 고등 문법』 참조)를 따랐으며, 용어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알려졌으며, 또 가장 널리 보급되어 누구든지 알기에 평이한 [명사(名詞)], [동사(動詞)]식의 한자(漢字)로 된 말을 사용하였다. (중략)

우리 나라에서는 문법에 관한 용어가 이중(二重)으로 되어 있어서, 같은 국어 문법을 배울 때에 또는 국어 문법과 외국어 문법을 배울 적에, 용어의 번잡과 불통일로 말미암아, 어린 국민에게 아무 필요도 없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차마 간과(看過)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모든 학문은 피차간 관련성이 있고, 전체로서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어 문법만이 다른 학문의 테두리 밖에 고립(孤立)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②이 사전에서는 문법 용어를 조속히 통일시키기 위하여, 자연히 이루어지고, 먼저 사용되어 왔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편을 채택한 것이다.

(22①)을 보면 『큰 사전』의 문법체계와 용어가 최현배의 『우리말본』에 기반한 점, 그리고 『큰 사전』 출판 시 원고본의 ‘명사’, ‘동사’ 식 문법 용어를 ‘이름씨’, ‘움직씨’ 등으로 급격하게 바꾼 점 등 때문에 『큰 사전』편찬에 참여한 이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2②)를 통해 『큰 사전』편찬 시의 갈등이 1960년대에 학교문법통일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국어사전에 대한 실용적 접근

1957년 『큰 사전』의 완간 이후 출판된 국어사전은 어문민족주의의 경향성을 보이면서도 실용적 차원에서 사전 편찬 문제에 접근한다는 특성이 있다. 『국어 새 사전(1958)의 머리말을 통해 『큰 사전』 이전과 이후의 사전 편찬관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3) 『국어 새 사전(1958) 국어국문학회

이 사전은, 바르고 합리적인 국어 생활을 지향하는 사회 각층의 모든 국민에게 가장 친근하고 미더운 조연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체재에 일대 혁신을 기한 새로운 국어 사전입니다.

(중략) 그 어휘 수의 지나친 빈약으로 인하여, 더러는 그 다루기에 불편할 만큼 지나치게 큰 체재에 의하여, 실로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사전이 되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 느낌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말이란 항상 신진 대사와 진화를 거듭하여 쉬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담는 그릇이 될 국어 사전 또한 그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무감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낱이 못 사람들의 입에 새로 등장하고, 신문, 잡지, 학술 서적 등을 통하여 연달아 소개되는 새로운 말들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복잡과 혼란을 이루고 있어, 어제의 사전이 오늘의 언어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바 있습니다.

위의 머리말에서는 어문민족주의에 근거하여 사전의 의의를 밝히기보다는 “바르고 합리적인 국어

생활”과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사전”을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서『큰 사전』이후 국어사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국어사전이 시도되었다. 신기철·신용철 편저『표준국어사전』(1958)에서는 백과사전과 여러 전문 사전의 구실을 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전의 편찬이란 측면에서 국어사전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홍웅선·김민수 공편『새사전』(1959)은 쉬운 기본 단어들과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들을 제외한 사전으로 이용자의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이처럼『큰 사전』완간 직후에는 중사전 규모의 사전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며 국어사전의 실용성을 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희승 편『국어대사전』(1961), 신기철·신용철 편『새우리말큰사전』(1975) 등이 문화적 자산으로서 국어사전을 편찬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게 된다. 이는 1999년『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취지로 이어진다.

(24) 국어사전 편찬의 의미

ㄱ. 언어는 그 민족의 생활 전부 즉 문화 전체가 담겨 있는 그릇이라 할 수 있고, 사전은 그러한 언어가 담겨 있는 또한 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희승 편『국어대사전』)

ㄴ. 국어는 우리 한국 문화의 기초 근원인 동시에 그것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하다. (중략) 그러므로 우리가 국어의 낱말을 하나하나 음미하여 보는 것은, 우리 겨레가 먼 옛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이어받은 얼의 세계에 소풍하는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신기철·신용철 편『새우리말큰사전』)

ㄷ. 좋은 우리말 사전을 갖고 싶다는 열망과 올바르게 풍요로운 국어 생활을 하고 싶다는 희망은 바람직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으로 묶인다. (중략) 민족 언어 자산을 알뜰하게 모아 놓은 우리말 사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 속에 당당한 문화 민족으로 우뚝 설 뿐 아니라, 이 세계를 앞장서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자긍심을 키우게 된 자랑스러운 증거라야 할 수 없다. (국립국어원 편『표준국어대사전』)

(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어사전 편찬의 취지와 의미는『말모이』와『큰 사전』을 편찬하고자 했던 당시의 문제의식과 차이가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근대 민족국가의 건설 과정을 국어와 국문의 정립 과정과 동일시하거나 민족의 운명을 민족어의 수호와 동일시하는 데에서 나오는 절박감이 보이지 않게 된 점일 것이다. 그러나 언어와 민족 정체성 혹은 민족정신과 연관 짓는 관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그러한 관점이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얼의 세계에 소풍하는 즐거움’(24ㄴ)과 ‘올바르고 풍요로운 국어 생활’(24ㄷ)을 지향한다는 데에서 국어사전 편찬 논리의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5. 결론

참고문헌

- 김민수(1957), 외래어문제, 『고대신보』151호.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박용규(2011), 문세영 『조선어사전』의 편찬 과정과 국어사전사적 의미, 『동방학지』154, 259-300.
박형익(2004), 『한국의 사전과 사전학』, 서울: 월인.

- 안예리(2015), 언어적 근대에 대한 시론적 고찰, 『반교어문연구』41, 285-313.
- 이병근(2000), 『한국어사전의 역사와 방향』, 서울: 태학사.
- 정승철(2009), 어문민족주의와 표준어의 정립, 『인문논총』23, 159-180.
- 정재환(2013), 『한글의 시대를 열다-해방 후 한글학회 활동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 조남호(2014), 한국어의 외래어의 수용과 대응, 『인문과학연구논총』39, 13-38.
- 조운제(1947), 『국어교육의 당면한 문제』, 서울: 문화당.
- 최경봉(2005), 『우리말의 탄생』, 서울: 책과함께.
- 최경봉(2006), 표준어 정책과 교육의 현재적 의미, 『한국어학』31, 335-363.
- 최경봉(2014), 원고로 남은 최초의 우리말 사전, 『말모이』, 『새국어생활』24-3, 20-37.
- 최경봉(2016), 『근대 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서울: 일조각.
- 최경봉(2017ㄱ), 해방 후 국어 의식의 형성과 전개- 어문민족주의적 국어 의식의 계승과 변화의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어학』74, 199-232.
- 최경봉(2017ㄴ), 조선총독부編《朝鮮語辭典》의 편찬 맥락에 대한 사전학적 고찰, 『국어학』81, 3-38.
- 허재영(2002), 어문 정책 및 어문 운동의 개념과 대상, 『겨레어문학』29, 201-223.
- 허재영(2005), 국어사전 편찬 정책 및 그 역사, 『국어교육연구』15, 57-83.
- 홍종선 외(2009), 『국어사전학개론』, 서울: 제이앤씨.

“국어사전과 어문민족주의”에 대한 토론문

조남호(명지대학교)

어문민족주의는 국어 정책의 방향에 관한 논의와 현재의 국어 정책의 확립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국어 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어문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어사전의 편찬 논의와 실제 편찬에서도 어문민족주의는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발표문이 잘 보여주고 있다.

토론자도 전체 방향에서는 발표자의 관점에 동의하지만 발표자가 함께 다룬 언어 규범화의 과제와 협의의 어문민족주의의 과제는 국어사전의 편찬에 다르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두 과제를 나누면서 국어사전의 편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논의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 이 둘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광의의 어문민족주의의 과제로 다루어질 수는 있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표기법과 표준어의 확립이라는 언어 규범화의 과제와 문자로서는 한글을, 언어로서는 고유어를 중심에 놓는 좁은 범위의 어문민족주의의 과제는 시기에 따라 사전 편찬에 요구하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대역사전의 편찬은 협의의 어문민족주의의 과제와는 무관하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언어 규범화의 과제라는 면에서 본다면 대역사전들의 역할은 발표문에서 언급한 것보다 언어 규범화 과제의 달성에 더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개화기 국어사전에 관한 논의가 나오는 과정에서 『한불사전』이나 『한영사전』과 같은 대역사전은 언어 규범화를 위한 사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또한 후대에 편찬된 『조선어사전』(1920)까지 포함하여 대역사전들이 어휘를 수집하였기에 이후 국어사전 편찬 과정에서 언어 규범화를 위한 자료의 수집과 판단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1957년 『큰사전』이 완간된 이후 사전 편찬의 방향은 발표문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차이를 보이게 된다. 시대가 바뀌면서 국어사전 편찬자에게 부여된 과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이 두 과제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고 생각한다. 『큰사전』 편찬으로 언어 규범화 과제는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1999년 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에서도 여전히 언어 규범이 크게 고려가 되었을 정도로 언어 규범화의 논의는 최근까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어문민족주의의 과제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과제가 어느 정도 달성되어 사전 편찬에서 약화된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없어지지는 않았다. 대표적으로 일본어에서 온 말이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서 표제어의 수록 범위나 어원 정보의 처리, 풀이 방식 등에서 차별하였던 것은 어문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외에도 광의의 어문민족주의의 과제 내에서 언어 규범화의 달성과 협의의 어문민족주의의 관점의 관철은 여러 면에서 사전 편찬에 다르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발표문에서는 다소 통합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았는데 분리해서 명확하게 어느 과제와 연관된 것인지 언급했으면 독자들이 국어사전과 어문민족주의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덧붙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토론자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자 한다.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에서 계명구락부에서도 사전 편찬을 시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발표문에서 전혀 언급이 없는데 이 시도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이 주제에 관해 많은 연구가 있었던 발표자의 발표문을 읽고 짧은 시간에 토론문을 작성하다 보니 내용이 다소 거칠게 작성이 되었다. 양해를 바란다.

2017 여름 한국사전학회 제31차 전국 학술대회

한글과사전

사전의 사회적 기능

발표자: 한 용 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토론자: 조 태 린 (연세대)

20세기 이후 편찬된 우리말 사전의 사회적 기능

- 《겨레말큰사전》을 중심으로 -

한용운(겨레말큰사전)

1. 들어가는 말

돌아보면 20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매우 힘들고 숨 가쁜 시대였다. 36년의 ‘일제 강점기’를 견뎠고, 광복 후 바로 ‘남북 분단’과 ‘한국 전쟁’을 겪었다. 그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산업화 시대’를 보내고 지금은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다. 한 세기에 하나씩만 겪어도 힘들 일이 한 세기만에 다 일어난, 그야말로 격동과 파란의 세기였던 것이다.

언어는 사회상을 반영하므로, 이 시대의 우리 말과 글도 격동의 변화를 겪었다. 일제 강점기의 우리 국민은 대다수가 문맹자였고¹⁾, 일본은 ‘조선교육령(1911년~1945년)’²⁾을 시행하여 우리말을 말살하려 하였다. 또한 우리 낱말은 한자어, 일본어, 서구 외래어 등과 사활을 건 힘겨운 투쟁을 벌였고, 같은 시기에 우리글은 한문체에서 국문체로의 전환을 위한 산고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마침내 우리말을 제대로 적기 위한 한글 표기법(한글마춤법통일안(1933))과 우리 낱말이 살아갈 작은 집(《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 《조선어사전》(1938))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광복 직후 우리 말과 글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겨를도 없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분단 이후, 체제와 이념에서 차이가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우리 말과 글에 반영되면서 남과 북의 표기법이 달라졌고, 남북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듯 격동의 세월을 겪은 우리 낱말을 모아서 사전으로 편찬하려는 시도가 20세기에 이어졌다. 이 글에서는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편찬된 우리말 사전이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편찬되었는지를 간략히 살핀 후에, 현재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편찬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목적과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말 사전의 편찬 목적

20세기에 편찬된 우리말 사전은 시대적·사회적 특징에 따라 ‘일제 강점기 사전’, ‘분단 이후 남측 사전’, ‘분단 이후 북측 사전’으로 대별할 수 있다.

- 1) 당시 신문을 보면 “...신문 한 장은 고사하고 일상 의사소통에 필요한 서신 한 장을 능수하는 자가 역시 백인에 1인이면 다행이라 하겠도다...”(1922. 1. 22. 동아일보 사설), “전인구의 1천분의 20 밖에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학령아동의 3할밖에 취학할 수 없는 현하 조선 상태에 있어서 간이한 문자의 보급은 민족의 최대 긴급사라 하겠다...”(1934. 6. 10. 조선일보 사설) 등으로 기술되어 있는바, 당시 국민 대다수가 문맹자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 이 교육령에 따라 일본은 조선의 학교 교육에서 역사와 지리 과목을 폐지하고, 또한 조선인에게 조선말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일본어 학습을 강제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일제 강점기의 우리말 사전 편찬 환경은 지금에 비해 매우 열악했다. 당시는 한일 병합(1910년)이 이루어지고, '천황에 충성하는 신민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조선총독부에서 '조선 교육령(1911년~1945년)'을 시행하던 시점이었다. 이에 맞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국문 운동을 본격화하였는데, 그 첫 목표가 한글 표기법 제정과 우리말 사전 편찬이었다. 그렇지만 당시는 사전 편찬의 밑바탕이 되는 언어 자료(corpus)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우리말을 표기하고 기술하기 위한 공식적인 표기법·표준어·문법·문체 등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게다가 사전 편찬에 필요한 인력 및 편찬 비용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일본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사전을 편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사전 편찬 여건이 거의 불비한 상황이었지만 지금까지의 그 어떤 사전보다도 사전 편찬 목적이 분명했고, 또한 우리말 사전에 대한 열망이 간절했던 시기였다.³⁾ 이 시기에 편찬된 사전으로는 심의린 편 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 문세영 편 의《조선어사전》(1938), 그리고 광복 직후의 이윤재·김병제 편 의 《표준 조선말 사전》(1947), 조선어 학회 편 의 《조선말 큰 사전》 1권(1947)이 있다. 특히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은 여러 면에서 우리 말과 글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선 이 사전은 우리말을 집대성한 최초의 대사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전이 편찬되면서 비로소 우리말의 온전한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사전 편찬 과정에서 우리말 어문 규범을 제정하여, 당시의 우리말 표기에 일관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였고, 광복 직후 큰 혼란 없이 교과서 편찬 등 공문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조선어 학회에서 함께 사전을 편찬하던 인사들이 분단 이후에 남과 북의 언어 정책 수립 및 사전 편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남북 언어 이질화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48년, 남북에서 각기 정부가 수립되면서 남북의 사전도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남측에서는 1957년에 한글학회에서 마침내 《큰 사전》을 완간하였다. 1929년에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하여 편찬 작업을 시작한 지 28년 만에 완간하였는데, 학회 이름이 '조선어 학회'에서 '한글학회'로 바뀌었고, 사전의 이름도 '《조선말 큰 사전》'에서 '《큰 사전》'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남측에서 비교적 널리 이용된 대사전으로는 이희승 편 의 《국어대사전》(1961)과 신기철·신용철 편 의 《새 우리말 큰사전》(1974)이 있다. 이 사전들은 《큰 사전》 편찬 이후 급변한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편찬한 사전이다. 이후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남측에서는 여러 출판사에서 대사전을 편찬하였다. 이 시기는 사전 편찬에 필요한 요건들이 대부분 갖추어진 최상의 시기였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사전 편찬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 문제가 상당히 해소된 시기였고, 새로운 어문 규정(한글맞춤법(1988))이 고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이 시기에 간행된 대사전으로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편 의 《금성판 국어대사전》(1991), 한글학회 편 의 《우리말 큰사전》(1992), 이희승 편 의 《국어대사전》(제3판, 1994)이 있고, 국립국어원 편 의 《표준국어대사전》(1999)이 있다. 이 사전들은 어휘의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개정된 표기법을 반

3) 한 예로, 문세영 편 《조선어사전》(1938)의 '지은이 말씀'에 당시의 우리말 사전에 대한 절실함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배우기와 쓰기 쉽고 아름다운 글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말을 하는데 앞잡이가 되고 글을 닦는 데 가장 요긴한 곳집이 되는 사전(辭典)이 하나도 없습니다. ... 이것은 과연 한두 사람의 부끄러움이 아니요 참으로 우리 겨레의 치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느낌이 간절한 지은이(著者)는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을 하소연할 곳이 없으므로 평일에 모아 두었던 어휘(語彙)로 밑천을 삼고 그 위에 널리 고금을 통하여 많은 문헌(文獻)에서 조선말과 인연이 있는 어휘를 두루 뽑아 한 체계(體系)를 세워 이 《조선어사전》을 만들기로 스스로 맹서하였습니다...”

영하기 위해 출판되었다. 이 가운데 《표준국어대사전》은 분단 이후 정부 주도로 남측에서 편찬한 첫 번째 대사전인데, 편찬 목적은 ‘1988년 개정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일반 원칙만을 정하고 있는 현행 어문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의 국어생활의 표준을 제공하기 위한(‘머리말’에서 인용)’ 것이었다. 한편 대학교에서도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였는데,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역 《연세 한국어사전》(1998)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역 《고려대 한국어대사전》(2009)이 그것이다. 이들 사전은 현실 언어를 반영하기 위해 실제 언어자료(corpus)에서 올림말을 선별하고 뜻풀이한 사전들로서, 언어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그동안 축적된 국어학 및 사전학 지식을 사전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 그리고 사전 편찬 인력을 양성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이상의 남측 대사전은 모두 《큰 사전》(1957)의 바탕 위에서 점차 올림말 수를 늘리고 뜻풀이를 깊고 더한 사전이라 할 수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을 제외하면 모두 민간에서 출판한 사전이다.

체제 분단 이후에 북측에서는 정부 기관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⁴⁾ 주도로 사전을 편찬하였다. 분단 이후 북측에서 출판한 첫 번째 사전은 《조선어소사전》(1956)이다. ‘인민의 언어 배양을 제고하고 현대 조선어 표준어를 가일층 규범화하기 위해’(머리말 참조) 편찬한 사전으로, 1954년에 제정한 <조선어철자법>이 반영된 첫 규범사전이다. 이후 ‘기술 문화 혁명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비약적으로 장성하는 조선 인민의 다면적인 언어생활의 모든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머리말 참조) 대사전 규모의 《조선말사전》(1960~1962)을 출판하였다.⁵⁾ 한편, 1960년대 중반부터 북측은 ‘주체 언어 사상’을 강조하면서 언어 규범에 큰 변화를 꾀하였다. <조선말규범집>(1966)을 공포하였고, 북측의 규범어를 ‘문화어’로 수정하면서 규범어 설정의 바탕이 되는 말을 ‘서울말’에서 ‘평양말’로 바꾸었다. 또한 주체 언어 사상에 입각하여 ‘어휘정리사업’⁶⁾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대조선말사전》(1968), 《조선문화어사전》(1973), 《현대조선말사전 제2판》(1981)을 출판하였다. 또한 1992년에 33만여 어휘를 수록한 《조선말대사전》(1992)을 출판하였는데, 남북 분단 이후 북측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한 한자말정리사업·어휘정화사업⁷⁾·어휘정리사업의 결과를 총정리하고, 《조선말규범집》(1987)의 규범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편찬한 대사전이다. 이후 이 사전을 증보하여 35만여 개의 어휘를 수록한 《조선말대사전 증보판》(2006)을 출판하였다.⁸⁾ 북측의 대사전은 《조선말사전》(1962)의 바탕 위에서 편찬된 것으

4)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전신은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이다. 1964년에 ‘과학원’이 ‘사회과학원’으로 개편되면서 예전의 ‘언어문학연구소’는 ‘언어학연구소’와 ‘문학연구소’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1964년 이전에 편찬된 《조선어소사전》(1956)과 《조선말사전》(1960~1962)은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이름으로 편찬되었고, 그 이후의 사전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이름으로 편찬되었다.

5) 《조선말사전》의 올림말 수는 187,137개이며 총 6권으로 간행되었다. 이 사전은 《조선말 큰 사전》 편찬에 참여했던 월북 언어학자들이 주도적으로 편찬에 참여하였다는 점과 이후 북측 사전 편찬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남측에서 완간된 《큰 사전》(1957)과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된다.

6) 《조선문화어건설이론》(2005: 77)에 따르면, ‘단어체계를 ... 고유어에 근거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의 어휘를 다듬는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휘체계 전반에 걸쳐 동시에 혁명적으로 어휘정리사업을 밀고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여, ‘어휘정리사업’이 ‘어휘정화사업’과는 달리 어휘 체계 전반에 걸친 사업임을 표명하고 있다.

7) 《조선문화어건설이론 2005: 70~76》에 따르면, 어휘정화 사업의 목표는 ‘어려운 한자 어휘와 표현 및 불필요한 외래어를 대담하게 정리하여 버리는 것’이었다. 이 사업의 결과물로 ‘《일반 및 학술용어통일안(초안)》’이 간행되었는데, 22개 분과 용어 중에서 6,000여 개를 정화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8) 《조선말대사전 증보판》의 ‘머리말’에 ‘약 40만 개’의 올림말을 수록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북측에서는 올림말 수를 계산할 때 남측과 달리 ‘속담’과 ‘성구(관용구)’를 올림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로 볼 수 있으며, 남측과 달리 정부 주도로 편찬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1) 20세기 이후의 우리말 사전



이상으로 20세기 이후에 편찬된 우리말 사전의 시대적 상황과 그 편찬 목적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20세기 이후에 편찬된 우리말 사전은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따라 편찬된 경우가 많았다. 일제 강점기 때의 사전은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편찬되었고, 남북 분단 이후의 남측 사전은 시대상과 사회상을 반영한 새로운 어휘를 수록하고 개정된 규범을 반영하기 위해 출판되었으며, 북측 사전은 언어 정보 전달이라는 사전 본연의 목적 외에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도 출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70여 년간 진행된 남북 어휘 이질화를 극복하고 남북 언어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남북 언어 통합 사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2005년에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로 합의하였다.

3.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목적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고 문익환 목사가 1989년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에게 ‘통일국어대사전’ 편찬을 제안하면서 태동되었다. 그 이후 여러 사정으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다가 2005년 2월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가 결성되면서 편찬 사업이 본격도에 올랐다. 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2005년 2월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남측 11명, 북측 10명)’를 조직하였는데, 남측 위원회는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큰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연세 한국어사전>> 편찬자들과 언어학자 및 문인으로 구성되었고, 북측 위원회는 주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인력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편찬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남측에서는 2006년도에 ‘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조직되었고, 북측에서는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사전 편찬실 인력이 사전 편찬에 투입되었다.

이 장에서는 남북의 어휘 차이 현황을 남측의 <<표준국어대사전>>(1999)과 북측의 <<조선말대사전 증보판>>(2006)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목적을 살펴보기로 한다.⁹⁾

따르면 속담(15,347개)과 성구(1,390개)를 포함하더라도 총 올림말 수는 369,680개였다.
 9) 이 글에서는 편의상 ‘<<표준국어대사전>>(1999)’은 ‘<<표대>>’로, ‘<<조선말대사전>>(2006, 증보판)’은 ‘<<조대>>’로 줄여 일컫기로 한다. 또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공동사업회’로 줄여 일컫기로 한다.

3.1. 남북 어휘 차이 현황

남과 북의 우리 겨레는 이념과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70여 년의 세월을 교류 없이 살아왔다. 그 결과 남북 우리 겨레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에 차이가 생겼고, 또한 남북의 어휘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생겼다. 현재의 남북 언어 차이는 다행히도 언어 체계나 문법의 차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어휘의 차이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¹⁰⁾

남북 어휘 차이의 구체적 현황을 밝히기 위하여 남북의 정부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편찬한 사전이면서, 또한 최대의 올림말을 수록한 《표대》와 《조대》를 비교하였다.

(2) 《표대》와 《조대》의 올림말 비교¹¹⁾

		《표대》(1999)			《조대 증보판》(2006)		
① 올림말	주올림말	371,405			313,198		
	부올림말	68,411			39,745		
	북한어	66,460					
	계	506,276			352,943		
② 남북 어느 한쪽 사전에만 있는 말		228,474개			138,472개		
		일반어	전문어	기타(방언, 옛말 등)	일반어	전문어	기타(방언, 옛말, 낱말 등)
		75,635	125,854	26,985	101,247	25,726	11,499

《표대》의 총 올림말 수는 506,276개인데, 이 가운데 ‘북한어’ 66,460개를 제외한, 439,816개의 올림말이 남측에서 쓰이는 낱말이다. 439,816개의 올림말 가운데 남측 사전에만 수록된 올림말은 228,474개로, 전체 올림말 수(439,816개) 대비 51.9%에 이른다. 그리고 《조대》의 총 올림말 수는 352,943개이다. 이 가운데 《조대》에만 수록된 올림말은 138,472개로, 전체 대비 39%에 이른다. 남북의 어휘 차이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남북 어느 한쪽 사전에만 있는 올림말’을 다시 ‘일반어’와 ‘전문어’로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면 (3), (4)와 같다.¹²⁾

(3) 《표대》와 《조대》의 어느 한쪽 사전에만 등재된 일반어

사전 분류	《표대》에만	《조대》에만	예	
			남	북
일반어	75,635	101,247	가운데아버지, 만화방(漫)	가느비, 간참(看參), 모던

10) 그렇지만 남북의 어휘 차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경일·서태길(2001)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 언어 적응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남북 어휘 차이로 인한 남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문제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초기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수많은 낯선 어휘와 표현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느끼는 문화적·어휘적 이질감은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하게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11) 이 글에서는 ‘공동사업회’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표대》와 《조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통계를 냈다. 《표대》에는 ‘북한어’ 66,460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북한어’는 ‘남측 말’이 아니므로, 남북 올림말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조대》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아직 최종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여서 통계에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오차는 이 글의 논의 전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12) (3), (4)의 표는 한용운(2015)에 제시된 것을 인용하였다.

	고유어	15,801	고유어	34,997	晝房), 미니멈(minimum), 가스통(gas桶), 가리(→ 갈비)	(modern), 가루사이다 (-cider(영)), 널치(→넙치)
	한자어	35,309	한자어	35,284		
	외래어	2,022	외래어	533		
	혼종어	17,870	혼종어	28,506		
	비규범어	4,633	비규범어	1,927		

《표대》의 일반어 총 개수는 217,035개이다.¹³⁾ 이 가운데 《표대》에만 등재된 일반어 수는 75,635개이다. 그리고 《조대》의 일반어 총 개수는 271,860개이다.¹⁴⁾ 이 가운데 《조대》에만 수록된 일반어 수는 101,247개이다. 《표대》의 일반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65%가 《조대》 일반어와 동일하고, 《조대》의 일반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63%가 《표대》의 일반어와 동일하다.

《조대》에만 등재된 일반어 가운데 고유어는 34,997개로, 《조대》에만 등재된 일반어 총 수 대비 35%의 비중을 차지한다. 《표대》에 비해 고유어 비중이 14% 이상 높다. 그 이유는 1946년 이후 ‘한자말정리사업’, ‘어휘정화사업’, ‘어휘정리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남측에 비해 ‘정책적으로 순화한 고유어’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자어나 외래어를 정책적으로 순화한 ‘먹는물(←음료수), 먼거리(←원거리), 손기척(←노크)…’과 같은 고유어들이 있고, ‘긴숨, 범벅이말, 늦은겨울…’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고유어들도 있다. 또한 남측 기준으로 보면 ‘구(句)로 볼 수 있는 올림말’(다리힘, 새세상, 먼길…)과 ‘전문어로 볼 수 있는 올림말’(붉은기, 혁명사상, 노란자라버섯, 바늘잎나무…)이 일반어로 많이 등재되었다는 점도 《표대》에 비해 고유어 비중이 높은 이유이다.

(4) 《표대》를 기준으로 한, 《표대》와 《조대》의 전문어 비교

	전문영역	《표대》	《조대》의 동일 올림말	백분율(%) ¹⁵⁾	《표대》에만
1	가톨릭	1,402	298(일반어:295/그 외:3) ¹⁶⁾	21.255	1,104
2	건설	4,544	1,807(일반어:1,194/건설:528/그 외:85)	39.767	2,737
3	경제	7,862	1,288(일반어:711/경제:548/그 외:29)	16.383	6,574
4	고유명사	490	35(일반어:34/그 외:1)	7.143	455
5	고적	2,116	393(일반어:281/고고:99/그 외:13)	18.573	1,723
6	공업	2,267	694(일반어:383/금속:133/그 외:178)	30.613	1,573
7	광업	2,262	951(일반어:607/광업:124/그 외:220)	42.042	1,311
8	교육	1,254	386(일반어:376/그 외:10)	30.781	868
9	교통	961	199(일반어:137/운수:58/그 외:4)	20.708	762
10	군사	3,899	1,533(일반어:1,506/그 외:27)	39.318	2,366
11	기계	1,359	403(일반어:175/기계:192/그 외:36)	29.654	956
12	기독교	1,109	369(일반어:368/그 외:1)	33.273	740
13	논리	666	241(일반어:109/논리:99/그 외:33)	36.186	425
14	농업	2,581	1,249(일반어:1,019/농학:116/그 외:114)	48.392	1,332
15	동물	8,743	2,980(일반어:2,752/생물:161/그 외:67)	34.084	5,763
16	문학	3,549	750(일반어:545/문학:142/그 외:63)	21.133	2,799
17	물리	6,440	2,552(일반어:989/물리:1,122/그 외:441)	39.627	3,888
18	미술	1,177	494(일반어:301/미술:177/그 외:16)	41.971	683
19	민속	4,621	2,224(일반어:2,206/그 외:18)	48.128	2,397
20	법률	8,918	2,304(일반어:1,777/법률:447/그 외:80)	25.835	6,614
21	불교	9,680	2,955(일반어:2,921/그 외:34)	30.527	6,725
22	사회	1,995	462(일반어:411/그 외:51)	23.158	1,533
23	생물	3,230	1,036(일반어:482/생물:362/그 외:192)	32.074	2,194

13) 《표대》에 수록된 ‘전문어’, ‘지역어’, ‘은어’, ‘고어’를 제외한 수치이다.

14) 《조대》에 수록된 ‘전문어’, ‘지역어’, ‘옛말’을 제외한 수치이다.

24	수공	1,518	576(일반어:449/방직:82/그 외:45)	37.945	942
25	수산	386	128(일반어:69/수산:55/그 외:4)	33.161	258
26	수학	3,429	1,392(일반어:578/수학:790/그 외:24)	40.595	2,037
27	식물	9,979	4,992(일반어:4,596/생물:357/그 외:39)	50.025	4,987
28	심리	1,463	282(일반어:186/심리:48/그 외:48)	19.275	1,181
29	약학	1,157	439(일반어:190/약학:206/그 외:43)	37.943	718
30	언론	509	103(일반어:90/그 외:13)	20.236	406
31	언어	3,196	1,092(일반어:573/언어:495/그 외:24)	34.168	2,104
32	역사	19,847	11,545(일반어:11,166/역사:348/그 외:31)	58.170	8,302
33	연영	1,350	477(일반어:264/영화:131/그 외:82)	35.333	873
34	예술	998	297(일반어:223/무용:52/그 외:22)	29.760	701
35	운동오락	3,981	1,096(일반어:834/체육:254/그 외:8)	27.531	2,885
36	음악	5,990	1,443(일반어:709/음악:719/그 외:15)	24.090	4,547
37	의학	8,497	3,213(일반어:1,602/의학:1,114/그 외:497)	37.813	5,284
38	인명	10,320	48(일반어:48/그 외:0)	0.465	10,272
39	전기	1,914	703(일반어:192/전기:300/그 외:211)	36.729	1,211
40	정치	1,788	480(일반어:442/법률:34/그 외:4)	26.846	1,308
41	종교	912	290(일반어:281/그 외:9)	31.798	622
42	지리	4,702	1,649(일반어:782/지리:334/지질:264/기상:180/그 외:89)	35.070	3,053
43	지명	6,831	298(일반어:292/그 외:6)	4.363	6,533
44	책명	2,025	327(일반어:322/그 외:5)	16.148	1,698
45	천문	1,812	650(일반어:351/천문:286/그 외:13)	35.872	1,162
46	철학	1,785	570(일반어:348/철학:205/그 외:17)	31.933	1,215
47	출판	1,117	413(일반어:260/출판:142/그 외:11)	36.974	704
48	컴퓨터	1,126	255(일반어:71/정보:126/전자:42/그 외:16)	22.647	871
49	통신	719	187(일반어:101/체신:67/그 외:19)	26.008	532
50	한의학	4,463	3,865(일반어:3,755/의학:85/그 외:25)	86.601	598
51	항공	716	168(일반어:151/그 외:17)	23.464	548
52	해양	675	203(일반어:120/해양:66/그 외:17)	30.074	472
53	화학	7,101	2,793(일반어:828/화학:1,718/그 외:247)	39.332	4,308
	계	191,431	65,577	34,256	125,854

(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남북의 전문어 차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남북 사전의 전문어를 비교한 결과 그 일치율이 34%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이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의 차이나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점도 있지만, 분단 이후 남북의 개별 전문 영역 전공자들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북의 두 사전에서 분류하고 있는 전문 영역을 살펴보면 《표대》에서는 53개의 분야로, 《조대》에서는 47개의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표대》를 기준으로 보면 ‘가톨릭’, ‘기독교’, ‘불교’, ‘종교’, 그리고 ‘고유명사’, ‘인명’, ‘지명’, ‘책명’, ‘민속’, ‘교육’, ‘군사’, ‘사회’, ‘정치’ 등의 전문 영역이 《조대》에는 없다.

《표대》의 전문어 총수는 191,431개인데¹⁷⁾, 《조대》의 전문어 총수와 비교해 보면 수록된 어휘 수가 148,352개가 더 많다. 그리고 《표대》에서 전문어로 제시한 올림말 중 49,452개는 《조대》에서 일반어로 등재하고 있으며, 16,125개는 전문 영역이 다른 올림말로 등재하고 있다. 주요 전문어 영역을 비교했을 때, ‘경제 16%’, ‘법률 26%’, ‘사회 23%’, ‘음악 24%’,

15) 여기서 백분율은 ‘《표대》의 영역별 전문어 총수’ 대비 ‘《조대》 동일 올림말’을 계산한 것이다.
16) ‘그 외’에는 ‘일반어를 제외한, 다른 여러 전문 분야 수치를 합산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7) <표 3>에서 제시된 《표대》의 전문어 수는 이운영(2002)의 전문어 수(229,129개)와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통계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운영(2002)에서는 북한어를 포함하여 전문어 수를 계산했지만, 이 글에서는 《표대》에 수록된 북한 전문어를 제외하고 통계를 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이운영(2002)에서는 하나의 올림말이 둘 이상의 전문 분야에 속할 때 중복하여 계산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분야 하나만 인정하여 통계를 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 제시된 전문어 수가 이운영(2002)에서 제시된 전문어 수보다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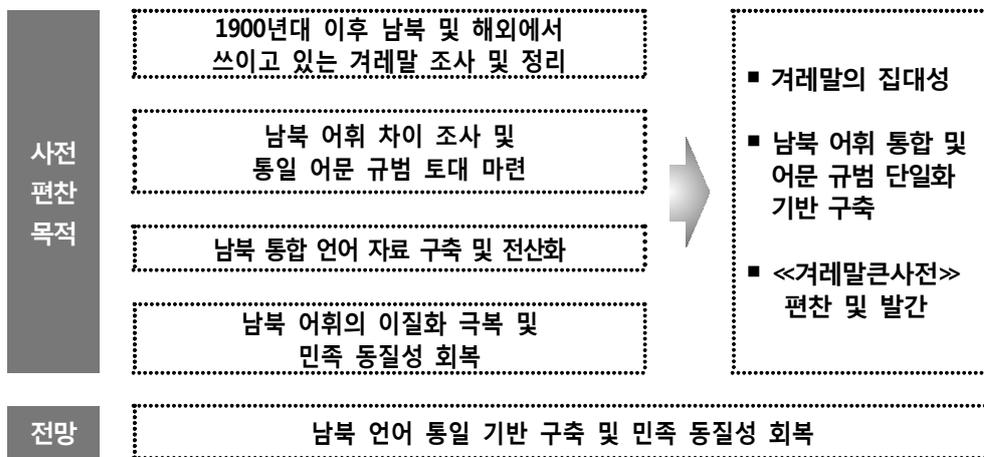
‘의학 38%’, ‘정치 27%’, ‘컴퓨터 23%’의 일치율을 보이는데, 대체로 30%를 밑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영역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이므로 남북 전문가들이 하루빨리 만나서 용어 통일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한의학(87%)’, ‘역사(58%)’, ‘식물(50%)’, ‘농업(48%)’, ‘민속(48%)’ 등의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올림말 일치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2.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목적과 원칙

남북의 어휘 차이를 극복하고 남북 언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년에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으로 분단된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우리 겨레가 함께 볼 수 있는 대사전을 편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남북의 겨레가 함께 볼 수 있는 대사전을 편찬하려면 남북의 학자들이 자연스럽게 ‘어문 규범 단일화 방안’, ‘남북에서 다르게 쓰는 낱말의 올림말 선정 및 뜻풀이 방안’ 등 언어 전반에 걸친 협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사전을 남북 겨레가 함께 이용할 경우 남북 간의 어휘 차이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세기의 우리말 사전 편찬 작업이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의해 편찬된 경우가 많았듯이, 지금은 남북 어휘 이질화를 극복하고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편찬 요구가 생긴 것이다.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목적과 전망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 사전 편찬 목적과 전망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공동위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20세기 이후 남북 및 해외에서 쓰이고 있는 겨레말을 조사·정리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편찬된 우리말 사전들은 남북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제 어휘 조사를 실시하여 올림말을 선정한 적이 없다. 이에 공동위원회에서는 일상생활어와 지역어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20세기 이후 남북 및 해외에서 실제 쓰이고 있는 겨레말을 조사하여 올림말로 수록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조사한 언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향후 사전 편찬 및 겨레말 연구의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남북 언어 차이를 조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남북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통일 이후 어문 규범을 제정하는 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일도 공동사업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공동사업회에서는 올림말 선별 및 뜻풀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남북에서 차이가 있는 낱말 하나하나에 대한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차이 나는 규범에 대한 단일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합의 과정과 합의된 사항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겨 남북 체제 통일 이후에 이러한 사항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남과 북이 함께 사전을 편찬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낱말에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체제, 문화, 정서, 생활방식, 사고방식 등이 섬세하게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남북 간 차이가 있는 현 상황에서는 올림말 선정부터 뜻풀이까지 모두 하나하나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림말을 ‘여자’로 올릴 것인지, ‘녀자’로 올릴 것인지, ‘의식주(남)’와 ‘식의주(북)’ 가운데 어느 것을 올릴 것인지(아니면 모두 올릴 것인지), 남과 북 어느 한쪽에서는 쓰이지 않는 ‘홈뱅킹’, ‘그루빠’ 등의 외래어를 올림말로 인정할 것인지 등을 하나하나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뜻에 차이가 있는 낱말, 즉 ‘동무’의 뜻으로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외에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함께 싸우는 사람’을 반영할 것인지도 합의해야 한다. 또한 사전 편찬을 위한 언어 자료(말뭉치) 구축 방식, 전산 프로그램 운용 방식 등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도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공동위원회에서는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 위한 ‘공동편찬요강(2005)’을 작성하고 세부 작업 지침을 마련하였다.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요강

1) 사전의 성격

- ① 《겨레말큰사전》은 우리 겨레가 오랜 기간에 걸쳐 창조하고 발전시켜 온 민족어 유산을 조사 발굴하여 총집대성한 사전이다.
- ② 《겨레말큰사전》은 사전 편찬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합의 해결한 통일 지향적인 사전이다.
- ③ 《겨레말큰사전》은 수집한 어휘 자료 가운데서 남과 북이 공통으로 쓰는 것은 우선 올리고 차이 나는 것은 남과 북이 있는 힘껏 합의하여 단일화한 약 30만 개의 올림말을 가진 대사전이다.
- ④ 《겨레말큰사전》은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자사전을 동시에 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언어 정보를 주는 현대사전이다.

2) 사전의 편찬 원칙

- ①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맞게 민족 공조의 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
- ② 남과 북의 언어적 차이를 한꺼번에 다 없앨 수 없는 조건에서 단계를 설정해 놓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사전을 완성하되 이를 지속적으로 보충하도록 한다.
- ③ 남과 북의 언어적 차이를 줄이며 우리말의 민족적 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방향에서 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부문별 작업 요강 3~5개를 만들어 사전 편찬 작업의 공통된 지침서로 삼는다. 작업 요강은 ‘원고 집필 요강’, ‘언어 규범 단일화 요강’, ‘어휘 조사 요강’, ‘남북 국어사전 비교 요강’, ‘사전 자료 정보화 요강’ 등이다.

3) 사전의 올림말과 뜻풀이

가. 사전의 올림말

- ① 20세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쓰고 있거나 썼던 말 중에서 올림말로 올릴 가치가 있는 어휘를 수록한다.

- ② 기존 사전 (《조선말대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올림말에서 《겨레말큰사전》에 올릴 어휘를 우선 합의 확정한다.
- ③ 방언, 민속 어휘, 동식물 이명, 직업 어휘, 문학 작품에서 뽑은 말, 새말 등 광범한 분야의 문헌 자료와 생산 현장에서 어휘 조사 사업을 진행하여 민족 고유의 어휘 표현을 많이 올리도록 한다.
- ④ 현시대 과학 기술 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문 용어를 어느 정도 올리되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말을 영역별로 선별한다.

나. 사전의 뜻풀이

- ① 언어학적인 뜻풀이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전문 용어를 비롯한 일부 올림말에 대해서는 백과사전적인 뜻풀이 방식을 적용한다.
- ② 뜻풀이 문장 구성에서는 어떤 격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보다 친절하고 알기 쉬운 방식으로 서술하도록 한다.
- ③ 될 수 있는 한 단어의 밑뜻이나 어원 및 유래를 밝히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④ 올림말에서 발음, 원어,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관련어 등의 폭넓은 정보를 주되 남과 북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4) 작업 방식과 제품의 완성 형식

- ① 남과 북의 공동 편찬 위원회는 각기 자기 산하에 3-5개의 작업조를 구성하여 사전 편찬 사업을 맡고나간다.
- ② 공동 편찬 위원회는 사전 편찬 요강과 작업 요강들의 심의, 사전 초고 심사 검토, 사전 편찬과 관련한 국제 토론회 조직, 매개 작업조에서 제기된 학술적인 문제들을 심의 결정하며, 작업조에서는 작업 요강 작성과 자료 조사, 초고 집필 등 사전 편찬 작업을 직접 집행한다.
- ③ 남은 《표준국어대사전》, 북은 《조선말대사전》을 모체로 제각기 올림말 선정과 뜻풀이 작업, 새말 보충 작업을 진행한다.
- ④ 언어 규범의 남북 단일화 문제와 사전 원고 집필에서 생기는 언어학적인 문제는 양측 부문별 작업조(언어 규범 단일화조, 원고 집필조)들이 편찬 위원회 모임과는 따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완성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⑤ 남과 북에서 제각기 만든 《겨레말큰사전》의 원고를 합쳐 완성할 때에는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단계적으로 편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편집 완성한다.
- ⑥ 완성된 원고는 남과 북의 합의 아래에서만 출판할 수 있으며 합의된 원고는 표현 하나도 자의로 고칠 수 없다.

2005년 7월 10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평양

이 공동편찬요강을 바탕으로 하여 세부 작업 지침을 작성하였는데, ‘올림말 선정 지침’, ‘집필 지침’, ‘새어휘 조사 지침’, ‘표기법 단일화 지침’, ‘프로그램 개발 지침’ 등이 그것이다.

3.3. 《겨레말큰사전》 편찬 현황

‘공동위원회’에서는 총 25차례 남북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사전 편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

가. 집필원고 합의 과정



나. <<겨레말큰사전>>의 미시구조

- **올림말:** 발음-활용형-(원어명) 원어-품사-전문영역-문법정보-뜻풀이-예구-예문-관련어-참고어-형태분석 및 어원-순화어-붙임-갈래말-삼화
관용구/속담

<<겨레말큰사전>>은 그동안 남북에서 각기 편찬된 사전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남북에서 의미 차이가 있는 올림말의 뜻풀이’와 ‘용례 제시 방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겨레말큰사전>> 풀이 예시

가. 남북에서 의미 차이가 있는 올림말의 뜻풀이

나비

① 얇고 넓적한 두 쌍의 날개가 있고 ~ 주로 낮에 활동하는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
 ② <나비1①>과 <나방>을 아울러 이르는 말.

[붙임] 북에서는 <나비>와 <나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나비>라고 부르지만, 남에서는 이 둘을 구분한다. 나비는 몸이 가늘고 주로 낮에 활동하는 데에 비해 나방은 몸이 통통하고 주로 밤에 활동한다. 낮을 때 나비는 날개를 곧추세우지만 나방은 날개를 편다.

나. 용례 제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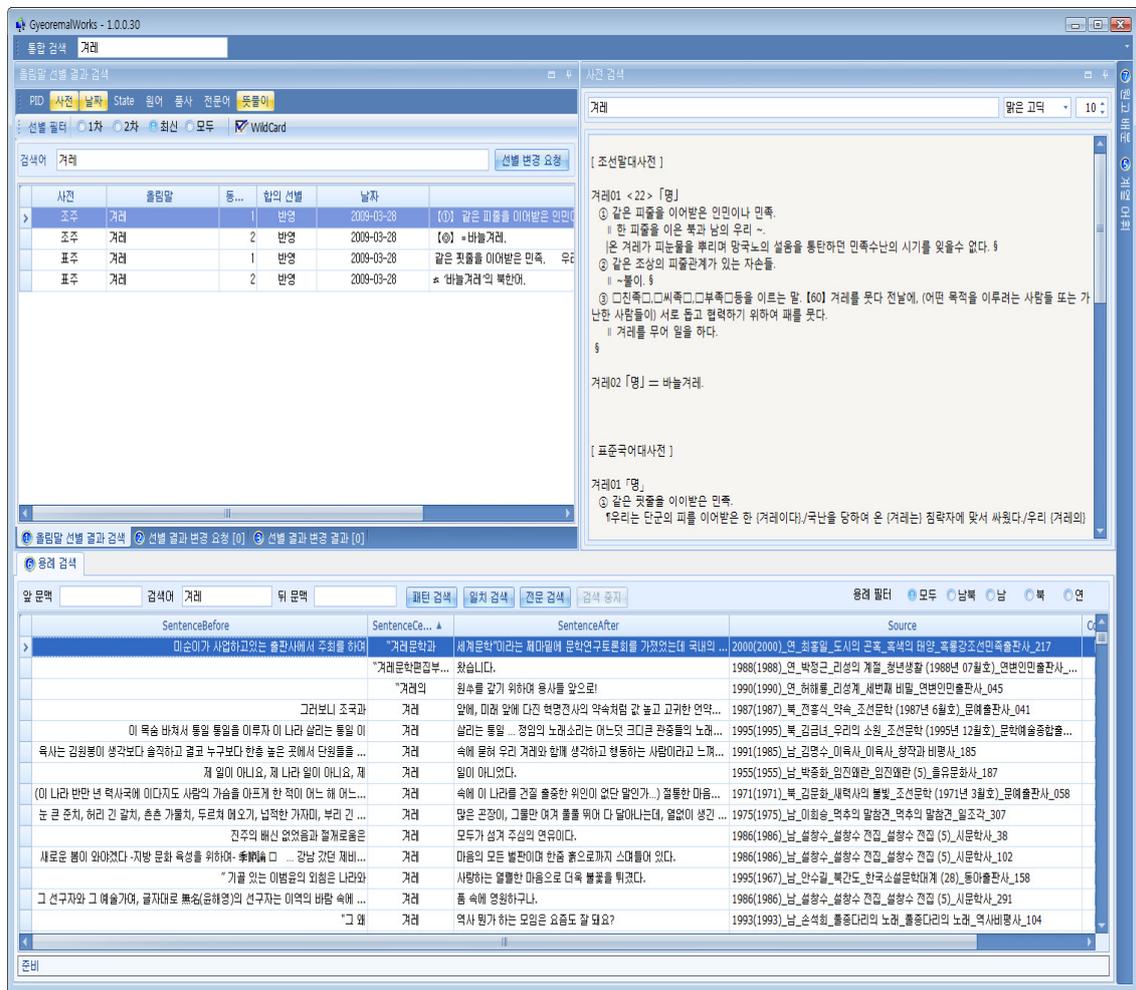
대홍수 ~. ¶ {대홍수가} 일어나다. | 북관망의 수천호의 집들을 쓸고 지나갔던 {대홍수에} 선녀의 할아버지도 낱알이나 좀 건져보겠다고 물가에 갔다가 세상을 뜬 것이다.<<시오:한>>(중국) / 인환의 집도 {대홍수의} 난리 속에 소중히 간직하던 족보와 그 밖의 집기들이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다.<<강원회: 그 사람 이름 박인환>>(남측) / 지금 거기

는 지난 8월에 있는 몇 십년래 보기 드문 {대홍수로} 해서 대부분 지방이 물에 잠겨 흉년이 들었다.(《빛나는 아침》)(북측)

(10 가)처럼 분단 이후 남북에서 달리 쓰이는 낱말에 대해 ‘[붙임]’ 정보를 두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용례 제시 방식에서도 남북에서 각기 편찬된 사전과 차이가 있는데, (10 나)처럼 남북 및 해외동포 사회의 언어 자료에서 용례를 고루 찾아서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은 컴퓨터 운영 체제 및 한글 입력기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사업회에서는 ‘집필보조프로그램’, ‘원고입력기’ 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집필보조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겨레말큰사전》 ‘집필보조프로그램’



한편, 남북의 차이 나는 표기법을 단일화하기 위해 ‘단일어문규범위원회(2014년 제22차 공동회의에서 ‘종합분과’로 개칭)’를 별도 기구로 두었다. 이 위원회에서 ‘한글 자모 명칭’, ‘올림 말 배열 순서’, ‘개별 낱말의 형태 표기’ 등을 합의하였고, 현재는 두음 표기, 사이시옷 표기 등의 표기법 차이를 단일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합의한 표기법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표기법은 국가의 규범이므로 강제성을 띠게 되는데, 체제가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표기법을 시행할 경우 남북의

현행 표기법과 충돌하여 양측 국민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 통일이 되면 다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현재까지 전체 대비 75% 정도 작업이 진행되었다. 현재는 남북의 편찬실에서 각기 집필한 원고를 교차 검토한 후에 다시 공동회의에서 합의하는 단계에 있는데, 공동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여 작업 진척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남측 사업회에서는 작업 진척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금까지의 작업 결과물을 남측 단독으로라도 가공하여 웹사전으로 편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4. 맺음말

지난 20세기의 우리말 사전은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의해 편찬된 경우가 많았다. 일제 강점기에는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말 올림말에 우리말 풀이를 한 사전을 편찬하고자 노력했고, 남북 분단 이후에는 남북 각 측의 시대적·사회적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편찬된 사전이 많았다. 그리고 지금은 남북 어휘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사전을 편찬할 필요가 생겼다.

현재 남측에서는 북측 사전을 참고할 수 없고, 북측에서는 남측 사전을 참고할 수 없다. 특히, 남과 북의 어느 한쪽에서만 쓰는 말은 다른 쪽에서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남북으로 분단된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우리 겨레가 함께 볼 수 있는 대사전을 편찬할 필요가 있다. 남북의 겨레가 함께 볼 대사전을 편찬하려면 남북의 학자들이 함께 ‘어문 규범 단일화 방안’, ‘남북에서 다르게 쓰는 낱말의 올림말 선정 및 뜻풀이 방안’ 등 언어 전반에 걸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사전을 남북 겨레가 함께 이용할 경우 남북 간의 어휘 차이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같이한 남북의 학자들은 2005년에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사전이 완성되면, 비록 분단된 상황이지만, 이 사전을 통해 남북의 우리 겨레는 상대 측 어휘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이 사전을 편찬하면서 남북이 논의하고 합의했던 사항들이 통일 어문규범이나 문법을 작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전 편찬 외적인 문제로 편찬에 어려움이 많고, 앞으로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디더라도 남북의 편찬원들은 사전 편찬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통일은 남북 우리 겨레의 시대적 과업이다. 그런데 이 통일이 아무런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통일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해 둔 뒤의 통일이라야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문화적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 두어야 한다. 혹독한 일제 강점기에 ‘한글마춤법 통일안(1933)’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을 미리 준비하고, 아울러 《큰 사전》 편찬 작업을 하여 광복 후 우리 어문 생활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다시 한번 통일시대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나하나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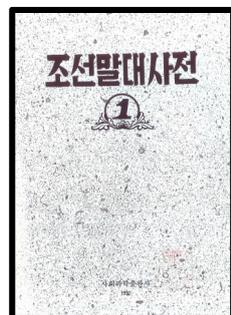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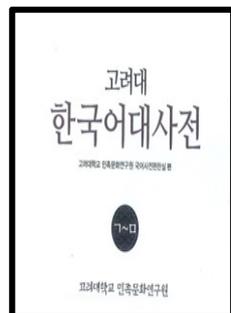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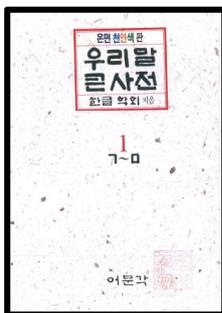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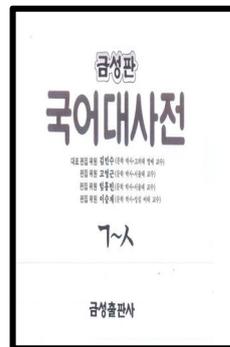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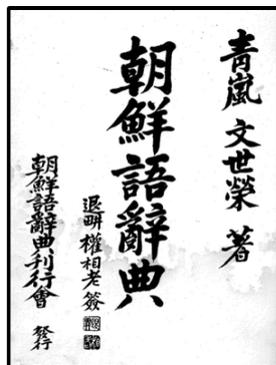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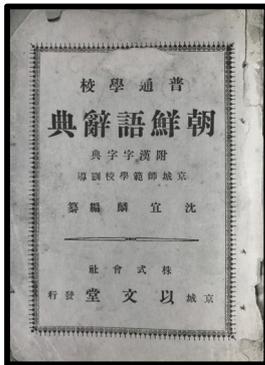
- 권재일(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형익(2005), 《심의린 편찬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태학사.

-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로동당언어정책사》, 조선어학전서 3.
-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문화어건설이론》, 조선어학전서 2.
-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말사전편찬론연구》, 조선어학전서 16.
- 사회과학출판사(2005), 《조선어규범변천사》, 조선어학전서 46.
-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이운영(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 정경일·서태길(2001), 《남한정착 북한출신 주민의 언어적응 실태 조사연구》, 문화관광부.
- 최경봉(2005), 《우리말의 탄생》, 도서출판 책과함께.
- 한용운(2015ㄱ), 남과 북의 사전, 《새국어생활 제25권 제2호》, 국립국어원, pp. 25~44.
- 한용운(2015ㄴ), 분단 이후의 남북 어휘, 《현대사광장 제6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pp.52~70.
- 홍종선·최호철(1998), 《남북 언어 통일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

참고 사전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편(1962), 《조선말사전》.
-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편(1981), 《현대조선말사전》 제2판.
- 과학원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 편(1956), 《조선어 소사전》.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민수 외(1991),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 문세영 편(1938), 《조선어사전》, 이문당(以文堂).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1992), 《조선말대사전》.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2006),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 신기철·신용철 편(1974),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 이운재·김병제 편(1947), 《표준 조선말 사전》, 아문각.
- 이희승 편(1961),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 이희승 편(제3판, 1994)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한글학회(조선어학회) 편(1957), 《큰 사전》, 을유문화사.
- 한글학회 편(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참고> 20세기 이후 편찬된 국어사전의 속표지



“20세기 이후 편찬된 우리말 사전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토론문

조태린(연세대)

이 논문은 20세기 이후 한국어 사전들의 편찬 배경과 목적을 개괄하고 남북 언어 통합 사전으로서의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목적과 원칙, 현황 등을 정리하고 있는데, 특히 남과 북의 정치적 통일과 언어적 통합 과정에서 <겨레말큰사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을 다시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겨레말큰사전>은 물론이고 언어사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일천한 토론자로서는 공부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맡은 바 역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논문의 제목에서는 사전의 사회적 기능이 주제로 부각되어 있으나, 실제 본문에서는 특정한 시대적, 사회적 환경 하에서 주요 한국어 사전의 편찬 목적을 주로 검토하고 있다. 물론 사전의 편찬 목적에는 사전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고려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논문의 주제를 논의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목적이 '1988년 개정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일반 원칙만을 정하고 있는 현행 어문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의 국어생활의 표준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파악되는 사전의 사회적 기능은 일차적으로 '국민의 국어생활의 표준 제공' 정도가 될 것이다. 한편 일제 강점기 사전의 편찬 목적은 말과 글의 기준(앞잡이)이자 어휘 창고(곳집)로서의 사전을 편찬하는 것 자체였으나, 그러한 사전의 편찬이 어문 규범의 통일, 광복 후 공적 언어생활의 혼란 감소, 분단 이후 남북 언어 이질화 최소화 등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논문의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20세기 이후에 편찬된 우리말 사전은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따라 편찬된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사전은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편찬되었고, 분단 이후 남측 사전은 시대상과 사회상을 반영하고 개정된 규범을 반영하기 위해 편찬되었으며, 분단 이후 북측 사전은 언어 정보 전달이라는 사전 본연의 목적 외에 사회주의 사상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도 편찬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사전 편찬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을 구별할 수 있는데, 애국 계몽 운동의 일환이나 사회주의 사상 교육은 사회적 기능의 측면이 분명한 반면, 시대상과 사회상의 반영이나 개정된 규범의 반영은 편찬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논문의 부제가 '<겨레말큰사전>을 중심으로'라는 점에서 <겨레말큰사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은 당연하지만, 논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3.1.절과 3.3.절의 내용은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목적이나 사회적 기능과는 별 관련이 없는 일반적 현황이다.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목적이 남북 언어의 이질화 극복, 통일 어문 규범 및 문법의 기초자료 제공 등이고,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 국가의 기반 구축 등이 <겨레말큰사전>의 사회적 기능이라면, <겨레말큰사전>의 현황도 일반적 현황보다는 이러한 편찬 목적과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달성되고 수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현황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의 부족한 식견에서 나온 이상의 언급들이 이 논문의 핵심과 본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우문이라면 널리 양해를 바라며, 발표자 선생님의 고견과 현답을 기대한다.

2017 여름 한국사전학회 제31차 전국 학술대회

한글과사전

주제 발표 3부

사전의 현재와 미래
- 사전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

2017 여름 한국사전학회 제31차 전국 학술대회

한글과 사전

말뭉치 언어학과 사전 편찬

발표자: 남 기 심·김 한 샘 (연세대)

토론자: 도 원 영 (고려대)

말뭉치 언어학과 사전 편찬

- 『연세한국어사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

남기심 · 김한샘(연세대)

1. 머리말

말뭉치 혁명에 의한 미래형 사전의 편찬.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새로운 사전 편찬의 흐름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Sinclair(1987)는 Collins의 사전을 미래형 사전(The Dictionary of the Future)라고 일컬었으며, Hanks(2012)는 ‘사전 편찬학에서의 말뭉치 혁명(The Corpus Revolution in Lexicography)’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말뭉치 중심 사전학(corpus-driven lexicography)에 대해 논의하였다. 말뭉치와 사전이라는 언어 콘텐츠는 자연 언어 처리 기술과 접촉하면서 진화해 왔다. 말뭉치는 사전 기술을 위한 정보를 추출하는 대상이고, 사전은 주석 말뭉치를 구축하는 기준이 된다. 자연 언어 처리 시스템을 통해 말뭉치를 자동으로 구축하거나 분석할 수 있고, 말뭉치는 자연 언어 처리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는 실험 대상 역할을 하게 된다. 사전은 자연 언어 처리 시스템의 분석 기준이 되며, 자연 언어 처리 시스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전 기술 내용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검증된다. 말뭉치와 사전, 자연 언어 처리 시스템의 순환적 발전은 각각 말뭉치 언어학과 사전 편찬학, 언어 공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활성화를 이끌고 학문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물었다.

말뭉치를 활용한 사전 편찬이 활성화되면서 학문 영역으로서의 말뭉치 언어학과 사전 편찬학의 소통과 융합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나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말뭉치 언어학의 입장에서 사전은 자료를 기반으로 언어를 기술하는 말뭉치 언어학의 중요한 활용처 중 하나가 된다. 한편 사전 편찬학의 입장에서 말뭉치는 사전의 새로운 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말뭉치를 활용한 사전 편찬 방법론의 대두는 말뭉치 언어학과 사전 편찬학 분야에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제공하였고, 영어 이외의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편찬에도 영향을 미쳤다. 말뭉치를 활용한 사전이 더 이상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 된 오늘의 시점에서 말뭉치 도입 이후의 한국어 사전 편찬의 현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사전 편찬을 위한 말뭉치의 도입

2.1. 말뭉치 활용 사전에 대한 다양한 관점

본격적으로 말뭉치를 활용하여 편찬한 COBUILD(1987)는 공교롭게도 같은 해 출간된 LDOCE의 재판과 비교를 당하면서 시험대에 올랐다. 1988년 창간된 IJL(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에서는 두 사전에 대한 리뷰 논문 3편이 실렸는데, Hanks(2012)에서 언급한 대로 이들 논문에서는 사전 편찬의 첫 번째 중요한 쟁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쟁점은 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말뭉치를 사전에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가와 관련한 것이다. Carter(1989)에서는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전 표제어를 선정한 것이 특별하며 언어 교사를 위한 자원으로 COBUILD의 출판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편 Hausmann & Gorbahn(1989)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뜻풀이 방식, 용례 제시 모두 비전문적인 COBUILD보다 교육학적인 목표로 구성된 LDOCE가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학습자 사전은 평균적인 원어민 화자의 언어 능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Hausmann & Gorbahn(1989)의 주장은 결국 편찬자가 ‘평균적인 원어민 화자의 언어 능력’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객관적인 실제 자료보다는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직관으로 예문을 만드는 것을 비판한 Sampson(2001)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Fillmore(1989)는 COBUILD와 LDOCE의 장단점을 함께 언급하면서 상반된 접근을 인정하고 두 사전을 모두 추천하였다. 30년 전에 출간된 대표적인 영어 학습 사전을 비평하는 데에 기준이 된 요소는 실제성, 전문성, 교육적 타당성이다. COBUILD는 있는 그대로의 언어 자료인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실제성을 추구하였고, LDOCE는 사전 편찬자의 직관과 전통적인 사전 정보 기술 방식을 존중하는 전문성에 방점을 두었다. 재미있는 것은 각각의 지향점이 다른 사전이 모두 교육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쟁은 사전 자체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고 온라인상에서 사전 콘텐츠와 텍스트 데이터의 경계가 희미해진 지금에 와서 무의미해졌지만 교육용 사전으로 범위를 한정할 때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볼 수는 없다.

2.2. 한국어 사전 편찬을 위한 말뭉치의 도입

영어 사전 편찬에 말뭉치를 도입한 것이 획기적인 사건이었음에도 언어학계와 교육학계에 서 저항이 있었던 것과 달리 한국어 사전 편찬사에 있어서 말뭉치의 도입은 사전 편찬 방법론의 선진화로 받아들여졌다. 남길임(2005)에서도 이에 주목하여 편찬 방법론에 따른 국어 사전 편찬의 동향을 정리하면서 말뭉치 활용 여부를 경계로 시기를 나눈 바 있다. 최초의 말뭉치 활용 한국어 사전인 『연세한국어사전』 편찬 이후 일반적인 언어 사전은 대부분 말뭉치를 활용하여 사전 정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교육용 사전들도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였다. 강현화·원미진(2012)은 ‘한국어기초사전’의 용례가 작성레이기는 하지만 말뭉치 검색을 통하여 용례의 쓰임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가장 많은 쓰임을 보이는 언어들을 구 용례로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표현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한샘(2014)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연세초등국어사전』, 『푸르넷초등국어사전』 등의 국어교육용 사전에서도 교과서 말뭉치, 동화 말뭉치 등에서 용례를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말뭉치가 한국어 사전 편찬에 도입된 계기를 설명하려면 그 이전 시기의 사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세영의 『조선어사전』, 한글학회의 『큰사전』,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을 비롯한 초기의 국어 사전 편찬은 일상적 국어생활을 위한 도구로서의 필요성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일본인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언어를 따로 가진, 일본인과 다른 한국인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혹은 우리말을 수습·보존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동기에서, 즉 민족주의적 당위성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앞서 국어의 어휘 자료집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큰사전』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국어사전은 『큰사전』보다 더 많은 어

휘를 수집해서 수록하는 데 힘을 썼다. 사전 편찬자들이 말뭉치가 없던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휘를 수집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이 시기의 국어사전이 ‘위켓(wicket)’, ‘페어리 테일(fairy tale)’, ‘일괴토(一塊土)’, ‘사달이이의(辭達而已矣)’, ‘일장공성만골고(一將功成萬骨枯) 같은 말들을 포함해서 인명, 지명, 전문 용어들까지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때는 사전을 어휘 자료집 또는 문헌 해독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의 국어사전은 모두 백과사전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런 성격을 지닌 데에는 어휘 자료집과 문헌 해독을 돕기 위한 것으로 사전을 인식한 데다가 아직은 지명 사전이나 전문 용어 사전이 없었던 당시 현실에서 이들 지명과 전문 용어를 국어사전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었다. 더 많은 어휘를 수록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본어 사전이나 한어사전에서 내용을 옮겨 실는 일도 흔했다.

이 시기의 사전은 표제어의 의미가 표제어보다 더 어렵게 풀이되어 있기도 했다. 이희승 『국어대사전』에서 ‘배(腹)’의 뜻풀이를 ‘척추(脊椎)동물의 흉강(胸腔)과 골반(骨盤)과의 사이 부분’이라고 한 것이 그 예다. 이어 ‘배’의 뜻풀이에 처음 나오는 ‘척추’를 찾아보면 (1)~(3)과 같이 사전마다 약간씩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고 순환적이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1)은 문세영 『조선어사전』의 풀이인데 한자어인 척추에 대해 고유어로 된 유의어를 제시하는 것으로 뜻풀이를 갈음하고 있다. 한글학회 『큰사전』은 (2)와 같이 한자어 유의어 ‘척주’만을 제시하였는데 ‘척주’를 풀이하는 데에 쓰인 ‘등마루’가 ‘등골뼈가 있는 자리’로 풀이되었기 때문에 결국 ‘척주’를 ‘등골뼈로 된 등골뼈가 있는 자리’로 풀이한 것이 되었다. (3)에 제시한 이희승 『국어대사전』에서의 처리 방식을 봐도 두 개의 한자어 유의어를 제시하는 데에 그친 데다가 유의어 관계인 ‘척주’를 풀이하는 데에 같은 뜻으로 제시되었던 ‘척추골’이 쓰이고 있다.

(1) 『조선어사전』의 ‘척추’와 ‘등마루’ 풀이

- ㄱ. 척추: 등마루.
- ㄴ. 등마루: 등골뼈가 죽 이어진 곳. 脊柱. 脊椎.

(2) 『큰사전』의 ‘척추’와 ‘등마루’ 풀이

- ㄱ. 척추: =척주.
- ㄴ. 척주: 등골뼈로 된 등마루.
- ㄷ. 등마루: 등의 가운데 두두룩하게 줄이 진 부분. 곧 등골뼈가 있는 자리.

(3) 『국어대사전』의 ‘척추’와 ‘등마루’ 풀이

- ㄱ. 척추: 척주. 척추골.
- ㄴ. 척주: 척추골로 이루어진 등마루.

이러한 뜻풀이의 문제는 사전은 ‘일반적인 사전 이용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아주 희박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법 정보도 정확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용감하다’의 ‘용감(勇敢)’과 같은 어근을 세 가지 사전에서 모두 명사로 기술해 놓았다. “영희가 벽에 기대었다.”의 ‘기대다’는 세 사전 모두 타동사 표지를 동반하였다. ‘만들다’는 “충무공이 거북선을 만들었다.”에서와 같이 없던 것을 생성한다는 뜻으로 쓰일 때와, “그들이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었다.”,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와 같이 무엇을 무엇으로 또는 무엇을 어떤 상태로 바꾼다는 뜻으로 쓰일 때의 논항구조 내지 통사구조가 다른데 그런 문법 정보도 갖추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표제어의 실제 쓰임을 드러내는 용례 제시가 전혀 없어서 언어사전으로서의 요건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는 국어생활의 질과 양이 오늘과 달라서 국어사전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드물었을 뿐 아니라, 사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희귀한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거나 특정 단어의 한자 표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혹은 맞춤법에 맞는 표기를 알기 위해서 사전을 찾는 정도였고 오히려 개화기보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도 많지 않을 때였다. 그러나 대중의 국어생활이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크게 바뀌어 가면서 새로운 국어생활에 합당한 사전, 일상적인 국어생활을 위한 생활필수품으로서의 국어사전의 필요성이 점점 제고되고 있었다.

한국 최초로 말뭉치를 활용해 만든 『연세한국어사전』의 편찬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 싹이 텄다. 소통력을 갖춘 바른 국어생활을 돕기 위한 언어사전으로서의 국어사전, 나아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사전이 있어야 했다. 아직 사전학적 지식이 거의 없거나 대단히 빈약하던 상황 속에서 우선 사전학적 견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연세한국어사전』을 기획한 이들은 먼저 유럽사전편찬학회(EURALEX: European Association for Lexicography)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지를 구독하고, 매년 학회에 참여하여 사전학, 사전 편찬과 관련한 견문을 넓혀 가면서, 당시에 가장 많은 표제어를 수록하였으며 가장 최신의 방법으로 만든 OED, 말뭉치를 이용해서 만든 COBUILD 등의 출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그 방면의 지식을 배우고자 했다. 한국어 사전의 편찬에 말뭉치를 도입한 것은 선진적인 사전 편찬 방법론을 따르려는 사전 편찬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도였으며 국내에는 이 흐름에 반대하는 분위기는 없었다. 말뭉치를 활용하는 사전 편찬 방법론에 대한 대립적 논쟁이 없었다는 것¹⁾과 초기 한국어 말뭉치의 구축의 기본 목적이 사전 편찬이었다는 것이 한국어 말뭉치 언어학 도입의 특징이라 하겠다. 최초의 한국어 말뭉치인 연세말뭉치를 활용한 사전 편찬의 사례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 말뭉치 활용 사전의 유형

3.1. 말뭉치 기반 사전과 말뭉치 중심 사전

말뭉치 언어학의 연구 방법론은 연구자의 말뭉치에 대한 관점에 따라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의 말뭉치 기반 연구와 말뭉치 분석 결과를 통해 새로운 가설과 이론을 도출하려는 말뭉치 중심 연구로 대별되는데 말뭉치를 활용한 사전 편찬에서도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존재한다. 사전 기술 내용에 해당하는 용례를 제시하는데에 말뭉치를 활용한 사전과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 기술 전반에 걸쳐 말뭉치를 활용한 사전으로 나뉜다. 전자를 말뭉치 기반 사전, 후자를 말뭉치 중심 사전이라 할 때 말뭉치 도입 이후에 발간된 주요 사전 중 1999년에 발간된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의 초판은 말뭉치 기반 사전으로, 『연세한국어사전』(이하 『연세』)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하 『고려』)은 말뭉치 중심 사전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거시 구조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표준』은 표제어 구성이 복합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에 기반하여 표제어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두 사전에 비해 말뭉치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 표

1) 국내에서 말뭉치를 활용하는 사전 편찬에 대한 논의는 도입 여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아니라 말뭉치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개선 방안에 대한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말뭉치의 구성, 저빈도어의 처리, 말뭉치 주석 등의 관점에서 보완 방안을 제시한 최정도(2011)이다.

제어 구성이 복잡적이라는 것은 『표준』이 북한어, 방언, 옛말 등의 이질적인 어휘 집합을 거시 구조에 포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이 발간된 1999년 당시에는 지역이나 시기 등이 특수한 레지스터를 포함하는 한국어 말뭉치가 구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거시 구조 전체를 말뭉치를 활용하여 설계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북한어, 방언, 옛말을 제외한 표제어를 선정할 때 말뭉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을까? 지침에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구축한 용례 자료’로 표현한 말뭉치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이름과 국립국어원(당시 국립국어연구원)이라는 편찬 주체 때문에 부여된 규범성 때문이었다. 『표준』에 실려 있지 않다고 비표준어인 것은 아니지만 『표준』에 실려 있는 어휘는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표제어의 규범성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편찬 지침에 드러난다.

(4)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지침(1)

- ㄱ. 기존 사전에서 전통적으로 처리가 일치하는 표제어는 특별히 배제할 이유가 없는 한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ㄴ. 기존 사전에서 처리가 서로 어긋나는 표제어는 별도의 원칙에 따라 표준어·비표준어를 판단한다.
- ㄷ. ‘어문 규정집’과 국어연구소의 ‘해설’에 표준어·비표준어의 판정이 내려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ㄹ. 어문 규범 해석의 차이로 기존 사전에서 처리가 다르거나 규범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결정할 때는 ‘사전 편찬을 위한 어문 규범 자문회의’와 ‘어문 규범 소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ㅁ. ‘어문 규정집’이나 ‘해설’의 용례나 해설 부분에 등장하는 단어가 특별히 비표준어로 언급되지 않았다면 표준어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의 ‘표준어·비표준어를 선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표준』에서는 사전 표제어를 전문가의 직관에 의해 선정하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기존 사전의 표제어를 통해 사전 편찬가들의 직관에, 직접적으로는 ‘사전 편찬을 위한 어문 규범 자문회의’와 ‘어문 규범 소회의’를 통해 국어학자들의 직관에 기대어 표준어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그대로 사전에 반영한 것이다. 북한어 표제어는 『조선말대사전』, 옛말은 『고어 사전』, 『이조어 사전』, 『우리말 큰사전』(옛말편)의 표제어를 실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5)는 제한적으로 거시 구조를 기술하는 데에 말뭉치를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지침 항목이다.

(5)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지침(2)

- ㄱ. 기존 사전에 없던 새로운 말을 표제어로 올리는 것은 표준어를 구사한 작가의 작품에 나오는 것이나 일반에 널리 쓰이는 것에 한정한다. 단 이 경우라도 어문 규범의 원리와 전통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ㄴ. 고어 표제어의 선정은 (중략),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19세기까지의 문헌에 나타나는 어형을 선정의 대상으로 삼되, 용례나 새로 발견된 문헌을 통해 새로운 어형이 발견되면 그 어형도 선정 대상으로 삼는다.

최초의 말뭉치 활용 사전인 『연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할 것이므로 말뭉치 중심 사전으로서의 『고려』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려』의 집필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 전반에 걸친 특징을 소개한 도원영·차준경(2009)에 의하면 『고려』의 거시 구조는 말뭉치에서 용법이 확인되는 어휘를 사전 표제어로 등재함으로써 현실 국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앞서 살펴본 『표준』과 달리 빈도가 높은 비표준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어와 기존 사전의 미등재어를 적극적으로 등재하였다는 점에서 말뭉치 중심 사전 편찬 방법론을 충실히 적용하였다. 1억 어절 규모의 한국어 말뭉치를 구축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제어를 선정하였는데, 원시 말뭉치, 형태 분석 말뭉치뿐만 아니라 한자어 포함 텍스트, 문학 텍스트, 민속 텍스트, 신어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미시 구조를 기술하는 데에 있어서도 표제어 배열을 말뭉치 용례 출현 여부로 결정하거나 말뭉치 빈도에 근거해 다의어, 문형을 배열하는 등 각 어휘 항목의 언어 정보를 기술하는 체계부터 말뭉치에서 근거를 찾았다. 용례와 어원 정보를 제시하는 기초 자료가 말뭉치였던 것은 물론이다. 말뭉치 중심 사전으로서의 공통점을 가진 『연세』와 『고려』의 특징을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 전반에 걸쳐 비교한 연구로 유현경(2012)가 있다.

3.2. 원시 말뭉치 활용 사전과 주석 말뭉치 활용 사전

앞서 언급한 대로 『연세』 이후 일반 국어사전, 국어교육용 사전 등에서 말뭉치를 활발하게 활용해 왔는데 주로 원시 말뭉치의 용례 색인에 의존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2000년대 후반까지 한국어 말뭉치가 양과 질의 측면에서 발전해 온 결과는 표제어의 범위나 레지스터에 제한을 두어 심도 있게 기술한 사전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한국어 중의 어절 사전』(2008),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 빈도 사전』(2014), 『한국어 구어 빈도 사전』(2015), 『학습용 기본명사 연어 빈도 사전』(2016) 등은 각각 형태 분석 말뭉치, 어휘 분석 말뭉치, 다의어 분석말뭉치 등의 주석 말뭉치의 분석 결과를 활용한 사전들이다. 『한국어 중의어절 사전』(2008)은 21세기 세종계획의 국어 기초자료 구축 분과에서 구축한 550만 어절 규모의 형태소 분석 말뭉치에서 어절 자료를 추출하여 기술한 사전이다. 명사와 조사의 결합, 동사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 의한 어형 변화의 복잡성 때문에 단어의 기본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국어의 중의성을 탐구를 위해 어절 단위의 형태 정보를 상세히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표제어의 선정 기준은 유혜원 외(2006)에 기술되어 있다.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 빈도 사전』(2014)은 100만 어절의 한국어 균형 말뭉치 중 10개 이상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빈도 15 이상의 어휘를 표제어로 하여 동형어 수준에서 7203항목의 어휘를 수록하였다. 의미 빈도를 산출하기 위해 의미 항목을 구분하는 체계는 『연세』의 다의어를 기준으로 삼았고, 다의어 주석을 부착한 ‘한국어교육 표준말뭉치’의 빈도 조사 결과를 어휘 중요도와 함께 사전의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한국 최초로 다의어 수준까지 의미를 분석한 말뭉치를 구축하고 사전 편찬에 활용한 사례는 서상규·김진웅·김한샘(2001)에서 처음 보고되었고, 사전이 편찬된 뒤에 서상규·김진웅(2017)에서 활용 방안까지 제시되었다. 『한국어 구어 빈도 사전』(2015)은 1992년에서 2005년 사이에 녹음된 음성을 전사한 실제 구어 자료인 ‘연세 구어 말뭉치’ 100만 어절에서 고빈도 어휘 33,701항목을 선정하여 표제어, 품사, 뜻 구별을 위한 정보(원어 정보, 연어 정보), 비율과 빈도, 순위 등의 통계 정보를 제시한 사전이다. ‘연세 구어 말뭉치’의 구축에 대해서는 서상규 외(2013)에 자세히 밝혀져 있다. ‘연세한국어사전’을 기준으로 하여 동형어 변별 수준의 형태 의미 분석 말뭉치를 구축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학습용 기본명사 연어 빈도 사전』(2016)은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어휘 분석 말뭉치 300만 어절을 재가공하여 한국어 학습용 기본 명사와 결합하는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의 빈도와 결합 강도를

산출한 결과를 보였다. 더불어 용언의 어간형을 표제어로 삼아, 이와 결합하는 명사의 굴절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어휘 분석 말뭉치의 구축 방법은 김한샘(2004)에 정리되어 있고, 한영균(2009)에서는 이를 활용한 한·일 기본어휘의 연어 구성 대조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4. 최초의 말뭉치 중심 한국어 사전으로서의 『연세한국어사전』 편찬

4.1. 『연세한국어사전』의 편찬을 위한 연세 말뭉치의 구축과 분석

『연세』의 편찬은 1986년 10월 한글날을 기하여 290인의 연세대 교수가 공동으로 「새 한국어 사전 편찬 발의문」²⁾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바로 이어서 ‘한국어사전편찬회’가 조직되었으며 1989년에 이르러 연세대학교에 ‘한국어사전편찬실’이 설립되었다. ‘한국어사전편찬회’의 조직은 기존 사전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고 사전의 편찬을 민족 문화의 발전의 맥락에서 보았다는 점에서 ‘조선어사전편찬회’의 결성과 닮아 있다. 한편 ‘한국어사전편찬회’가 국어 학자로만 구성되지 않았고 대학의 차원에서 활동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변별된다. 『연세』의 편찬을 위한 한국어 말뭉치의 구축은 1986년 ‘한국어 사전 편찬회’가 발족함과 동시에 준비를 시작하였고, 1988년에 말뭉치 설계를 주도한 교수의 이름을 딴 ‘정찬섭 말뭉치’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던 ‘연세 말뭉치 I’의 구체적인 표본 선정에 들어감으로써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말뭉치의 구축 목적이 『연세』의 편찬이라는 것은 <새 한국어 사전 편찬 발의문>에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새 한국어 사전 편찬 발의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심으로 비로소 우리 겨레가 진정한 뜻의 우리 문화를 향유하게 되었음이 새삼 감격스럽다. 문자는 한 겨레의 말을 기록, 전달, 보존할 뿐 아니라 감정과 생각을 고르고 다듬어 더 바르고 깊고 넓게 하여 주는 까닭에 겨레의 삶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릇이다. 한글 덕택으로 우리 겨레가 과거와 현재는 물론 무궁한 미래에 걸쳐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문화를 누리게 된 행복을 어찌 다 형언하라! (중략)

이 큰 일은 한두 사람이 짧은 시일 안에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각고 끝에 이루어진 우리 말 사전들의 모든 성과와 우리 말 연구의 업적을 발전적으로 수용하면서, 현대의 사전 편찬에 구체적으로 응용할 방법을 마련하고, 오늘날 서지학적, 문헌 정보학적 지식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지금까지 **①우리 겨레가 우리 말로 쓴 글**에서 직접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가능한 한 모든 어휘에 대한 정확한 언어학적 기술과, 그 어원, 최초 사용 시기, 출전, 의미의 변천 과정 등을 풍부한 용례와 함께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일은 일반 출판사의 편집 능력을 훨씬 벗어난다. 뿐만 아니라, 최대한의 자주적 창조성이 요구되는 일이므로 각 영역에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이들이 장기간 대거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대한 자료의 신속·정확한 수집, 정리, 보존을 위하여, 그리고 **②정보의 원천으로서의 사전이 책으로 인쇄될 뿐 아니라 전산화될 것에 대비하여, 최신 전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후략)

2) 원문은 『연세』에 <연세 한국어 사전 편찬 발의문>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①의 ‘우리 겨레가 우리 말로 쓴 글’이 바로 연세말뭉치이고, ②를 실현한 것이 ‘말쪼개기’라는 형태소 분석기와 ‘말씀’이라는 용례 검색기, ‘말꾸러미’라는 사전 원고 관리 시스템이었다. 연세 말뭉치는 『연세한국어사전』과 (가칭)『연세한국어대사전』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을 고려하여 구축되었다. 먼저 1950년 이후의 국어 말뭉치를 구축하기로 하고, 언중이 일상 접하는 신문, 잡지로부터 시작하여 도서관의 대출 빈도가 높은 출판물을 장르별로 배분하여 말뭉치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1950년 이전 출판물이 재판된 것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선 1950년대 이후의 현대 국어사전을 먼저 만들고 차츰 그 이전 시기로 올라가면서 옛 우리 말까지 모두 아우르는 큰 사전을 만들 계획이었다. 말뭉치의 구축이 현대 이전 시기로 올라가면서 여러 중간 단계를 거치면 그것이 쌓여 현존 어휘의 표기법의 변천, 의미의 변화 과정, 최초 용례, 시대별 용례의 추적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국어사적 정보를 모두 수록한 사전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었다. 만약 그 사이, 혹은 그 후에도 알타이어의 공통 조어를 재구하는 비교언어학적 성과가 나타나면 수록 어휘의 어원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춘 완성된 국어사전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이것이 최종 목표였다.

『연세』이 완성될 때까지 연세말뭉치는 순차적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일련번호를 매겨서 구분을 하였다. ‘연세말뭉치 1’에서부터 ‘연세말뭉치 9’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연세대학교에서 말뭉치의 개념을 한국에 처음 도입하였으므로 ‘연세말뭉치 1’이 한국 최초의 말뭉치이다. 말뭉치 구축 경험과 전산적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구축하였기 때문에 ‘연세말뭉치 1’은 몇 가지 불완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연세말뭉치 1’은 100만 어절의 말뭉치를 구축하기로 하고 대표성과 균형을 고려해 매우 상세하게 설계하였다. 그러나 연구비가 늘어나면서 말뭉치의 양을 300만 어절로 확대하면서 애초에 설계했던 텍스트 장르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했고, 말뭉치의 입력을 외부 용역 회사에 맡겼다가 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300만 어절을 채우지 못하고 70만여 어절이 누락되었다. 이후 300만 어절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말뭉치를 구축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300만 어절을 다 채우지 못하고 288만 어절을 구축하는 데에 만족해야 했다. 연세 말뭉치는 자료의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어휘 빈도를 조사하기 위해 복합어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하였고, 맞춤법도 어문 규정에 맞게 바로 잡아 입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연세말뭉치 1’은 어휘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힘들게 되었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후의 연세말뭉치를 구축할 때는 원본을 보존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충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구축한 ‘연세말뭉치 1’은 현대 한국인의 독서 실태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해 설계한 균형말뭉치이고, 뒤이은 ‘연세말뭉치 2’는 문헌정보학적 방법을 응용하여 각 주제 분야별 도서 대출 빈도를 참고하여 구축되었다. ‘연세말뭉치 3’은 1980년대 우수 출판물 목록에서 표본을 선정하였고 ‘연세말뭉치 4’는 실제 발화를 전사한 구어 전사 자료와 희곡, 대본 등의 준구어 자료로 구성되었다. ‘연세말뭉치 5~7’은 시대별 말뭉치로 1970년대 문헌을, ‘연세말뭉치 6’은 1960년대 문헌을, ‘연세말뭉치 7’은 1990년대 문헌을 수집하였다. ‘연세말뭉치 8’은 교과서 텍스트를 모은 것이다. 규모는 87만 어절이다. 연세말뭉치 9는 초등국어사전을 편찬하는 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아동교육용 도서를 수집한 것이다. 연세말뭉치 1~9의 특징과 규모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표 1> 『연세한국어사전』 편찬을 위한 연세말뭉치 일람

번호	말뭉치	특징	규모 (어절)
1	연세 말뭉치1 (균형말뭉치)	연세 말뭉치 중 가장 이르게 구축된 말뭉치로, '현대 한국인의 독서 실태'에 관한 설문 조사에 의해 구축된 균형 말뭉치.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표본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에서는 교과서의 배제 또는 표집 비율 조정, 문제 번역물의 표집과 관계된 문제, 독서물의 유목 분류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반인 조사'에서는 전문가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구축됨.	290만
2	연세 말뭉치2 (균형말뭉치)	도서 대출 빈도에 따른 균형 잡힌 말뭉치를 구성할 목적으로 주제별 선정 기준을 사용함. 문헌정보학적 방법을 응용한 것으로, 가능한 모든 주제 분야의 낱말이 망라되도록 하기 위해 듀이 십진 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을 이용하여 한국어 문헌을 크게 열 가지 대범주(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언어학, 순수과학, 응용과학, 예술, 문학, 역사 등의 분야)로 나누어 수집함. 또한 도서의 대출 빈도는 각 낱말의 인지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는 전제 아래, 주로 1987~1988년의 도서를 대상으로 대출빈도가 높은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234개의 표본을 선정하여 1990년~1988년에 걸쳐 구축됨. 총류(7.8%), 철학(9.9%), 종교(10.7%), 사회과학(12.8%), 언어(5.7%), 순수과학(11%), 응용과학(11.7%), 예술(8.1%), 문학(11.2%), 역사(11.3%) 등의 주제별 구성으로 구축되어 있음.	110만
3	연세 말뭉치3 (1980년대 말뭉치)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문헌에 각 낱말의 인지도가 간접적으로 반영된다고 보고, 1980년대 우수 출판물 목록에서 표본을 선정.	598만
4	연세 말뭉치4 (1990년대 입말뭉치)	실제 사용된 입말을 녹음하여 전사하는 '순수 입말'(구어)과, 희곡, 방송 대본, 시나리오 따위를 중심으로 한 '버금 입말'(준구어)로 구성. 대화(26%), 강연(24%), 상담(14%), 희곡·대본(13%), DJ방송(13%), 토론(8%), 회의(2%),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글말뭉치와는 달리, 여기에는 발화자 참여자의 나이, 성별, 직업에 대한 정보, 발화참여자의 수와 발화의 성격, 전사자의 정보, 녹음시간 정보 등이 덧붙여져 있음.	77만
5	연세 말뭉치5 (1980년대)	1970년대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교과서에서 신문에 이르는 다양한 문헌 자료로 구성함. 1970년대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신문(10%), 소설·수필(50%), 일반 서적(35%), 교과서(5%), 등의 문헌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구축됨.	860만
6	연세 말뭉치6 (1960년대)	해방 이후의 우리말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한 말뭉치 구축을 위해, 1960년대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말뭉치를 구축함.	723만

7	연세 말뭉치7 (1990년대)	1990년대 중반까지의 자료로 주로 소설과 수필로 이루어져 있음. 1994년부터 1995년에 걸쳐 구축됨.	1,367만
8	연세 말뭉치8 (교과서)	초등학교 전 과목 및 중·고등학교의 국어, 사회를 중심으로 구성. 제5차, 제6차 교과과정을 포함함.	87만
9	연세 말뭉치9 (아동 도서)	순 우리말의 사용 빈도가 높고 문장도 비교적 우리말의 구조에 맞게 사용되는, 아동 교육용 도서 중에서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여, 1996년에 구축됨.	150만
합계			4262만

4.2. 『연세한국어사전』의 거시 구조

『연세』은 우선 일상적 언어생활의 필수 도구로 갖추어야 할, 언어사전으로서의 국어사전 편찬을 목표로 말뭉치를 구축하여 사용빈도 순으로 50,000개의 단어를 표제어로 삼기로 하였다. 사전 편찬을 준비하면서 한국어를 기술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휘의 규모를 설정한 것이다. 이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표 1>과 같이 구성된 약 4,300만 어절의 말뭉치에서 빈도 14 이상인 어휘 목록을 추출하여 1차적인 표제어 후보 목록으로 삼았다. 이 당시의 어휘 목록은 자연 언어 처리의 한계로 인해 품사 범주까지만 중의성이 해소된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형태 목록이었다. 예를 들어 『연세』에 ‘배’가 명사 5 항목, 의존명사 1 항목, 접미사 1 항목을 합해 총 7 항목의 동형어로 기술되어 있으나, 표제어 선정을 위해 추출한 어휘 목록에는 명사 ‘배’, 의존명사 ‘배’, 접사 ‘-배’의 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말뭉치의 형태 분석 결과에 의해 1차로 선정된 고빈도 어휘 목록은 말뭉치의 용례 분석을 통해 다듬었다. 동형어가 존재할 경우에는 항목의 수가 늘어나고 형태 분석이 잘못된 경우에는 항목이 줄어들기도 하면서 구체적인 표제어의 목록이 확정되었다. 『연세』의 거시 구조에서 눈여겨 볼 것은 철저하게 말뭉치를 근거로 표제어를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비표준어라고 하더라도 빈도가 높은 것은 표제어로 실었고, 한자어 중 순화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일본어 투 생활 용어도 뜻풀이와 용례를 일반적이 표제어와 다를 바 없이 기술하되 일본어 투라는 것만 참고 정보로 제시하였다. 똑같이 순화 대상어를 표제어로 실었다고 하더라도 기술 사전인 『연세』와 규범 사전인 『표준』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6ㄱ)과 (6ㄴ)의 예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6ㄱ)은 일반적인 표제어와 같이 뜻풀이, 용례를 모두 제시하고 일본식 용어임을 참고 정보로 제시한 반면 (6ㄴ)은 뜻풀이나 용례 없이 순화어만 제시하였다.

(6) 『연세』와 『표준』의 순화 대상어 기술

ㄱ. 땡땡이³뿔 같은 바탕에 작은 동그라미를 일정한 사이를 박은 무늬. ◻지난 여름에는 땡땡이 무늬의 긴 치마가 유행했었다. ◻물방울 무늬의 일본식 용어.

ㄴ. 땡땡이³뿔 ‘물방울’, ‘물방울무늬’로 순화.

4.3. 『연세한국어사전』의 미시 구조

『연세』에서는 기존 사전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문법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했다. 예컨대, ‘밝다’는 ‘달이 밝다.’, ‘이쪽 방이 더 밝다.’에서와 같이 ‘환하다’의 뜻으로도 쓰이고, ‘그 사람이 한국 역사에 밝다.’에서와 같이 ‘잘 안다’의 뜻으로도 쓰이는데 ‘환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가/이) 밝다]와 같은 격틀을 가지되 [--가/이)의 자리에는 ‘해’, ‘달’, ‘촛불’ 등과 같은 발광체를 나타내는 명사 또는 일정한 넓이를 가진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쓰인다. ‘밝다’가 ‘잘 안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가/이 --에 밝다]와 같은 격틀을 가지되 [--가/이)의 자리에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에)의 자리에는 ‘역사’, ‘지리’, ‘사정’ 등과 같은 지식 영역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게 된다. 『연세』에서는 이러한 문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기존 사전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2단 편집을 시도하였고, 격틀이 같은 다의어를 묶는 구분자로 로마자를 사용하였다. 위의 ‘밝다’의 다의어별 문법 정보를 일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p>I</p> <p>① 환하다</p> <p>㉠ (어떤 물체가 내는 빛이) 환하다.</p> <p>㉡ (빛을 충분히 받아 어떤 곳이) 환하다.</p>	<p>□I이 밝다</p> <p>㉠□I해 · 달 · 빛 · 조명 · 광선 …</p> <p>㉡□I 장소명사</p>
--	---

모든 동사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격틀과 논항 정보를 주었는데, 이는 말뭉치의 용례를 충실히 분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말씀’으로 검색한 용례를 분석하여 문법을 기술하면서 분석 대상 말뭉치 용례 중에 해당 어휘의 쓰임을 잘 보일 수 있는 용례를 골라서 사전에 제시하였다. 말뭉치에서 엄선한 실제 용례들은 표제어가 어떤 자리에 어떤 말들과 어울려 쓰이는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해 준다. ‘물’은 ‘마시다’, ‘뿌리다’ 등의 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는 일반적인 ‘물’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건너다’, ‘빠지다’의 격틀 속에서 쓰이면 ‘강’, ‘바다’ 등의 뜻을 가진다. 이러한 사실들을 비롯해서 용언의 여러 논항 정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용례의 제시가 필수적이다. 모든 표제어에 대해서 그리고 다의어일 때는 의미가 달라질 때 반드시 용례를 보였다. 말뭉치 용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류의 어휘군을 발견하여 이를 나타내기 위한 표지를 부여하기도 했다. 『연세』의 품사 체계와 용어는 원칙적으로 맞춤법 통일안과 학교 문법 체계를 따랐다고 되어 있으나 홀로 자립해서 쓰이지 못하고 새로운 낱말이나 구를 만드는 데에만 쓰이는 어휘를 ‘형성소’라는 범주로 따로 묶어서, 품사를 나타내는 약물이 올 자리에 (형성)이라는 약물을 넣고 의미와 기능에 맞추어 관형사처럼 풀이하였다. (7)은 대표적인 형성소이다. (7ㄴ)의 ‘원시’는 원시 사회, 원시 시대 등 형성소를 포함하는 고빈도 구를 부표제어로 삼아 뜻풀이와 용례를 제공하였다.

(7) 『연세』의 형성소 표지 부여의 예

- ㄱ. 간이 (형성) (정규 시설이 아니라)어떤 시설의 기능이나 목적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만을 간단하게 갖춘. ¶ 유원지로 꾸며진 다리 주변 뚝에는 비닐 천막으로 만들어진 간이 주점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 ㄴ. 원시 (형성) ①처음 생긴 그대로 있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원시는 대부분 말을 아름답게 쓴 정형시인데, 번역시는 생경한 어구를 산만하게 늘어놓았다. ②자연 그대로 있어 아직 진보나 변화가 없는. ¶ 그 오지에는 아직도 원시 상태의 생활을 하는 종족들이 살고 있다.

말뭉치 중심 사전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미시 구조는 연어에 대한 정보이다. 『연세』는 ‘문법 용어 풀이’에서 연어를 ‘명사가 어느 특정한 동사와 잘 어울려 쓰이는 공기 관계를 나타낸 구조’로 정의하고 주요 명사에 연어 정보를 제시하였다. ‘눈’에는 ‘~을 감다/뜨다’를 ‘입’에는 ‘~을 다물다’를 연어 정보로 제시하여 각각의 명사가 ‘닫다’의 의미인 동사로 어떤 것을 취하는지 변별하여 알 수 있게 하였다.

말뭉치의 활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연세』는 발음의 표시도 기존 사전과 다른 방법을 취했다. 용언이 활용할 때나, 명사가 조사와 결합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 현상에 따른 발음을 표시하기 위해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닭[닥], 닭이[달기], 닭만[당만]”과 같이 표시했으며, 용언의 경우에는 “덥다[덥:다], 더운[더운], 더워[더워], 덥습니다[덥습니다]”와 같이 표시했다. 조사나 어미가 어떤 소리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음운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음성 환경을 제공하는 조사, 어미를 골라 그 발음의 변동을 보인 것이다. ‘덥다’의 예와 같이 용언의 어간이 긴 소리일 때, 그 긴 소리가 ‘-어/아’로 시작되는 어미, 곧 ‘-어/아서, -어/아야, -어/아도, -었/았-’ 앞에서는 없어지므로 이러한 발음 양상을 활용형과 함께 보였다. 이더 어미는 변칙용언의 음운 변동을 보이는 데도 쓰인다.

5. 맺음말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의 사전은 문헌 해독을 돕기 위한 기능과 바른 표현을 돕기 위한 기능을 갖춘 것을 일컫는다. 하나의 사전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것이 편리하겠지만 이 두 가지 기능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사전의 편찬 방식과 고려 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이 다른 사전이 별개로 존재할 수도 있다. 나아가, 국어를 우리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모두 수록·보존하기 위한 어휘집으로서의 큰 사전, 거기에 현존 어휘의 소리, 문법, 의미가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이는 더 큰 사전도 있을 수 있다. 비록 대중성은 약하겠으나 궁극적으로 언어 문화의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사전도 반드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어떤 종류의 사전을 만들든지 편찬자의 직관에 의존하여 어휘 정보를 기술하는 시대는 저물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말뭉치 구축의 목적이라면, 이를 활용해서 언어 정보를 추출하고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사전 편찬의 목적이다. 이 발표는 한국어 사전 편찬과 관련해 말뭉치가 도입된 계기와 활용 결과를 논의하는 데에 초점이 있지만, 분석할 언어 자원의 양과 언어 자원을 분석할 기술의 한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실제 언어 자료를 활용하는 사전의 편찬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도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참고문헌

논문

- 강현화·원미진. 2012. 한국어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기초사전』 구축 방안 연구, 『한국사학』, 7~30쪽
- 김한샘. 2004. 「국어 어휘 분석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 『한말연구』 14, 한말연구학회, 117~145쪽.
- 김한샘. 2014. 「초등국어사전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한말연구 35, 한말연구학회, 47~76쪽.
- 김한샘·서상규. 1999. 「말뭉치의 구성과 가공 :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 『언어정보개발연구』 1,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74~104쪽.
- 남길임. 2005. 「말뭉치 기반 사전 편찬의 동향과 지향 방향-최근 30 년간의 사전 편찬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16, 한말연구학회, 75~98쪽.
- 도원영, 박주원 편. 2011. "<고려대 한국어대사전>과 사전학." 지식과 교양, 13~54쪽
- 도원영·차준경. 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종합적 고찰」, 민족문화연구 5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54쪽.
- 서상규 외. 2013. 『한국어 구어 말뭉치 연구』, 한국문화사.
- 서상규·김진웅. 2017.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 빈도 사전』의 개발 그리고 한국어 어휘 연구 활용 방안. 언어 사실과 관점.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1 ~30쪽.
- 서상규·김진웅·김한샘. 2001. 「Yonsei Sense Frequency Dictionary Based on Sense-tagged Corpus」, 『사전 편찬학 연구』 11, 언어정보연구원, 19~38쪽.
- 유현경. 2012. 『연세 한국어사전』과 『고려대 한국어대사전』비교 연구. 『한글』 295. 35 ~ 71쪽.
- 유혜원, 남경완, 홍종선. 2006. 한국어의 형태론적 중의 어절 사전 구축과 표제어 선정. 『한국어학』 31. 279~313쪽.
- 이상섭. 1995. 「말뭉치 : 그 개념과 구현」, 『사전편찬학연구』 5.6, 7~28쪽.
- 최정도. 2011. 「말뭉치를 이용한 사전 편찬에서의 몇 문제에 대하여」. 언어사실과 관점 2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237~276쪽.
- 한영균. 2009. 코퍼스에 기반한 한·일 기본어휘의 언어 구성 대조 분석 연구. 『국어학』 55호. 55~104쪽.
- Carter, R. 1989. Review Articles: LDOCE and COBUILD.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2(1), 30~43.
- Fillmore, C. J. 1989. Two dictiona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2(1), 57~83.
- Hanks, P. 2012. The corpus revolution in lexic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25(4), 398~436.
- Hausmann, F. J., & Gorbahn, A. 1989. COBUILD and LDOCE II A comparative

- review1. *International Journal of Lexicography*, 2(1), 44~56.
- Sampson G. 2001. *Empirical Linguistics*, 2001, London: Continuum
- Sinclair, J. M. (Ed.). 1987. *Looking up: An account of the COBUILD project in lexical computing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llins COBUILD English language dictionary*. Collins Ltd.

사전류

- 고려대학교. 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 편.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금성출판사 사전팀. 2009. 『푸르넷초등국어사전』, 금성.
- 금성출판사. 2001. 『푸르넷초등국어사전』, 두산동아.
- 남광우. 1960. 『고어 사전』, 동아출판사
- 문세영. 1938. 『조선어사전』, 朝鮮語辭典刊行會.
- 사회과학출판사. 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서상규. 2014.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 빈도 사전』, 한국문화사.
- 서상규. 2015. 『한국어 구어 빈도 사전』, 한국문화사.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2004. 『연세 초등국어사전』, 두산동아.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2007.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유창돈. 1964. 『이조어 사전』, 延世大學校出版部.
- 이희승. 1961.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 한글학회. 1957. 『큰사전』, 을유문화사.
- 한글학회. 1994. 『우리말 큰사전(옛말편)』, 어문각.
- 한영균. 2016. 『학습용 기본명사 연어 빈도 사전』, 한국문화사.
- 홍종선·남경완·유혜원·이동혁. 2008. 『한국어 중의 어절 사전』, 태학사.
- Cobuild, C. (1987). *English usage*. Harper Collins Publishers.
- LDOCE, F. (1987).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2nd edition*. Ed. Delia Summers. Harlow: Longman Group Ltd.

“말뭉치 언어학과 사전 편찬”에 대한 토론문

도원영(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위 논문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국내외 말뭉치 구축과 이를 토대로 한 사전 편찬의 쟁점을 정리하고 단계별 특징과 성과를 짚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뭉치 활용 사전의 유형을 말뭉치 기반 사전과 말뭉치 중심 사전, 원시 말뭉치 활용 사전과 주석 말뭉치 활용 사전으로 구분하고 특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사전 편찬사에 한 획을 그은 『연세한국어사전』에 대해 그 토대가 된 연세 말뭉치의 특징과 규모, 구축 과정, 그리고 사전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 사전에서 볼 수 없었던 사전학적 도전과 성과에 대해 다시 한번 새기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전학 연구자, 사전 편찬자로서 뿐만 아니라 국어학자로서도 말뭉치 언어학을 선도하고 그 성과를 담아낸 『연세한국어사전』을 비롯한 여러 사전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 공감하는 바입니다. 논문의 내용 중 발표자에게 좀더 듣고 싶은 내용을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2.2에서 말뭉치 도입 이전의 국어사전이 가진 목적과 특징, 그리고 한계에 대해 분석하면서 <조선어사전>(1938), <큰사전>(1947~1957), <국어대사전>(1961)을 예로 드셨습니다. 출간 시기나 시대적 특징, 편찬의 목적과 규모 등에서 세 사전은 각각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큰사전> 이후로 백과사전적 성격이 뚜렷해졌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한 표제어보다 더 어려운 뜻풀이가 편찬자 중심 사전의 전형적인 특징임을, 이용자인 언중을 배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동의합니다. 예로 드신 어려운 뜻풀이나 순환적 풀이, 어려운 뜻풀이가 말뭉치 이후 사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말뭉치 중심 사전에서는 뜻풀이 어휘 수를 통제하는 방법을 통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3.1에서 말뭉치 기반 사전의 예로 드신 <표준국어대사전>의 경우 거시 구조의 차원에서 기존 어휘 자원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셨는데요, 미시 구조에서 특히 용례의 경우 인 용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대사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은 1999년에 출간한 종이사전 이후 2008년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개정증보판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신어나 미등재어의 추가, 뜻풀이, 용례 등의 정보를 수정·보완해 왔습니다. 추가와 삭제, 수정 및 보완 등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과정은 주요 말뭉치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표준국어대사전>은 말뭉치 중심 사전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7 여름 한국사전학회 제31차 전국 학술대회

한글과 사전

지식 포털과 온라인 사전

발표자: 장 경 식 (브리태니커)

토론자: 이 기 황 (다음소프트)

지식 포털과 온라인 사전

-편찬 방법론의 변화를 중심으로

장경식(브리태니커/한국백과사전연구소)

1. 머리말

이 글은 지식 포털과 온라인 사전에 대하여, 특히 편찬 방법론의 변천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러나 이 학술대회가 사전 편찬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의 사전을 조망하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 포털과 온라인 사전이라는, 실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주제에 대하여 편찬 방법론의 기술적 디테일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변화가 뜻하는 바에 관심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의미가 사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역시 중요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디지털과 인터넷은 “구글(Google)”과 같은 검색 플랫폼과 “위키피디아(Wikipedia)”와 같은 유사 사전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에 대한 혁명적인 차원을 제시했다. 국내외의 검색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치면, 관련 정보가 홍수를 이룰 만큼 넘쳐난다. 게다가 ‘사전’이라는 이름이 명시적이든, 상징적이든 붙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무료로 검색 가능하다. 이 모든 정보들이 또한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대개 두어 개의 주요 포털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를 우리는 “지식 포털”이라고 부른다.

“온라인 사전”은 기본적으로 사전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전을 의미한다. 초기의 많은 사전들이 디지털화 작업을 거쳐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었다. 개별적인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전은 그대로 인쇄본 사전의 연장이었으며, 기술적 확장에 불과했으므로 사실상 편찬 방법의 변천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기술적 진보의 외피를 입었을 뿐 큰 차이는 없었다.¹⁾ 하지만 이 “온라인 사전”이 검색엔진이나 “지식 포털”을 통해 검색되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공력이 들어간 여러 ‘사전’이 책이라는 물성을 잃고 디지털로 전환되어, 텍스트로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여러 다른 정보와 하나의 검색 창 속에 융해되는 순간, 개별적인 편찬 주체의 이름에 의해 독자적인 정체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다양한 미시/거시 구조로 완결된 지식의 세계를 제공했던 사전들은 ‘검색’이 제공하는 하나의 이름 속에서 구조를 잃고 분자 단위로 해체되어 단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졌다. 물론 검색결과에서 항목의 끝에 출전을 밝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출전으로서의 개별성을 유의미하게 인식하지 않는다. 사용자들에게 이 세상의 사전은 이제 “네이버 사전”이나 “다음 백과”, “구글 검색”으로 인식되고 인용된다. 시인 김춘수가 밝혀 말했듯, 모든 것은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비로소 존재한다. 이름이 사라진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사전’이나 ‘백과사전’이 사회적으로 갖는 효용성과 가치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갖고 있는 편찬자에 의해 선별되고 체계를 갖추어 집약된 메타 지식의 집적물이었기 때문이다. 사전의 편찬 방법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까닭은, 그것이 지식과 정보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구체적인 대상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며, 그 사이에 사전이 놓인 사회적 상황과 기술적 배경, 사용자의 효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1) 만일 이런 의미의 “온라인 사전”이 이 글의 대상이라면,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글은 그 기술적 진보를 다루는, 단순한 글이 될 가능성이 많겠다. 그러나 “지식 포털”과 함께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의 “온라인 사전”은 그 표상이 아니라 현상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편찬 방법의 변천에 대한 논의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비평적 관점을 배경으로 놓지 않으면, 자칫 종이 사전이었을 때의 사전 편찬 기술이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떻게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는가에 대한 맹목적 찬사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 찬사의 끝에서, 검색 기술과 인공 지능의 극단적인 발달이 견인하는 사전과 사전학의 종언, 디스토피아가 잠복해 있다는 불온한 예감과 마주치게 된다.²⁾

여기에 제시된 주제가 이처럼 포괄적이고도 상징적인 만큼, 이 글은 상당한 비평적 입장을 전제로 씌어졌으며, 또한 다양한 인접 분야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발제, 발표되었던 내용과 여러 면에서 겹쳐질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한다.

2. 사전 편찬이라는 “일”

지식 포털과 온라인 사전이라는 ‘사전의 새로운 양상’에 대한 편찬 방법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전 편찬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 편찬이 어떤 전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과정과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비교 대상이 될 전통적인 사전 편찬의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지식 포털과 온라인 사전의 편찬 방법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전이나 백과사전은 오랫동안 ‘지식의 표준’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생산되고 소비되어 왔다. 개발을 위해서는 출판 분야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까닭에 흔히 ‘출판의 꽃’이라고 불리었던 사전이나 백과사전은 그 규모와 전문성 때문에 단기적, 소자본으로 편찬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편찬에 있어서도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했다. 따라서 전통적인 사전 편찬은 편찬자의 단순한 열정뿐 아니라, 편찬의 목적과 사용자의 효용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가. 사전 편찬의 전제

계몽주의 시대 이래 사전의 정의는 크게 바뀌지 않은 듯하다. 계몽주의 시대 ‘사전’의 정의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언어의 모든 단어를 배열하고 각 단어에 정의 또는 설명을 붙인 책. 예술과 과학이 향상되고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전문적인 용어들도 편찬자의 관점에 따라 일반 과학이나 특정 분야의 사전들로 편찬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³⁾(DICTIONARY, 브리태니커 초판, 1768)였으며, ‘백과사전’은 “예술과 과학의 체계와 범주를 보여주는 책. 프랑스 백과전서의 저자들은, 백과사전은 인간 지식의 체계와 교섭 양상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이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다.”⁴⁾(CYCLOPAEDIA, 브리태니커 초판, 1768)이었다.

이 시대로부터 250년이 지난 최근의 정의는 “어떤 범위 안에서 쓰이는 낱말을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싣고 그 각각의 발음, 의미, 어원, 용법 따위를 해설한 책. 최근에는 콤팩트디스크 따위와 같이 종이가 아닌 저장 매체에 내용을 담아서 만들기도 한다.”(辭典, 표준국어대사전, 2017)이거나, “여러 가지 사항을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그 각각에 해설을 붙인 책. 최근에는 콤팩트디스크 따위와 같이 종이가 아닌 저장 매체에 내용을 담

2) 2017년 2월 25일에 있었던 제30회 사전학회 학술대회에서 배연경은 「해외 온라인 사전의 현재와 미래」 제하의 발제를 통해, 이와 같은 불길한 기술적 발전의 추세를 예고한 바 있다.

3) “DICTIONARY, in its original acception, is the arranging all the words of a language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alphabet, and annexing a definition or explanation to each word. When arts and sciences began to be improved and extended, the multiplicity of technical terms rendered it necessary to compile dictionaries either of science in general, or of particular sciences, according to the views of the compiler.”

4) “CYCLOPAEDIA, or Encyclopaedia, denotes the circle or compass of arts and sciences. A cyclopaedia, say the authors of the French Encyclopaedia, ought to explain, as much as possible, the order and connection of human knowledge.”

서 만들기도 한다.”(事典, 표준국어대사전, 2017)이다.

가만히 이 정의를 들여다보면, 이 전통적인 정의가 대체로 ‘공급자’의 입장에서 기술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사실상 그 개념의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여야 할 것은, 인쇄물로서의 물성을 상실한 이 시대의 사전이 갖는 본질을 바닥부터 검토해 보는 일일 것이다. 언어학자인 로만 야콥슨은 그의 고전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발신자(sender), 수신자(receiver), 메시지(message), 상황(context), 코드(code), 채널(channel)의 여섯 가지의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사전도 대표적인 지식의 매체로서,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적용된다. 디지털 시대 이전의 사전은 대체로 고정된 ‘수신자’와 ‘상황’과 ‘채널’에 익숙해진 채, ‘발신자’의 입장에서 ‘메시지’에만 집중하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상황’과 ‘채널’에서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현격한 변화가 발생했고, 이 변화는 ‘수신자’의 수용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변화 자체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가 낳은 상징이 사전 정의의 변화이다. 언어사전에 대하여는 “특정한 맥락에서 사용자가 최적의 언어적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의 하나”⁵⁾(Hoffenberg, 2014)라는 정의가 나타났다. 유사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자신을 정의하는 문구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며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다언어판 인터넷 백과사전”(위키피디아, 2017)이다. 이들은 모두 기존의 사전에서 정의하는 전통적 정의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발신자/공급자의 관점이 아닌, 수신자/사용자의 관점을 택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소비자에게 제공된 인터넷이라는 채널에서는 정보의 현재성이나 분량에서 분명 위키피디아와 같은 유사 백과사전이나 검색엔진이 전통적인 사전보다 우세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브리태니커』초판 서문은 “유용성은 모든 출판물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Utility ought to be the principal intention of every publication)”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모든 언어권을 통틀어, 250년에 가까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출판물인 『브리태니커』서문의 이 첫 구절은 ‘사전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새삼스러운 질문에 대한 가장 간략한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백과사전의 편찬에 사용자/수신자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유용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질문은 250년 전 뿐 아니라 지금-여기에서도 유효하다. 시대와 상황과 채널은 계속 변하며, 그 안에서 수신자의 요구도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18세기에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이 “사전 작업의 의의는 그 사전 이용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 하나의 사전이 그 사전 사용자나 학습자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사전은 비평가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전학자 오피츠는 목적의 구체성 특정한 사용자 그룹의 요구를 측정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인지하는 것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고도 말했다. (하트만, 2008:249)

전통적인 사전이나 백과사전의 효용은 참조와 교육이다. ‘참조’는 어떤 주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다른 정보와 상대적 관계 속에서 찾아보는 일이며, ‘교육’은 사전 속에 수록된 내용과 그 지식의 구조를 학습 도구로 삼는 일이다. 이 두 가지 효용에 비추어 볼 때, 사전 속에 수록된 지식과 정보들은 문체와 용어, 기술의 방식과 지식의 구조 차원에서 중립성, 보편성, 균질성, 일관성, 체계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오피츠는 전문용어 사전을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정리하고 있다.⁶⁾ 그는 표준화, 통용성과 사어, 목적의 구체성, 포함, 항목의 조직, 형식 등을 문제적인 요소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확보하기 위한 고려사항이었다.(하트만, 2008:246~265)

5) “Soon the word ‘dictionary’ will likely refer to a tool that helps us find the most appropriate choice in a certain context, offering users easy access to meanings and translations of words and phrases, along with relevant examples of usage, etc.”

6) 이 책에서 오피츠가 전문용어사전/표준 사전을 별도의 장으로 나눈 까닭은 이 책 사전편찬의 원리와 실제에 수록된 다른 글들이 대부분 언어사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언어가 아닌 사실을 다루는 책인 백과사전은 별도로 다루어져 있지 않으나 전문용어사전에 대한 오피츠의 글은 상당부분 백과사전 등 사실을 다루는 사전들에도 해당된다.

나. 사전 편찬의 요소

하트만은 그가 엮은 『사전편찬의 원리와 실제』에서, 사전편찬학의 주요 양상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기록(recording)으로, 사전 편집의 기초를 이루는 어휘를 모으고 처리하는 활동이다. 여기에는 그 특성이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는 기술(description)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한 구조화와 배열의 계획 등을 말한다. 셋째는 제시(presentation)로, 계획된 바에 따라 타깃이 되는 대중의 요구를 다룰 수 있도록, 출판을 위해 그동안 작업해 온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다. 이에 더하여 좀 더 구체적이며 실용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사람이 시드니 랜도우이다. 시드니 랜도우는 그의 『사전편찬론』⁷⁾에서 사전의 편찬과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시드니 랜도우, 2002)

1) 사용 언어의 수

시드니 랜도우는 어떤 언어의 의미를 다른 언어로 전달하는 것(그는 ‘기점 언어’와 ‘목표 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을 사전이라고 전제하면서, 이 기능이 이중언어 사전뿐 아니라 단일언어 사전에도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언어에 ‘문화적인 특징’이 주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점 언어’의 의미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목표 언어’의 사용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편찬자는 따라서 사전 사용자의 효용이 무엇인지를 미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⁸⁾

2) 자금 조달 방법

사전의 편찬은 시장의 규모를 전제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학문적 사전은 매우 좁은 범위의 사용자를 향해 만들어지며, 해당 분야에서는 매우 높은 지명도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된 자금이 회수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런 사전류의 편찬자는 대개 후원 기금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랜 기간을 걸쳐 개발하게 된다.⁹⁾ 한편 상업적 사전은 넓은 범위의 사용자를 겨냥한 사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숙련된 다수의 편찬자들이 동원되어 개발된다. 상업적 사전은 대개 학문적 성취 때문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을 목표로 진행된다므로 때로 학문적 성취욕이 있는 편찬자들의 높은 기준과 이익의 실현을 위한 경영자의 기준이 배치될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3) 사용자 연령

시드니 랜도우는 사전이 역사적으로 교육의 목적에서 출발했음을 환기하면서, 사용자의 연령과 특성, 사용의 목적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사용자의 연령에 따른 어휘 지식에 따라 사전이 분화되어야 하며, 학습사전의 경우는 성인사전과 달리 편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사전의 크기

사전의 크기는 표제어의 수, 본항의 길이 등 사전 한 권에 담을 내용뿐 아니라, 용도에 따른 책의 사이즈와 페이지를 포함한다. 사전의 가치와 효용이 편찬 이전에 결정되어야 그 사전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고, 각 항목의 길

7) 1984년 『Dictionaries: The Art and Craft of Lexicography』 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이 책은 2002년에 한국어로 번역되었는데, 이후 사전학회 등에서 통용되기 시작한 사전편찬 관련 전문용어가 반영되지 않아 여러 용어에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책에 대한 간접 인용의 설명 가운데 소제목은 그대로 살리고 용어의 일부는 최근 용어로 대체했다.

8) 예를 들어 불영사전의 경우 불어 화자가 영어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 것인지, 영어 화자가 불어로 자기 표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9) 한국의 경우 『만한사전』, 『다산학사전』, 『임원경제지 국역본』 등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등 미시구조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용 대사전, 대학생용 탁상용 사전, 포켓 사전 등이 그 사례이다.

5) 분야별 취급 방법 규모

시드니 랜도우는 언어사전뿐 아니라 법률, 의학 분야같은 전문 분야의 사전이나 발음사전과 같이 정보의 제공을 다루는 사전의 경우, 범주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전문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사용자를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6) 취급되는 언어의 무리에 대한 한정

시드니 랜도우는 한 언어의 무리만으로 되어 있는 사전을 “특수 목적 사전”이라고 지칭했는데, 『영어 방언사전』, 『영어 어원사전』 등을 사례로 들고 있다. 이 장에서 시드니 랜도우는 개념을 다루는 참고 사전류로 백과사전과 개념사전, 개념이나 용어를 다루는 사전류로 시소러스, 용어를 다루는 사전류로 단일언어 사전과 명칭사전 등으로 구분하는 분류표를 제시하고 있다.

7) 어휘의 단위

시드니 랜도우는 사전의 미시구조에 담을 정보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관용구 사전, 색인, 주해서, 외래어 사전, 약어 사전 등을 그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전들은 독립 사전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본 사전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별권 부록이나 첨부의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8) 사용자의 제1언어

시드니 랜도우는 대상 사용자의 제1언어에 따라 사전 편찬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모국어 화자, ESL 학습자, EFL 학습자에 따라 같은 항목의 설명도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영국과 달리 대부분의 미국 내 영어사전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덜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9) 수록 대상 시기

통시적 사전은 어떤 언어와 개념에 대해 시간의 흐름 속에 누적된 내용을 모두 담는 사전으로 대부분 편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학문적인 경향이 강한 사전을 말한다. 공시적 사전은 대학생용 언어사전처럼 특정한 시기에 존재하는 어휘나 개념을 수록하는 데 중점을 두며, 어원보다는 현재성을 살려서 속어와 기술용어 등도 수록하는 특징이 있다.

10) 근거가 되는 언어관

규범적인 태도를 사전의 편찬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현실의 반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도 미리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사전 편찬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시드니 랜도우는 “규범적인 동시에 사실을 솔직히 기술하는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시드니 랜도우, 2002:48)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1) 검색법

표제어의 배열 순서, 즉 알파벳 순 배열인가 주제별 배열인가 등도 사전 편찬 시 고려할 중요한 요소이다. 전문 사전은 대체로 주제별 알파벳 순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시드니 랜도우는 배열에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알파벳 순 배열, 표제어의 어형에 의한 배열, 의미 순 배열, 조직적인 방법이 없는 배열을 들고 있다. 예컨대 『연대순 영어사전(A Chronological English Dictionary)』은 『간략 옥스포드 영어사전(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에 있는 모든 단어의 첫 발화 낱자순으로 재편집한 사전이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전 편찬의 요소는 그 자체가 독립된 의미와 가치를 해당 사전에 부여하면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통적인 사전 편찬 과정에 반영된다. 그 과정에서 이 요소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편찬 과정에서 ‘사용자’ 및 ‘사용자의 효용’에 대한 대단히 상세하고 구체적인 필터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1), 2), 3), 5), 8)은 사용자 및 사용자의 특성을 특정하기 위한 내용들이며, 4), 6), 7), 9), 10), 11)은 사용자의 효용을 특정하기 위한 내용들이다. 달리 말하면, ‘좋은 사전’이란 편찬 과정에서 사용자에 대한 이와 같은 전제가 특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짐을 말한다.

3. 지식 포털과 온라인 사전

전술했던 것처럼, 백과사전이 처한 상황과 채널, 그리고 수신자의 효용은 급변하고 있다.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과 같은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도 다중적, 동시적으로 진화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책이라는 미디어의 보급을 촉진하면서 근대를 견인했듯, 하드웨어는 그 속에 담기는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휴먼웨어까지 상상 이상으로 변화시킨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다중적으로 존재하는 오늘날을 흔히 ‘다중매체 시대’라고 한다. 다중매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콘텐츠 전달 방식의 다변화, 중층화에 따라 사용자 환경이 대단히 풍부해졌다는 점이다. 지식과 정보가 일정한 형식과 표준에 기준해 가공되고, 정연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온라인 사전의 전통적인 형태가 인쇄본 사전의 편찬과 같은, 전술한 바와 같은 편찬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매체를 바꾸어 제공된 것이라면, 상호작용과 집단지성 기능을 보충하거나 아예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위키피디아와 같은 다양한 양상이 공존한다.

데이터의 성격과 매체의 형식이 마치 소설과 종이책의 관계처럼 일정 부분 고착되어 있었던 시대에는 고객에게는 별다른 주체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다중매체 시대의 사용자는 공급자 의도와는 달리 전혀 다른 각도에서, 또 주체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해석하고 추출하며, 때로 전혀 새로운 효용을 생산해 낸다. 그런 의미에서, 공급자에 의해 규정된 매체들의 경계선은 사용자에 의해 휘발되거나 무시된다. 특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플랫폼이 된 인터넷 공간에는 수많은 사이트,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와 같은 쌍방향성 정보소통의 장소들이 명멸하고 있다. 이들 속에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단일한 창구를 통해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지식 포털”이다.

가. 지식 포털의 개념과 양상

한국과 세계의 지식 포털이나 온라인 사전은 대체로 속성상 유사한 방법과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구현과 효용은 나라와 언어권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¹⁰⁾ 따라서 이들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프레임에서 문제점이나 과제를 도출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지식 포털(Knowledge Portal)”이라는 말은 1995년 무렵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지식 경영 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s (KMS))”에 기반을 두어 탄생한 개념이었다.(Loebbecke & Crowston, 2014) 지식 경영 시스템은 일종의 조직 내부 지식 공유 시스템으로, 조직 구

10) 예컨대 대표적인 백과사전형 지식 서비스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위키피디아의 경우 2017년 8월 10일 기준 영어판은 5,457,522 항목, 스웨덴어판은 3,789,602 항목, 베트남어 판은 1,159,593 항목, 일본어판은 1,071,626 항목, 중국어판은 956,165 항목, 한국어판은 394,346항목임을 보여주고 있다(https://meta.wikimedia.org/wiki/List_of_Wikipedias/ko). 이 숫자는 인구, 경제력, 인터넷 기술의 수준, 컴퓨터의 보급률 그 어느 것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중국의 바이두 백과는 같은 날 14,969,284 항목을 보여주고 있다.

성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지식을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경영학적 개념이었다. 지식 경영 시스템이 수동적이며 시스템에 중점을 둔 표현이라면, 지식 포털은 지식의 저장, 검색, 통합, 창출을 지원하고, 지식을 조직하며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네트워크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다 폭 넓은 단일한 검색 엔진이나 관문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도 이 개념은 여러 기관에 의해 직접적으로나 은유적으로 받아들여져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2002년 정부에 의해 개설된 “국가지식포털”을 들 수 있다. 정부 각 기관에서 보유한 정보를 통합검색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개설된 이 지식 포털은 1300여개 공공기관 3억여 건의 지식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표방하며 www.knowledge.go.kr 도메인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몇 번의 도메인 변경을 통해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http://koreadb.data.go.kr>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지식 포털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제공하는 학술논문 DB, 동북아역사자료 DB, 국가 생물자원 DB, 건설공사정보 DB, 주민등록표 원장 DB, 소방대상물 DB 등, “대국민 100% 공개 및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 자원과 기관 내부연계,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을 카탈로그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즉, 초기에는 개념 그대로의 국가지식포털을 표방했으나 최근 그 기능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한국전통지식포털 (<http://www.koreantk.com>)도 정부기관 주도의 지식 포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통명사로서의 “지식 포털”은 대부분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2002년 무렵부터 “지식백과”를 차별화된 용어로 내세웠던 이 두 포털사이트에서 “지식 포털”이라는 용어가 연동되어 통용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엄밀히 말해 “지식백과”라는 말은 “지식이 아닌 백과”가 있음을 연상하게 하는, 의미상으로 동어반복의 경향이 있는 표현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이 때부터 역설적으로 “지식”이 아닌 “정보”가 “지식”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 “지식백과”에 편승하게 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무렵부터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성이 ‘집단 지성’의 이름으로 새로운 지식 정보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지식 과잉의 시대에 대해, 천정환은 세계 자본주의가 경제 성장의 동력을 통신 서비스와 IT 경제에서 찾아냄으로써 지식 패러다임이 확산되었으며, 이로부터 ‘지식기반사회’라는 담론이 성숙되었음을 말하고 있다.¹¹⁾ 그는 이렇게 고안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지식 개념이 확장되면서 더욱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지식’으로 일컬어져, 지식은 인식하고 지각하는 행위와 그 대상이 되는 내용 및 형상, 그리고 수행적인 기능 기술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를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의 지식 개념의 무한 확장은 여러 가지를 덮고 가린다. (천정환, 2008:33)

그는 ‘지식기반사회’의 명암에 대해 몇 가지 모순되는 점을 제기한다. 첫째, 인터넷과 뉴미디어, 그리고 ‘웹 2.0

11) 세계 자본주의가 경제 성장의 동력을 3차 산업(서비스 산업)과 IT경제에서 찾아냄으로써 지식 패러다임은 확산되기 시작했다. 각각 다른 뿌리와 맥락을 가진 지식 패러다임 - 3차 산업 - IT 경제는 합체하면서 새로운 괴물이 되었다. 지속적으로 확대된 3차 산업과 새롭게 개척된 IT 소프트웨어 산업이 얹은 ‘장소’와 배치를 변환시켰고, 자본과 국가에게 ‘굴뚝산업’ 중심의 경제체제와는 다른 ‘지침’과 지식을 찾도록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했고, “세상의 모든 지식 네이버”도 탄생했다.

‘지식기반사회’는 주류 경제학과 경영학에 의해 새롭게 전유된 사회 담론이다. 심지어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 뒤이은 새로운 문명의 단계로까지 칭송된다. 그러나 사회과학자 홍성태는 이 ‘지식’을 하나의 거대한 핑계이자 가상이라고 폭로한다. ‘지식기반사회’의 지식 개념이 얹은 권력적 속성을 잊게 하거나 자본주의의 적대적 본성을 감춘다는 것이다. 천정환(2008) p.31.

시대' 덕분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얇은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러나 변리사의 존재, 산업 기밀과 지적 재산권 체제, 전문적 지식의 높은 벽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얇은 소유에 관한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출처와 의미와 유효성이 불분명한 지식과 정보들의 과잉인 '지식기반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식의 가치라는 점이다. (천정환, 2008:51-53) 문혜성 역시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¹²⁾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현행 “지식 포털”의 양상에서는 앞 장에서 검토한 바, 하트만의 편찬 과정의 1단계인 “기록(recording)” 단계에서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링크를 연결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을 뿐, 그 다음 단계인 기술(description)과 제시(presentation)의 과정은 거의 수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하물며, 사전 편찬에 대한 시드니 랜도우의 좀 더 구체적인 요소에 대한 검증과 수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결과로 구축되어야 할 중립성, 보편성, 균질성, 일관성, 체계성이 반영된 데이터를 “지식 포털”을 통해 사용자가 누리기는 쉽지 않다. 즉, “지식 포털”은 사전 편찬의 관점에서 가치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해 지식 포털 안에 사전 데이터가 포함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를 사전의 범주에 넣기는 어려운 데이터의 집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온라인 사전의 여러 양상

언어사전의 경우, 디지털과 인터넷의 발달은 말뭉치 언어학의 실용적 가능성의 폭을 크게 확대했고, 이에 따라 공시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언어사전 편찬 방법의 진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전문사전과 백과사전과 같은 개념사전의 경우, 이 기술적 진전은 온라인 사전에 있어 기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사전의 초기 모델은 인쇄본으로 만들어진 사전이 디지털로 전환되어 온라인으로 검색이 가능한 플랫폼에 탑재되는 것이었다. 이 경우, 하트만과 랜도우의 편찬 과정은 거의 그대로 온전히 진행되며, 결과물의 검색에 있어서도 인쇄본과 같거나 비선형 구조를 통해 더욱 발전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 위에서 새로운 의미와 영토를 확보하기 시작한 온라인 백과사전¹³⁾류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편찬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서는 좀 더 본질적인 천착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전통적인 백과사전과 유사 온라인 사전의 궁극적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정보

12)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그 이상은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상업적 의도로 인해 사용자들의 사회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는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더욱 폐쇄적이 되었고, 결국 미디어의 영향으로 사회의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도취되어 있지만, 매우 값지고 비싼 데이터를 얻는 데 있어서는 기회균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존재하는 교육수준의 차이와 기능적 능력, 정보 획득 능력 차이로 사회계층간의 기회 균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혜성(2004) p. 61.

13) 전통적 의미의 ‘백과사전’은, ‘1. 일정한 독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한 목적과 기획 하에, 2. 제한된 편집자에 의해 항목이 엄격하게 선정되고, 3. 일정한 기준과 지침에 따라 편집되었으며, 4. 항목의 균형과 서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5. 필자와 발간의 주체가 그 내용을 보증하는, 6. 오랜 역사를 통해 신뢰를 받아 온, 7. 대규모의 포괄적인 지식 정보의 집적물인, 8. 전통적 의미의 백과사전’을 말한다. 형태적으로는 인쇄본 뿐 아니라 시디롬이나 디브이디 같은 디지털 매체에 탑재된 것과, 온라인 사전으로 개발되어 인터넷으로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모두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유사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위키피디아’의 경우, 위 요건 가운데 3, 7은 ‘백과사전’과 유사하지만, 나머지 1, 2, 4, 5, 6, 8 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이다.

의 현재성이나 분량에서 분명 유사 백과사전이 전통적인 백과사전보다 우세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 하트만과 랜도우는 항목의 선정에서부터 언어, 문체, 배열에 이르기까지, 특정 사전이 가져야 할 요소들이 정리되어야 좋은 사전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백과사전은 기본적으로 편집자라는 지식의 비평가에 의해 사용자에게 적합한 지식의 의미와 경계와 형태가 규정되고, 그 비평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 백과사전의 수준과 특성이 드러난다. 사용자는 그 필요성에 따라 백과사전을 선택하여 신뢰할 만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한다. 이는 좋은 비평가이나, 나쁜 비평가이나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다.

유사 백과의 경우, 백과와 유사한 형태로 원고가 모여지고 전시되며 제공된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개별 원고에 대한 비평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실제로, 한국어판 위키피디어의 가장 첫 페이지에는 “위키백과는 내용의 확실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 프로젝트의 호스팅을 제공하는 위키미디어 재단은 내용상 오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개인 편집자가 자신의 기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공지되어 있는데, 이는 그 내용의 확실성에 대해, 비평의 단계가 결여되어 있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https://en.wikipedia.org/wiki/Main_Page).

다. “온라인 사전”에 결여된 비평의 관점

문제는, 사전학과 사전편찬학은 기본적으로 비평의 본질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비평이 실종될 경우, 그것은 비평 없는 창작, 비평 없는 대중음악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그 결과 아마도 대중추수적인 경향이 가장 많이 나타날 것이다.¹⁴⁾ 사전학/사전편찬학의 관점은 현상의 분석이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의 모색이 본질일 터이다. 이 비평적 관점을 포기한다면, 사실상 집단지성의 플랫폼이라는 기술적 토대에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으로 사전에 대한 논의는 끝날 것이며, 사전은 소멸되고 사전학의 자리는 서지학으로 대체될 것이다.

“사전”이라는 말 속에는, 그 편찬 과정에서 이미 그 사전에 수용할 ‘정보’에 대한 특정한 비평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음을 뜻한다. 곧 “지식”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와 연결된다. 세상의 많은 데이터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모아 비평의 필터를 통해 거르고 다듬어 “지식”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 사전의 편찬 과정일 터, 이렇게 편찬한 ‘백과사전’에 수록된 내용과 그 기준들이, 다시 세상의 여러 정보들의 가치를 판단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것이 “사전”의 본질에 가까운 일이다. 미셸 푸코의 『말과 사물』(1966)에 수록된, 보르헤스의 책에서 인용한 중국 백과사전의 분류체계는, 비록 그것이 보르헤스의 상상력에서 비롯되었을지언정, 어느 한 사회의 지식이 그 사회의 무의식적인 구조에 의해 어떻게 갈무리되고 분류되며 기억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근대 계몽주의를 이끌었던 드니 디드로가 『백과전서』(1750)에 당대 학문체계의 기본이었던 신학, 법학, 철학, 의학에 더하여 새롭게 나타났던 과학과 기술 항목들을 신학과 대등한 위상으로 다루었을 때, 이는 그 내용이 아니라 구조에 의하여 새로운 ‘지식’의 출현으로 표상되었던 것이다. 그 영향을 받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펴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1768) 초판의 이름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새롭고 완벽한 예술 과학 사전’이었다는 사실은, 그 사이에 ‘예술’과 ‘과학’이 신학, 법학, 철학, 의학보다 더 가치가 있는 ‘최신 지식’으로 선호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즉, 백과사전은 지식의 귀납적 결과물이며, 또한 연역적으로 지식의 생산과 재평가에 기여하는 네트워크의 한 중심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사전의 편찬 과정에 대한 논의를 비평적으로 정리하자면 ‘지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소환해야만 한다. 이는 곧 ‘온라인 사전’에 대한 비평적 기준이, ‘온라인 기반의 지식 서비스가 보편화된 사회의 지식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효용을 가져야 하는가’에서 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14) 데이비드 와인버거는 지식의 위상을 설명하면서 ‘데이터-정보-지식-지혜’의 체계를 들고 있다(데이비드 와인버거, 2014:21-22). 와인버거의 진술이 아니더라도, 고전적 의미에서 세상에서 생성된 일차 데이터들 가운데, 지혜를 얻기 위해 걸러진 정보들이 지식이었고,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열한 것이 백과사전의 오래된 원형이었다.

4. 다시 “지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지식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수용자의 입장, 특히 유용성, 효용성과 관련이 될 것이다. 유용성, 효용성에 대하여는 또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투자와 효과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인쇄본에서 백과사전적 정보가 일정한 양과 질을 담보한, 하트만과 랜도우의 편찬 요소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일정한 품질과 기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까닭은 독자의 시간과 공간 물적 투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했다.¹⁵⁾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효용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에 집중되었는데, ‘교육’과 ‘참조’였다.¹⁶⁾ 이 두 중요한 효용이 주로 사용자의 측면에서 강조되었던 것이라면, 인터넷 시대를 맞은 지금, 생산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지 않는 일정 영역에서는 ‘유희’라는 또 다른 효용 하나가 생성되는 듯하다. 지식 전달이 일방적이었을 때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효용이기도 했는데, 누구라도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된 지금, 그것이 어떤 수준이든, 정보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개입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¹⁷⁾

가. 전통적 의미의 지식

디지털, 또는 인터넷 공간은 물리적으로 무한정하게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쇄본과는 달리 무한정한 정보

15) 심지어 인덱스조차, 그 효용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적은 시간을 들여,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는 데 있다.

16) “백과사전은 일반적으로 “교육”과 “참고”의 두 가지 ‘의도된 목적’ 아래 출판된다. 교육적 목적은 한 사실과 연관된 지식을 고리처럼 엮어 항목(대항목)으로 삼고 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의 체계적 학습을 돕고자 하는 형식을 말한다. 한편, 참고적 목적이란 지식을 잘게 쪼개어 소항목으로 삼고, 내용의 기술을 지극히 간략화 함으로써 즉답형 질문에 유용하도록 편찬된 실용적 백과사전에서 채용하는 형식이다. (중략) 백과사전의 편찬목적이 교육적인 것으로부터 현대적 의미의 참고적 가치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이다. 1796-1811 사이에 독일의 Friedrich A. Brockhaus가 편찬한 *Konversation-Lexion*(Brockhaus)은 종래의 교육용 백과사전과는 그 스타일이 전혀 다른 소항목 중심의 참고용 백과사전으로서, 최근의 재미있고 사실적인 기사들에 대해 짧고 간략하게 기술하는 편집방향을 택했다. 편집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은 독자들이 백과사전을 이용할 때 의문에 답하기 위한 정보원으로서 특정 사항을 참조할 뿐이지, 백과사전 이용을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한 학습을 시도하지는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Brockhaus는 독특한 편집방침 때문에 성공을 거두었고, 19세기 이후의 백과사전 편집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박준식·김문영, 1999: 9)

백과사전의 편찬 목적에 따라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는, 항목들의 배열 방식이다. ‘참고’가 강조되는 백과사전에서는 흔히 검색 편의를 위해 알파벳 순 배열을 선호하고, ‘교육’ 목적이 강조되는 백과사전에서는 주제별 배열을 선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일반 백과사전은 가나다 순으로, 학습사전류는 주제별로 편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로는, 특정 백과사전이 언어권에 따라 편찬 목적이 강화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도 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중고등학생용 백과사전인 『World Book Encyclopedia』은 원래 알파벳 순 배열 방식으로 편찬되었으나, 한국에서 이 백과사전의 기본 정보에 대한 저작권 사용을 허여 받아 편찬한 『웅진학습백과』는, 독자의 학습 환경을 고려해서 주제별 항목 배열로 편찬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꾼 경우이다. 알파벳 순 배열이 종이책의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제별 배열에서는 권 별로 특정 항목이나 내용이 일정 수준 중복되어 수록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17) 이런 점에서 현재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백과사전형 지식 서비스의 구현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이런 효용을, 전통적 백과사전의 생산자가 어떻게 흡인할 것인가도 또 하나의 과제일 수 있다. 영어판 위키피디아의 항목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에는 아마도 이러한 ‘생산자의 효용’이 상당 부분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효용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미미한 한국 사회의 지식 환경에 대해서도 또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를 넣을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전제가 ‘온라인 사전’에서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실제로, 집단지성의 모범적인 산물로 추앙받고 있는 위키피디어, 또 이와 유사한 서비스인 리그베다 위키나 엔하위키 미러, 그 후속인 나무위키와 같은 백과사전형 구조를 표방하는 공간은, 이론적으로 무한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생산자와 사용자가 공존하는 이 공간에는, 다양한 사용자의 권유와 기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표면적으로 디테일의 진실성을 추구할 뿐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진실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흔히 이들 플랫폼에서 발현되는 ‘지식의 축적’ 또는 ‘진실에 대한 공방’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합리성, 생산성과 엄숙성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의미한 지식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전제한 바, 사용자의 입장을 기준으로 지식의 의미를 추적할 때, 가장 유사한 모델은 인지과학, 또는 교육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일 터이다.¹⁸⁾ 인지과학에서는 지식을 몇 가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Polanyi(1966)는 지식을 두 가지 차원, 형식지(explicit knowledge)와 암묵지(tacit knowledge)로 구분한 것이다. 형식지는 코드화할 수 있고 공유된 언어에 의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을 가리킨다. 반면에 암묵지는 코드화나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행위나 참여를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을 가리킨다. 형식지는 책, 기술사양서, 설계도, 기계에 체화된 재료등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는 지식이며, 암묵지는 관찰, 모방, 현장작업과 같은 경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을 가리킨다(Kim, 1997; Nonaka, 1995). Nelson과 Winter(1982)는 인간이 사용하는 지식의 많은 부분이 문맥에 구속되어 있고 기업 특유의 특성을 가지며, 본질적으로 암묵적이기 때문에 지식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이전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Anderson (1983)은 지식의 차원을 명제의 형태로 표현되는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과 자전거를 타거나 피아노를 치는 방법과 관련된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으로 구분하고 있다. 절차적 지식은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knowing how)와 관련된 지식으로, 잘 숙달된 기예(skill)와 습성과 같은 개별적인 지식을 나타낸다. 반면에 선언적 지식은 어떤 것을 알고 있다(knowing that)과 관련된 지식으로, 사실과 명제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Cohen & Sproull, 1996)(홍사균, 2000:2-3).

인지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들은 표상 유형에 따라 일반적으로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과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으로 구분된다. 선언적 지식은 보통 어떤 사실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지식을 말하며, 의미론적 기억과 일화적 기억을 포함한다. ‘구명복은 물에 빠졌을 때 인명을 구하기 위해 입은 옷이다’라는 것이 의미론적 기억이고, ‘나는 제주도 가는 페리호에서 구명복을 입어 보았다’는 일화적 기억이다. 선언적 지식은 유추적 표상(새벽에 날이 밝으면 아침이라는 것)과 상징적 표상(어떤 영어단어에 대응하는 한국어가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에 의해 조성되며 형식적이다. 대체로 교과서에 있는 지식들은 사실, 개념, 원리, 법칙 등과 같은 서술적 지식이다.

절차적 지식은 ‘운전하기’, ‘지도 읽기’, ‘구명복 입기’ 등과 같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며 암묵적이다. 조건적 지식(conditional knowledge)은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언제, 왜 사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배가 기울고 있으니 구명복을 입어야 하고, 입은 뒤에는 더 기울기 전에 탈출해야 한다’를 조건에 따라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식이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지식체계가 발전되어 간다는 것은 명시적인 지식(형식지)을 암묵성이 높은 지식(암묵지)으로, 그리고 단편적인 지식(혹은 요소적 지식)들을 엮어서 체계화된 지식(혹은 구조적 지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홍사균, 2000:41)

지식에 대한 이러한 담론은, 지식의 형성과 습득이 개인의 인지 작용과 개인이 속한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적 상

18) ‘지식’과 ‘정보’의 경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개념은 무의미하다.

호작용이라고 간주하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이 바탕이 된, 구성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지적 구성주의가 지식의 내적 구조에 초점을 둔다면, 사회적 구성주의는 지식이 사회적 맥락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구성주의에 따르면, 지식은 다른 사람과 공유되는 과정 자체에 존재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 환경이다.

구성주의는 또한, 지식에 대한 절대적 관점을 해체함으로써, 급속도로 다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자 현행 국가 교육과정에서 채택한 기본 개념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7차 교육과정 이후의 주된 교육 목표는 문제 발견과 협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해결 학습,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이다. 이러한 학습 환경에서 강조되는 것은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입체적이며 다중적인 지식의 네트워크이다. 주연경은 인터넷의 독특한 정보 전달 구조인 하이퍼텍스트 구조가 정보 전달에 있어서 핵심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따라서 하이퍼텍스트를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하는지에 따라 지식의 전달 내용도 바뀔 수 있다는 커뮤니케이션 연구가들의 주장에 주목하고, 이용자의 사전 지식의 차이에 따라 비선형적 웹사이트 구조가 구조적인 지식과 선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어떤 유의미한 경향이 있는가를 연구했다. 그에 의하면, 비선형적 웹 구조는 구조적인 지식을 증가시키는 경향성이 있으며, 사전 지식이 높은 이용자 역시 비선형 구조에서 높은 구조적 지식을 습득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주연경, 2007).

나. '온라인 사전' 사용자에게 유의미한 지식

즉, '온라인 사전'의 사용자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는 지식은 되도록 선언적, 절차적 지식을 조건적 지식의 차원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단편적인 지식을 체계화된 지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비선형적 구조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온라인 사전과 지식 포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식'의 개념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데이터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진 여과된 것이 '정보'이고, '정보'에서 다시 가치 있는 것만을 골라 낸 것이 '지식'이라는 개념이 전통적 지식의 생산자들에게는 아직 유효하지만, 지금-여기의 사용자에게는, 그 개념이 인식될 동기나 장치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용자들은 "온라인 사전"이라는 동일한 관문을 통해 전통적인 백과사전과 유사 백과사전, 각종 전문사전의 내용을 동시에 검색창 하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지금-여기의 보편적 사용자들은 원전에 대한 유의미한 식별에 대한 인식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공통적 속성을 보인다. 그들 앞에는 다양한 관점으로 자기화 되어 있으며 수시로 수정이 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전술한 집단 지성 기반 유사 백과사전의 정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흡수되어버린 전통적 뉴스 미디어들에서 공급되거나 하위 미디어들, 또는 포털 사이트에 의해 재생산되는 시의성 정보와 그에 대한 사용자 반응이 역시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그들에게 제시되는 웹 공간에서의 모든 정보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실시간 검색 리스트'이라는 필터에 의해 획일화되는데, 이 필터에 의해 획일화 된, 즉시적, 대중적이며 일관성과 맥락을 찾기 어려운 결과물은 즉시 대중에 의해 소비되면서 재생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치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고 책을 사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식의 순환이 지속된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요하임 모르와 그의 동료들은 전통적 지식을 '진정한 지식'으로 호출하려 한다(요하임 모르, 2012). 이 책 표지에 씌어져 있는 "당신이 아침에 읽은 트위터 한 줄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라는 카피는, 이들이 추천하는 지식이 무엇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이매뉴얼 윌러스턴은 보다 통시적으로 지식의 문제에 접근한다. 그는 19세기에 학제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현재의 분과학문 체제가 '지식의 확실성'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다변화와 매체의 변화에 따라 '지식의 불확실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식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이매뉴얼 윌러스턴, 2007). 데이비드 와인버거는, 인터넷 시대가 가져온 지식 인프라의 변화가 지식의 형태와 본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그는 개별 지식을 무상으로 언제나 무한하게 호출할 수 있게 된 지금, 진정한 지식은 개별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검증이 가능하며 의미 있는 확장과 연결이 가능한 '지식의 네트워크'라고 주장한다. 즉, 네트워크와 된 지식이 우리를 지식에 대한 진

실제 가깝게 다가가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데이비드 와인버거, 2014:343). 와인버거의 진술은 근대적 지식의 공고한 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을 예측한다는 면에서는 월러스틴과 유사한 견해이지만, ‘진정한 지식’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요하임 모르와 다르지 않다. 얼핏 보아 상충되어 보이는 이 두 견해의 통찰을 통한 접점에 위치한 그의 새로운 지식 도출의 방법론이 ‘지식의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이 방법론은 앞에서 검토한 바, 웹의 태생적 기능의 하나인 ‘비선형 구조’와 상동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다. 한국의 ‘온라인 사전’ 데이터

현재 한국 사회에서 주도적이며 가장 큰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네이버이다.¹⁹⁾ 네이버는 2002년 두산동아 백과 데이터의 독점사용 계약과 함께, 항목 확장 작업에 집중하면서 검색 결과 향상에 주력했다. 전 세계 검색 트래픽 점유율의 90%를 차지하는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는 두산 백과 외에도 약 2,500 종의 사전과 3백만에 가까운 표제어²⁰⁾를 내세우는 네이버에 밀리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그 바탕에는 비록 폐쇄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 사용자들의 관심사에 부합한 결과를 보여주는 네이버의 지식 정보 데이터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사전 정보 데이터가 분명 한국 사회에서 온라인 사전의 대표적인 사례임에는 틀림없겠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이와 같은 다량의 정보가 분명 사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여 80%에 이르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의 구조는 평면적인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식’에 대한 앞에서의 여러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네이버의 데이터는 사실상 인쇄본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웹으로 이식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색 결과가 소장하고 있는 다양 다종의 데이터를 병렬로 배치했을 뿐, 웹사이트에서 가능한 유의미한 비선형 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 사용자의 비평적 안목

하트만의 지적처럼, 사전의 생명은 결국 사용자의 효용을 얼마나 만족시키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나,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한국 사회의 보편적 사용자들은, 급격한 정보화의 흐름 위에서 전통적인 지식의 가치를 분별하는 힘을 상실한 듯 여겨진다.²¹⁾ 이는 일견 독과점의 징후를 보이는 거대 검색 포털 사이트와 모바일 기기의 급격한 보급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본래 텍스트의 수준에 대한 식별에 익숙하지 않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²²⁾ 데이터나 정보가 아닌 지식, 특히 대개의 백과사전들이 갖고 있는 ‘메타 지식’의 의미와 가치를 크게 인식하지 않는 점에서, 많은 사용자가 백과와 유사백과 등 다른 백과사전형 지식 서비스에 수록된 내용의 차이와 의미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²³⁾ 즉, “온라인 사전”이라는 형태를 통해 제공되는 “지식”은, 사실상 엄밀

19) 한국에서 인터넷에 일반인들의 접근이 가능해 진 것은 1995년부터이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야후와 같은 디렉토리 서비스 외에는 효용이 높은 서비스가 드물었다. 그나마도 한국어로 형성된 데이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은 정보를 찾는 사용자에게 실용적 만족을 주지는 못했다. 2000년 후반, 두산동아백과사전 데이터가 당시 국내 5개 포털 사이트에 제공되면서, 기본적인 지식 검색이 가능해졌고, 이후 2002년 지식검색(지식인), 2003년 블로그, 카페를 통해 사용자가 생산한 정보도 검색 결과에 반영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20) 수록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을 실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7년 8월 10일 현재 2,500여 사전, 2,974,049 표제어가 있음을 보여준다(<http://terms.naver.com/>).

21) 사전의 특성에 따른 선호가 인쇄본에서와는 달리 웹에서는 유의미하게 드러나지 않는 현실이다. 거의 대부분의 사용자는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사전 데이터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변별하지 않는다.

22) 일본의 경우, 사전의 브랜드는 그 사전을 드러내는 특성과 함께 변별의 요소로 작용하며, 그 결과 전자사전은 기계의 기능적 측면보다 탑재된 사전의 브랜드에 따라 선호되고 있다. 브랜드가 구분되지 않는 스마트폰 보급 이후 전자사전이 사라진 한국과는 매우 대조되는 현상이다.

한 의미에서 사용자에게 반영될 “사전”이 가져야 할 비평의 과정이 생략되었고, 체계와 구조가 해체되어 다시 “지식 이전 정보 데이터”에 머물게 되었음을 뜻한다.

5. 맺는 말

이 글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웹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지식 포털과 온라인 백과사전에 대하여, 특히 그 편찬 방법론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 씌어졌다. 그러나 워낙 광범위할뿐더러 편찬 방법만을 따로 떼어내어 논의하기 어려운 사전학의 특성에 따라, 전통적인 사전편찬에서의 주요 요소를 정리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식 포털과 온라인 사전의 편찬 요소의 비교를 통해 사전의 본질적인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했다.

전통적인 사전의 편찬과정은 하트만과 시드니 랜도우가 정리한 것처럼, “사전”을 특정하고, 수많은 정보 가운데 그 “사전”에 적합한 “지식”을 변별한 후, 특정 “사용자”의 “효용”을 겨냥하여 새로 다듬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전”에 적합한 “지식”을 변별하는 비평의 과정이다. 이 비평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수많은 “정보”에서 사용자에게 유용한 “지식”이 생성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쇄본과 다른 온라인 사전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온라인 시대의 ‘지식’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고자 했다. 인쇄 매체를 통해 전달, 계승되었던 “지식”의 함의가 사전을 통해 귀납적으로 정리되고, 또한 사전 자체에 수록된 지식의 구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미루어, 온라인 사전 역시 그 본질과 지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시대의 ‘지식’의 본질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혔다.

“지식”의 개념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비단 사전학, 사전편찬학 뿐 아니라, 메타지식을 대상으로 삼는 여러 학문 분과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음을 인용하면서, 바람직한 온라인 사전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의 홍수 시대의 사용자들이 스스로 지식을 효용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여야 함을 제시했다. 또한 하트만과 랜도우의 편찬 과정의 요소 모델과 과정을 현행 한국의 “지식 포털”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온라인 사전” 역시 개별 사전이 아닌 통합 검색을 통한 사전이거나 집단지성으로 각광받고 있는 위키피디어 류의 유사 사전에서는 검증하기 어려움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사전’과 ‘사전학’의 관점에서, 특정 사용자와 효용에 대한 비평적 편찬의 과정이 결여된 데이터를 ‘사전’이라고 간주할 때, ‘사전’과 ‘사전학’은 스스로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이르게 됨에 주목하고자 했다.

사전비평적 관점에서 기술하다 보니 개별 서비스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따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앞의 여러 요목에 대한 검증 및, 실천적 분석을 과제로 남기면서, 이 글을 계기로, 지금-여기의 백과사전에 담아야 할 지식은 과연 무엇인가,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생산자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담아야 하는가에 대해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창일 (2011), 『『한국민속대백과사전』웹서비스 구축 현황과 향후 전략 모색』, 『한국사전학』 제17호
나은경 (2009), 『다중매체시대 미디어 이용 패턴의 변화와 이용 내용상의 질적 다양성 탐구』, 한국언론재단
데이비드 와인버거, 이진원 역 (2014), 『지식의 미래』, 리더스북.

23) 일례로, 전국의 음식점 목록은 데이터이다. 그 중, 맛집에 대한 주소, 목록, 경험담을 정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 맛집을 통해 얻고자 하는 사용자의 가치에 대한 것, 즉, 경험담의 진위를 비평한 내용이나 신뢰도 있는 비평가의 진단을 통해 검증된 정보, 또는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맛집 판단의 기준을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리처드 메이어, 임미라 역 (2009), 『멀티미디어 러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문혜성(2004), 『미디어 교육학』,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박준식·김문영 (1999), 「인쇄본 백과사전의 평가요소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3권 2호.
- 송병건 (2007), 「정보의 바다와 산업혁명 : 인터넷 백과사전류에 대한 비교검토」, 『영국연구』 통권 제17호.
- 시드니 랜도우, 김영안 외 공역, (2002), 『사전편찬론』, 한국문화사
- 요아힘 모르 외, 박미화 역 (2012), 『무엇이 과연 진정한 지식인가』, 더숲.
- 이매뉴얼 월러스틴, 유희석 역 (2007), 『지식의 불확실성』, 창비.
- 장경식 (2012), 「다중매체 시대의 백과사전」, 『한국사전학』 제19호.
- 정철 (2008), 「온라인 백과사전 만들기-다음백과 2007 개편을 중심으로 한 필드 스터디」, 『한국사전학』 제11호.
- 주연경 (2007), 「웹 사이트의 구조가 다양한 층위의 지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이용자의 사전 지식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천정환(2008), 『대중지성의 시대』, 푸른역사
- 하트만 편, 서태길 외 공역 (2008), 『사전편찬의 원리와 실제』, 제이앤씨.
- 홍사균 (2000), 「지식흡수의 학습과정 모형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Théo Hoffenberg(2014), 「Redefining dictionaries and language tools」, Kernerman Dictionary News 22.
- Loebbecke & Crowston(2014), 「Knowledge Portals: Components, Functionalities, and Deployment Challen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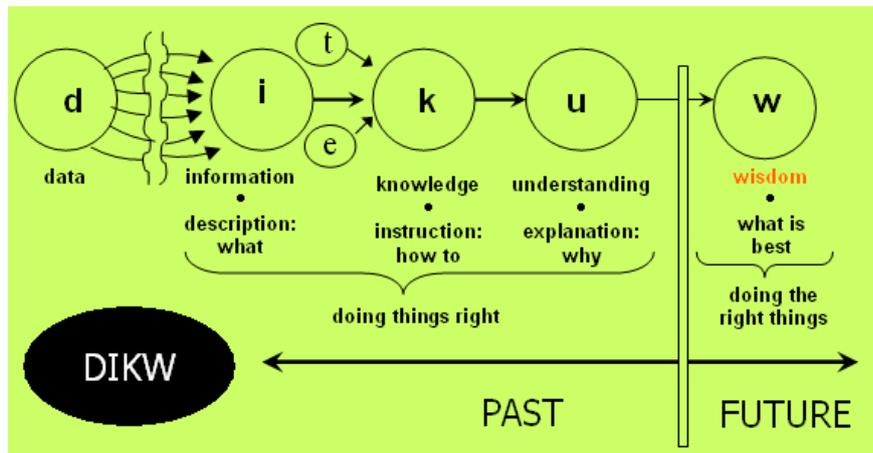
“지식 포털에 온라인 사전”에 대한 토론문

이기황 (주)다음소프트

‘지식’ 개념의 혼돈과 확장

저자는 천정화(2008)을 인용하여 이른바 ‘지식기반사회’의 명암과 모순을 지적하고 비평이 결여된 채로 지식의 대접을 받는 유사 백과와 온라인 사전의 한계를 적시하였다. 또한 그 가치와 성숙도에 있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혹은 ‘진정한’ 지식으로 보기 어려운 데이터의 집적이 ‘지식 포털’을 통해 소비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지식을 그와 연관된 개념인 데이터, 정보 등과 체계적으로 연관 지어 이해하려는 노력은 지식 경영과 시스템 사고 분야에서 시도되었다. 이러한 시도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DIKW 피라미드(Data, Information, Knowledge, Wisdom pyramid), 또는 DIKW 위계(DIKW hierarchy)라고 부른다(Wikipedia 2017a). 논의에 따라 구성 요소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구성 요소들의 관계를 표현한다.



<그림 1> DIKW 위계의 흐름도(Wikipedia 2017a). e: 형식지, t: 암묵지

<그림 1>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데이터에서 출발하여 정보를 거쳐 지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존재하며, 각 단계는 앞 단계의 산물을 입력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선별, 배치, 요약, 체계화, 비평 등의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DIKW 위계를 전제하면 현재 온라인 사전을 포함하고 있는 지식 포털은 주로 어떤 개체가 ‘무엇’에 대한 답을 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어떻게’와 ‘왜’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한다고, 혹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유도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식’이라는 개념의 확장과 관련하여 윌러스틴(2007)에서 주창한 ‘지식의 불확정성’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서양 과학사에 있어서 ‘불확정성’의 등장에 대해서는 해킹(2012)에서 명쾌히 소개하고 있다. 즉, ‘지식의 불확정성’은 19세기 통계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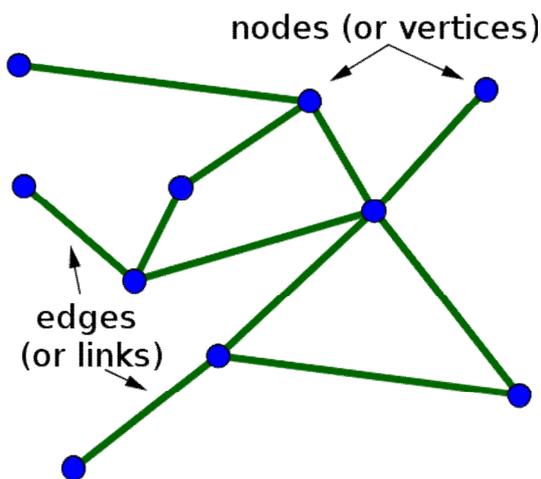
부터 시작된 ‘우연’의 길들이기에서 시작하여 20세기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을 통해 등장한 ‘불확정성의 원리’를 거쳐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식의 불확정성’이란 바로 ‘확률적 지식’임을 알 수 있다.

지식 네트워크와 사전 편찬자의 역할

논문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와인버거(2014)에 기대어 현재 시점에서 진정한 지식, 혹은 유용한 지식은 개별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개별 지식들의 검증이 가능하며 의미 있는 확장과 연결이 가능한 ‘지식의 네트워크’야말로 진정한 지식이며, 유의미하게 잘 조직된 비선형 구조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전이 이러한 지식의 도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네트워크로 묶인 지식의 가치와 그 유용성은 학술적으로나 직관적으로나 공감하지 않을 사람을 없을 것이다. 다만 논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분히 추상적인 개념인 지식의 네트워크는 하이퍼텍스트로 대표되는 수학적으로 완결된 정의가 가능한 구체적인 대상으로 환원할 수 없으면 서비스로 구현이 불가능하다.

네트워크 이론에서 다루는 네트워크는 수학의 하위 분야인 그래프 이론에서 정의하는 그래프와 같은 것이다.¹⁾ 일반적으로 순서쌍 $G = (V, E)$ 로 정의되는데, 이때 V 는 꼭짓점(vertex), 매듭(node), 또는 점(point)으로 불리는 원소들의 집합이고 E 는 변(edge), 연결(link), 또는 선(line)으로 불리는 원소들의 집합이다. 집합 E 의 원소인 변은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V 의 부분집합이다(Wikipedia 2017b). 이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그림으로 나타낸 간단한 네트워크
(Nykamp n.d.)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꼭짓점들은 변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 꼭짓점에서 다른 꼭짓점으로 연결되는 변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으며(멀티 그래프), 변에는 방향이 없다(무방향 그래프). 그래프의 종류에 따라 다중 경로가 허용되지 않기도 하며(단순 그래프), 경로

1) 엄밀히 말하면 꼭짓점 또는 변에 명칭 등의 속성이 부여된 그래프를 네트워크라고 한다(Wikipedia 2017b). 이 토론문에서는 그래프와 네트워크를 구분하지 않는다.

에 방향이 있을 수도 있다(방향 그래프). 나아가 각 변에는 꼭짓점 간 연결의 긴밀함, 또는 거리로 해석될 수 있는 가중치가 부여될 수도 있다(가중 그래프).

앞서 언급한 하이퍼텍스트, 특히 웹에서는 개별 문서가 꼭짓점에, 한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의 링크가 변에 해당하는 그래프이며, 두 꼭짓점 사이에 방향이 있는 여러 개의 변이 존재한다. 즉, 우리가 흔히 웹에서 접하는 하이퍼텍스트는 방향 멀티 그래프이다. 두 문서 간의 링크의 앵커는 해당 링크를 나타내는 변의 속성으로 표현될 것이다.

위와 같이 하이퍼텍스트를 수학적으로 정의한 상태에서 지식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백과사전 편찬자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다.

첫째, 지식의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개별 지식은 위의 정의에서 꼭짓점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별 지식은 하나의 문서, 혹은 백과사전의 개별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전 항목은 표제어로 대표, 혹은 요약되므로 개별 지식은 결국 표제어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 즉, 추상적인 대상인 지식이 텍스트의 구성 요소인 문자열로 환원된다. 이러한 환원, 그리고 이의 역방향 복원에 있어서 사전 편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위에서 꼭짓점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원자적인 것으로 전제되는데, 개별 지식, 혹은 사전 항목은 그렇지 않다. 경우에 따라 하나의 개별 지식은 더 단위가 작은 하위 지식으로 분해될 수 있으며, 반대로 개별 지식들이 합쳐지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지식의 네트워크에서 꼭짓점들은 재귀적 성질을 가능성이 크다. 지식의 해체와 병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수준까지를 원자적 지식으로 보아야 할지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전 편찬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하이퍼텍스트의 링크에는 가중치가 없다. 즉, 모든 변을 동등하게 취급한다. 그런데 지식의 네트워크에서 개별 지식들의 연결이 모두 동일한 가치를 지닐 수는 없을 것이다. 연결 가운데에는 밀접한 연결과 느슨한 연결이 있을 것이다. 또는 연결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하이퍼텍스트에서는 텍스트 간 연결의 앵커가 한 텍스트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이 앵커는 네트워크의 변에 속성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연결의 가중치 또는 우선순위의 부여에는 앵커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여라도 연결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일에도 사전 편찬자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링크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식 네트워크는 정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동적 네트워크이다. 앞서 개별 지식의 의미 있는 확장과 연결이 가능한 것이 지식 네트워크라고 하였다. 이 확장과 연결 양상은 고정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또한 불확실성을 지닌 (메타) 지식이다. 지식의 효용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에 지식 네트워크 역시 사용자별, 나아가 상황별로 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도입된 개인화된 검색 서비스와 추천 서비스를 생각할 때에 지식 네트워크의 동적 생성은 결코 무리한 개념이 아니다. 이에 있어서도 사전 편찬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지식 네트워크의 동적 생성을 위한 모델과 이의 평가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까지는) 인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하이퍼텍스트, 나아가 지식 네트워크를 그래프 이론에 의거하여 정의하고 그 구성 요소에 생성 방법을 살펴보며 사전 편찬자의 역할에 대하여 간략히 고민해 보았다. 그러나 지식 네트워크가 어떤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지,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할지는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고도로 지적하면서도 공학적인 지식 네트워크 생성 환경이 어떻게 마련될지, 사전 편찬자들은 이 환경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또한 예측하기 힘들다.

참고문헌

- 이언 해킹/정혜경 옮김(2012), 『우연을 길들이다』, 바다출판사.
- Nykamp, Duane Q.(n.d.), “An introduction to networks,” *Math Insight*,
http://mathinsight.org/network_introduction (2017-08-20 접속).
- Wikipedia(2017a), “DIKW pyramid,”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DIKW_pyramid (2017-08-20 접속).
- Wikipedia(2017b), “Graph (discrete mathematics),”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Graph_\(discrete_mathematics\)](https://en.wikipedia.org/wiki/Graph_(discrete_mathematics)) (2017-08-20 접속).